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석사학위논문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복피해를 중심으로 -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영 조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복피해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유 조 안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영 조

조영조 사회복지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김혜란



부 위 원 장

이봉주



위 원

유조안



국문초록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중복피해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조 영 조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아동의 직·간접학대경험에 있어 단일학대경험과 중복학대경험을 중심으로 기존의 연구가 분석해내지 못했던 피해화의 프로파일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첫째,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중복학대집단은 단일학대집단보다 아동발달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는가?,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토대로 아동발달에 미치는 가정폭력의 영향을 중복피해화 모델, 사회학습 이론, 트라우마 이론으로 설명하였다.

분석을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양친과 함께 살고, 형제자매가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아동이 응답한 가구’ 1918 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동시에 아동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아동의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 학교생활만족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유의한 영향이 검증되었고, 학업성취도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는 일반아동과 다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과의 비교에서는 아동의 외현화문제, 내재화

문제,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검증되었다. 외현화문제에서는 중복 학대집단이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더 심각한 수준을 보였고, 내재화문제에서도 그러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중복학대집단이 직접학대집단과 간접학대 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고, 학업성취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집단괴롭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서는 중복학대집단이 단일학대집단보다 오히려 덜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살펴본 결과, 외현화문제와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고, 내재화문제, 학업성취도,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밝혀지지 않았다. 이는 가정폭력이라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성별 차이가 중요한 영향요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함의로는 실천현장에서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개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직접학대와 함께 간접학대도 사정되어야 하며 개입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제기된다. 또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단일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학대경험을 사정들에 포함시키고, 그들에게 더 집중적인 치료와 장기적인 개입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성별차이도 고려해서 개입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학대피해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아동의 자아개념, 또래지지 및 사회적지지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점, 독립변수 중에서 부부폭력노출을 아동의 응답이 아니라 부모의 응답으로 측정한 점,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전과목평균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한 것이 있다. 향후 국내연구로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가정폭력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히는 종단연구,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통합적인 경로를 밝히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가정폭력, 아동학대, 중복피해, 직접학대, 간접학대, 아동발달

학 번: 2010-23001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문제제기	1
제 2 절 연구문제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5
제 1 절 이론적 배경	5
1. 중복피해화 모델	5
2. 사회학습이론	10
3. 트라우마이론	12
제 2 절 문헌검토	15
1. 아동발달	15
1) 심리사회발달	16
2) 학교적응	17
2. 가정폭력과 아동	23
1) 단일학대경험	23
2) 중복학대경험	27
3) 성별에 따른 차이	28
3. 기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1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33
제 1 절 연구모형	33
제 2 절 연구가설	35
제 4 장 연구방법	36
제 1 절 연구대상	36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37
1. 독립변수	37
2. 종속변수	39
3. 통제변수	41
제 3 절 통계분석방법	43

제 5 장 연구결과	44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4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49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49
2. 학대경험유형별 분포	51
3. 학대경험유형별 종속변인에 대한 분산분석	52
4. 주요변수간 상관관계	54
제 3 절 가설검증	59
1.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59
2. 중복학대와 단일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67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	75
제 6 장 결 론	86
제 1 절 논의	86
제 2 절 연구의 함의	97
1. 이론적 함의	97
2. 실천적 함의	98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99
참고문헌	101
부록1. 설문문항	112
부록2. NatSCEV	120
부록3. JVQ	124
Abstract	127

표 목 차

[표 1] 가구조사 층화 방법	37
[표 2] Conflict Tactics Scales 관련 변수명 및 분석문항	38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지역거주환경)	46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가구특성)	47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부모특성)	48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특성)	49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50
[표 8] 학대경험유형별 집단간 종속변수의 차이	53
[표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연구문제1)	57
[표 10]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연구문제2)	58
[표 11] 연구문제1의 회귀식	59
[표 12] 가정폭력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61
[표 13]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I	62
[표 14]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II (로지스틱)	65
[표 15] 연구문제2의 회귀식	66
[표 16] 학대경험유형별 더미코딩에 의한 집단분류	67
[표 17] 중복학대와 단일학대의 비교 I	69
[표 18] 중복학대와 단일학대의 비교 II	71
[표 19] 중복학대와 단일학대의 비교 III (로지스틱)	73
[표 20] 연구문제3의 회귀식	74
[표 21]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I	76
[표 22]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II	77
[표 23]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III	79
[표 24]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IV	80
[표 25]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V (로지스틱)	82
[표 26]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VI (로지스틱)	84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1	32
[그림 2] 연구모형2	33
[그림 3] 연구모형3	33
[그림 4] 학대경험유형 집단별 벤다이어그램	5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가정폭력이 명백한 범죄이고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들이 아동에게 미치는 손상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가정폭력은 크게 부부간에 발생하는 부부폭력, 부모 자녀간에 발생하는 아동학대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기 자녀의 입장에서 이 두 학대경험을 모두 포괄하여 사정한 정밀한 분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부부폭력에 노출된 가정폭력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김용태, 2000; 김재엽 외, 2008; 장희숙, 2010; 최혜정, 2012), 아동학대를 직접 당한 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민수홍, 1998; 이경은 · 장덕희, 2000; 배화옥, 2010; 조춘범 · 조남홍, 2011)을 주로 보고해 왔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기 자녀는 실제로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목격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학대를 중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동기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 충분한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Finkelhor et al., 2011).

이렇게 아동에게 축적된 폭력의 피해는 가정외의 다른 체계로 전파된다. 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는 사회적인 맥락에서 공격성을 보다 많이 드러내게 되고, 비행, 범법행위 등의 사회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Fantuzzo & Mohr, 1999; Zingraff et al., 1993; Widom, 1989; 장희숙, 2010에서 재인용), 그들이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이호택, 2012). 또한, 아동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나중에 성인기가 되었을 때 그 피해가 표출될 수 있다. 특히 가정을 형성했을 때, 자신의 부모가 사용했던 폭력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Mihalic et al., 1997). 폭력이 횡적으로 다른 사회체계로 전파되는 한편 종적으로도 세대 간에 전이될 수 있다.

앞으로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직접 당한 경험뿐 아니라 간접적인 학대피해 경험까지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 간접적인 경험인 부부폭력에 노출되거나 자신의 형제자매가 부모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경험은 심리적인 학대로 규정되고 있고(McGee & Wolfe, 1991; Feled & Davis, 1995; Somer & Braunstein, 1999; Kitzmann et al., 2003에서 재인용), 아동에게 심리·정서적인 문제, 행동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학업적인 문제들(Fantuzzo & Lindquist,

1989; Jaffe, Wolfe, & Wilson, 1990; Kolbo, Blakely, & Engleman, 1996; Margolin & Gordis, 2000; Wolak & Finlehor, 1998; Kitzmann et al., 2003에서 재인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들은 앞으로의 가정폭력 연구가 학대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촉구한다.

특히 여러 연구자들은 학대 목격과 직접 피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아동이 보다 부정적인 발달산물로 이어짐을 제시해 왔는데(Hamby et al., 2010),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살고있는 아동은 실제로 직접학대와 간접학대를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전국적인 설문조사(NatSCEV)에서 부부폭력에 노출된 아동 중에서 33.9%가 아동학대도 중복 경험했다고 응답했다(Hamby et al., 2010). 이것은 부부폭력에 노출되지 않은 아동 중에서 아동학대를 당한 비율은 8.6%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많은 연구들이 가정폭력의 세부항목인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사이에 상당한 부분이 중복(overlap)되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Appel & Holden, 1998; Jouriles, McDonald, Slep, Heyman, & Garrido, 2008; Hamby et al., 2010에서 재인용), 아직 국내연구는 개별적인 학대피해의 고유한 영향과 더불어 중복적인 발생으로 인한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의 중복경험연구는 다양한 학대 형태들 간의 중복경험(McGee, Wolfe, & Wilson, 1997; Kitzmann et al., 2003에서 재인용)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신체학대와 방임에 관한 연구(김재엽·최권호, 2012),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중복적인 경험에 관한 연구(Trickett et al., 2011)들이다. 이와 같은 형태들의 중복경험도 아동의 발달을 위협하는 문제로서 중요한 연구이지만, 현장에서 실천가들이 느끼고 있는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목격만 하는 아동은 개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¹⁾, 가족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현장을 목격한 아동에게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연구가 축적되어 그들

1)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기 자녀들은 개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보호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동반한 자녀는 피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쉼터에 자녀를 동반하지 못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방지법 제2조 5호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문영희, 2010, p.91)

의 삶의 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가정폭력의 목격경험이 아동기 자녀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Leavitt et al., 1998; Hamilton-Giachritsis & Browne, 2005; Sydsjo et al., 2007; Tower, 2010; 박명숙, 2011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간접적인 가정폭력경험을 피해로 규정하고 싶어도 그를 뒷받침할 실증적인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 간접경험을 포괄한 중복학대경험을 연구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법의 현실화와 중복적으로 재발하는 범죄피해 예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과제이기도 하다(Farrell, 1992).

기존의 중복피해화에 대한 연구들은 크게 중복적인 범죄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초기의 피해화 경험이 후속적인 피해를 예측하는 선행요인이 된다는 종단적인 연구, 중복적인 피해화의 경험이 아동에게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횡단적인 연구들로 진행되어 왔다(노성호, 2010).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의 단일학대경험과 더불어 중복학대경험을 연구하게 되면, 기존의 학대경험에 대한 연구가 분석해내지 못했던 피해화의 프로파일을 보다 완벽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Finkelhor et al., 2007; Van Arsedale, 2010에서 재인용).

첫째, 아동발달에 미치는 가정폭력의 영향에서 각각의 개별적인 학대피해경험이 기여하는 부분을 과장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Finkelhor et al.(2007)은 단 하나의 학대피해경험만 고려한 연구는 고려하지 못한 다른 피해화와 연관된 부정적인 결과(association)를 파악해내지 못하여 실제 피해보다 측정된 피해값이 과대추정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다른 유형의 학대경험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른 학대피해경험의 기여분이 연구자가 보려고 하는 학대경험의 기여분 안에 포함되어 과장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까지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김정란, 2003; 조성상·이서원, 2006; 김재엽·송아영·박경나, 2008; 박은하·권세원, 2010; 최혜정, 2012)들은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화를 통합적으로 다루지 못하여 그 결과값들을 신뢰하기 어렵다.

둘째, 피해화 유형들 사이의 내적인 연관성과 아동발달에 대한 이들의 내적인 연관성의 기여를 파악해내지 못했었다. 여러 피해화 경험은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중복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인해 아동발달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검증해낼 수 없었다. 주로 심리정서적인 내재화문제에서 그러한 중복피해화의 영향을 파악해냈는데, Van Arsedale(2010)는 트라우마 징후들에서 누적된 효과가 있음을 검증했으며, Finke

lhor et al.(2007)은 중복피해자의 80%가 임상적 수준의 불안과 우울증상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국내에서 보고된 연구들(김재엽 외, 2008; 김재엽 외, 2010; 김재엽·최권호, 2012)은 중복적인 학대피해를 단일한 학대피해와 동시에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밀하게 설계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폭력의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스트레스에 대해서 남녀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대처하며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Smith et al., 1977; McGettigan-Savaresw & Mary, 2001; 조미숙, 2012에서 재인용).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심리적으로 취약하다거나(Rutter, 1979;조미숙, 2012에서 재인용), 남녀 간에 어떠한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Jouliles et al., 1987; 조미숙, 2012에서 재인용), 남자아동은 적응문제가 발견되었지만 여자아동에게서는 연관되지 않았다(Herrera & McCloskey, 2001; 노충래·이신옥, 2003에서 재인용)고 보고되고 있다. 즉, 이러한 불일치된 결과들은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를 시사하며, 있다면 어떤 차이가 발견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발달상의 성별차이에 대한 발견은 향후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에 실증적인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중복학대집단은 단일학대집단보다 아동발달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는가?

[연구문제3]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중복피해화 모델

Poly-victimization 모델은 아동학대, 학교폭력, 지역사회 폭력 등 범죄피해에 다중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심각한 트라우마 징후를 나타냄을 설명한다(Finkelhor et al., 2007). 이 모델은 다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poly-victims)을 다른 아동과 분리해내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Finkelhor et al., 2005), 다중적인 피해경험과 다른 단일한 피해경험을 비교하여, 다중적인 피해가 아동의 트라우마 징후(분노, 우울, 불안)를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혀냈다(Finkelhor et al., 2005; 2007; 2009).

Finkelhor et al.(2005)은 아동피해설문지(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JVQ)을 가지고 Poly-victims를 확인했는데, 34개의 피해화유형³⁾ 가운데 평균(3개)보다 높은 4개 이상의 피해를 당한 아동을 Poly-victims라고 명명하고, 그들이 다른 아동들보다 더 심각한 트라우마 징후를 나타냄을 검증하였다. 또한, 12개의 축약한 피해화 유형으로도 검증하였는데, 마찬가지로 Poly-victims에게서 나타나는 심각한 트라우마 징후에서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JVQ의 34개의 피해유형에는 관습적인 범죄(conventional crime), 아동학대(maltreatment), 또래와 형제에 의한 피해화(victimization by peers and siblings), 성적 피해화(sexual victimization), 목격과 간접적인 피해화(witnessing and indirect victimization)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Finkelhor et al., 2005). Turner et al.(2010)은 JVQ에 3가지 유형⁴⁾을 추가하여 검증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Poly-victims를 표본의 피해화수준이 높은 상위 10%로 범주화하였고, 그렇게 한 결과 11개 이상의 피해유형을 경험한 아동을 Poly-victims로 조작화하였다.

Poly-victimization 연구에서 흔히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들을

3)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부록3. JVQ 참조

4) 추가한 항목은 가정폭력 목격(witnessing family violence)과 인터넷 피해(Internet Victimization), 그리고 같은 유형의 반복된 피해(repeat victimizations of the same type)이다

Poly-victims로 조작화했는데, 10%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일반적으로 피해유형 빈도 분포들은 심하게 편포되어 있고 대개 상위 10%에서 경계점이 생기기 때문이다(Finkelhor et al., 2009a). 초기에 Finkelhor et al.(2005)이 평균을 초과하는 피해경험 개수로 Poly-victims를 조작했지만, 그 후의 연구들은 피해경험이 많은 상위 10%의 아동집단을 Poly-victims로 조작화하여 분석해왔다(Finkelhor et al., 2009a; 2007). 또한, Poly-victims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피해경험의 개수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동의 연령대를 분류하고 각 연령대 집단에서 상위 10%를 Poly-victims로 규정하여⁵⁾ 사용하기도 했다(Finkelhor et al., 2009a). 피해화유형을 사정한 JVQ는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피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심각한 학대라고 생각하는 유형에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피해유형 개수가 아닌 중복피해 점수로 조작화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Finkelhor et al., 2009a). 즉, 이러한 다양한 Poly-victims에 대한 조작화 개념은 결국 특히나 피해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아동을 분리해내는 작업의 일환이며, 지금까지의 피해 분포들을 분석했을 때, 대체로 상위 10%정도를 Poly-victims로 규정해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amby et al.,(2010)은 많은 수의 아동들이 다양한 형태의 피해화를 경험한다는 것을 미국의 NatSCEV⁶⁾의 data로 검증하면서 중복피해화 모델을 지지하였다. 이 연구는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동시에 부모간 학대를 목격한 피해와 다른 피해유형들의 중복발생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이들의 관련성은 매우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폭력을 문제해결방식으로 사용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은 부부간 폭력이나 형제자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목격하거나,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동은 폭력피해에 다중적으로 노출된다(Hamby et al., 2010). 이런 중복적인 가정폭력 경험은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심리사회문제, 정서행동문제, 학교적응문제 등, 아동발달의 전 영역에서 심각한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5; 2007; 2009; Hamby et al., 2010; 정익중, 2008).

이러한 발달손상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방해하고,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게 된다(Finkelhor et al., 2007; Richmond et al., 2009; 장희숙, 2010).중복적으로 피해화되는 아동은 짜증을 잘 내고(annoying),

5) 예를 들어, 3-6살: 9점이상, 7-10살: 피해경험 10점이상, 11-14살:12점이상, 15-18살: 15점이상을 Poly-victims로 규정하였다(Finkelhor et al., 2009a).

6)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부록2. NatSCEV 참조

좌절하기 쉽고(frustrating), 분열적이고(disruptive), 수동적(passive)이고, 정서 조절능력이 부족하고, 공격적이고, 논쟁적이며, 낮은 자아개념을 가지고, 우울·불안·위축의 문제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odges & Perry, 1999; Finkelhor et al.,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가족 내에서 부모에게 보다 학대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Bernstein & Watson, 1997; Finkelhor et al., 2009에서 재인용), 피해자같은 속성 때문에 다른 피해화에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Shields & Cicchetti, 2001; Finkelhor et al., 2009에서 재인용).

아동의 심리적인 내재화 문제에 대해서, Finkelhor et al.(2007)에 따르면 중복적인 피해경험은 아동의 우울, 불안, 분노,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Chan(2011)은 중복적인 피해화가 아동의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낮추고 화(anger)를 높인다고 하였다. Holt et al.(2007)은 중복적인 피해화에 노출된 아동들의 심리적 디스트레스, 자살사고, 학업성취도, 집단괴롭힘 피해(bullying victim)를 측정하였는데, 일반집단과 차별적으로 상당히 높은 결과를 나타냄을 보고했다. 또한, 아동의 외현화문제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폭력피해를 당한 아동이 비행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Edleson et al., 2007; Finkelhor et al., 2007; Finkelhor et al., 2011; Hamby et al., 2010).

이러한 중복피해의 심리사회적인 발달손상은 아동에게 “victim schema”을 심어주고(Tseloni & Pease, 2004; 노성호, 2010에서 재인용), 피해를 당하기 쉬운 취약성(vulnerability)을 키울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9). 즉, 가정에서 폭력피해에 중복적으로 노출된 아동은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Appel & Holden, 1998; Jouriles, McDonald, Slep, Heyman, & Garrido, 2008; Hamby et al., 2010에서 재인용).

Shields & Cicchetti(2001)는 학대경험으로 인한 내재화된 문제들이 사회적인 정보들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하고, 정서조절의 어려움 등, 심리정서상의 문제들이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방해한다고 밝히고 있다(Finkelhor et al., 2009). 즉, 가정에서 중복적인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즉, 사고하는 능력인 인지언어발달의 영역에서 손상이 있을 수 있고(Delancy-Black et al., 2002; Karestan et al., 2003에서 재인용), 대인관계에서 대처하는 사회적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중복적인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심리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부적응은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며(이호택, 2012), 또래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심리사회적으로 손상을 입은 아동은 또래집단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배제되며 공격적인 행동에 보다 많이 연관되고(Perry, Hodges, & Egan, 2001), 또래폭력에 잠재적인 표적(Olweus, 1993)이 될 가능성이 높다(변귀연, 2002).

Polyvictimization model을 검증해온 연구들을 살펴보면, Holt et al.(2007)은 중복적인 피해가 초등학생 아동의 심리학적 스트레스에 보다 많이 연관되는지, 또한 학업적 수행능력에서 더 낮은지 검증하였다. 중복적인 피해를 경험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분류하여 검증한 결과, 보다 심각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중복피해경험에 대한 발견은 아동의 일반적인 피해경험과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연구의 뒤를 이어, Finkelhor et al.(2009)는 중복피해화로 이어지는 4가지 경로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위험한 지역사회, 위험한 가족, 무질서하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가족 환경, 위험한 행동을 증가시키는 정서적인 문제들로 나누어 탐색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중복적인 피해화에 관련된 환경요인으로는 역기능적인 가족역동(Perry et al., 2001)과 위험한 지역사회(Sampson & Raudenbush, 1997)가 보고된다(Finkelhor et al., 2009). 폭력을 사용하는 부부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아동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방임된 아동은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적절한 위치를 찾는 데 실패하여, 위험한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고 피해화를 경험할 확률이 높아진다(Finkelhor et al., 2009). 또한,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사는 부모는 위험한 거주환경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아동을 보다 강압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게다가 사회적인 연대성이 부족한 지역사회는 폭력의 사용에 대해 보다 관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아동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진다(Finkelhor et al., 2009).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아동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다중적으로 피해화되는 것이다.

범죄학자들이 피해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피해자에게 범죄사건이 심하게 편중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Gottfredson, 1984; Farrell, 1992에

서 재인용), 중복적으로 피해사건에 노출되는 피해자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Nelson, 1980; Sparks, 1981; Hotaling et al., 1989) Polyvictimization 연구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상습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연구들에서 발전되어 오던 중복피해에 대한 연구는 Genn(1988)의 연구에서 가정폭력의 중복피해에 주목하게 된다(Farrell, 1992). 가정폭력의 반복된 피해에 노출된 가족구성원은 매일 발생하는 학대피해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게 됨을 제시하며 가정폭력 중복피해의 심각성을 보고하였다(Genn, 1988; Sparks et al., 1977; Farrell, 1992에서 재인용). 이후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폭력피해에 대한 연구들이 급증하였고(Stanko, 1988, 1990; Smith, 1989; Sherman et al., 1989; Trickett et al., 1991; Farrell, 1992에서 재인용). 특히 여러 유형의 피해에 노출되어 심각한 트라우마 징후들을 보이는 아동들(poly-victims)에 대한 Poly-victimization 연구들로 수렴되었다(Finkelhor et al., 2005).

이러한 피해자학(victimology) 연구에서 시작된 Polyvictimization 연구는 중복피해를 경험하는 피해자의 특성은 무엇인지(Bernstein & Watson, 1997; Finkelhor et al., 2009에서 재인용), 중복적인 피해화에 노출되는 경로는 어떠한지(Finkelhor et al., 2007)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poly-victimization은 multiple victimization, repeated victimization, re-victimization 등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Turner et al., 2010; Osborn et al., 1996), Finkelhor et al.,(2005)에서 다양한 피해화를 경험한 아동을 poly-victims로 명명하면서 이후 연구들에서 polyvictimiz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Ford et al., 2011).

중복피해화 모델은 아동이 한번 피해화를 경험하면 후속적으로 피해에 노출되기 쉽고, 중복피해로 인해 더 심각한 발달손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연구의 한 흐름이다. 한번 발생한 피해경험은 단순히 한번의 사건(even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해경험의 조건(condition)이 될 수 있다(Finkelhor et al., 2007). 이게 사실이라면 아동의 가정폭력경험은 다른 체계에서의 폭력노출의 선행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다른 체계의 폭력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Farrel,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영역에 초점을 두고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중복피해화 모델은 검증이 진행되고 있어(Finkelhor et al., 2005, 2007,

2009; Slep & O' Leary, 2001), 사회학습이론과 트라우마이론으로 보완하여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2.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연구에서 제시된 가장 널리 쓰이는 행동적 관점의 이론인데, 이것은 피학대경험 이후의 아동의 공격적인 반응을 잘 설명해준다 (Swanger & Petcoschy, 2003; Mihalic & Elliott, 1997; Renner, 2005에서 재인용). 이 이론은 직·간접적인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과 그 아동의 이후의 공격적 행동사용에 대한 연관성을 강하게 지지하며 아동이 가정에서 학습한 공격성을 표출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공격성의 표출에는 생물학적인 영향요인, 관찰학습, 강화된 수행,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소로서 작용한다(Bandura, 1979; Renner, 2005에서 재인용).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학습하고 반복하도록 한다.

생물학적인 요소들이란 활동이 가능한 수준, 근육상태, 신체적인 상태(Dutton, 1988; Renner, 2005에서 재인용)를 말하며, 공격적인 반응으로 발달할 수 있는 한계(limits)를 설명한다. 즉,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따라하고 싶어도 근육량이나 공격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신체상태가 뒷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행동으로 옮기기 어렵다. 예를 들면, 덩치가 큰 부모에 대항하여 어린 자녀가 폭력을 행사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열세에 있는 것이다.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받은 강화과정을 보았을 때 일어나는 데, 이 과정을 대리적인 보상 혹은 대리적인 경험이라고 부른다(Bandura, 1972, 1986, 1997; Baranowski et al., 2002; Renner, 2005에서 재인용). 학습자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고 받게 되는 피드백(강화 혹은 처벌)을 관찰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직접 거치지 않고도 어떤 상황이 갖춰지면 바로 관찰한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Baranowski et al., 2002; Renner, 2005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아동들이 부모가 폭력을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부모가 보상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 것을 관찰하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고 학습하게 되어 목격만으로도 폭력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아동이 공격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경험했다면, 공격적인

행동은 더 강화될 것이다(Renner, 2005). 예를 들면, 폭력적인 가정에서 사는 아동은 어느 한쪽 부모와 동맹하여 공격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자신에게 예상되는 폭력을 피할 수 있는데(Tower, 1993; Renner, 2005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정은 부적 강화로서, 아동이 폭력적인 부모에게 충성하면서 폭력적인 행동과 공격성을 학습하고 수행할 가능성은 높아진다. 혹은 부모의 형제자매학대에 동참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로 아동에게 보상(물)이 제공된다면, 더 이상 아동은 형제자매의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공감능력을 제거하려는 대처과정을 발달시킨다(Hollingsworth et al., 2007). 따라서 학대를 직접적으로 당한 아동은 공격적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느끼게 되어 폭력행위에 강화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학대행위를 목격만 한, 즉 간접적으로만 경험한 아동은 폭력행위에 보다 강화되어 반복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Renner, 2005).

사회학습이론은 고전적 조작화의 행동주의 이론과는 다르게 인지적 과정을 강조하는데, Bandura(1986)는 인간의 행동이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내적 측면인 자기조절의 과정에서 결정되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본다(강상경, 2011). 이러한 내적 인지과정은 주의과정, 보존과정, 운동적 재생과정, 동기화과정을 거친다. 주의과정은 아동이 폭력적인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주의깊게 파악하고 저장하는 과정이며, 보존과정은 그러한 폭력에 관련된 정보들을 심상이나 언어로 기억해 보존하는 과정이다. 또한 운동적 재생과정은 상징적으로 내적표상이 된 폭력에 대한 심상이나 언어를 행위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동기화 과정은 관찰의 결과를 실제로 폭력을 행사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강상경, 2011). 즉,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고, 그 심상이 기억 속에 뿌리 깊게 보존되었다가, 학교나 다른 장소에서 비슷한 상황이 동기화되면 폭력적인 행동을 재현하는 것이다.

상대를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자주 휘두르는 성인과 강하게 동일시하는 아동은 더 공격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Renner, 2005).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보이는 폭력행동은 아동에게 모델링되고 아동은 이러한 행동을 모방할 뿐 아니라 대인관계에서의 일반적인 행동양식으로 받아들인다(Emde & Easterbrooks, 1985; 임정하·윤정진, 2010에서 재인용). 학대하는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은 폭력을 학습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일반 가정의 아동보다 더 높게 된다(조미숙, 1999).

이러한 모델링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Bandura, 1977). 친숙한 성역할을 수행하는 같은 성(same sex)모델일 때 모델링의 효과는 훨씬 더 크다. 폭력적인 아버지는 남아에게 보다 부적절한 행동모델로 작용한다. 즉, 남아와 여

아는 특정한 성의 행동(sex-specific behaviors)으로 사회화되기 때문에, 부모간의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O' Keefe, 1998; 조미숙, 2012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아들이 학대하는 아버지를 동일시하면 자신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딸이 학대당하는 어머니와 동일시하게 되면 성인이 되어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보다 쉽게 용인하여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게 된다(Renner, 2005).

즉, 아동은 폭력을 사용하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폭력행동을 관찰하거나 경험하면서 모방하여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Pfouts, Schopler, and Henley, 1982; Renner, 2005에서 재인용).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제공하는 아동의 공격성에 대한 관찰과 학습, 재현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공격성 노출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3. 트라우마 이론

트라우마 이론은 아동이 외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부정적인 적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반복적인 외상경험이 아동의 정상적인 성격형성과정을 방해한다고 가정하며(Herman, 1997; Renner, 2005에서 재인용), 가족들에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심리정서발달적 손상을 입을 수 있음을 설명한다(Briere, 1992; Renner, 2005에서 재인용). 가족들의 학대는 굴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며 정상적인 양육과 보호의 행동을 방해한다.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은 공포감, 무기력감(혹은 수동성)을 느끼며, 가족구성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되려는 회피반응을 발달시킬 수 있다(최현정 & Herman, 2007). 종종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스스로가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학대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고, 자기비하감(self-blame), 소심함, 낮은 자아효능감을 갖게 된다(Renner, 2005). 학대에 대한 이러한 내재화된 문제는 정상적인 사회정보처리과정을 방해하여 인지·정서적인 발달을 방해하게 된다(장연집, 2010).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이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DSM-IV, 1994; 유재학 외, 2009에서 재인용).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은 아동의 가족환경, 양육특성, 학교환경, 또래관계 등에서 경험하게 되며,

불쾌한 감정들인 작은 심리적 외상에서부터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큰 심리적 외상까지 다양하다(장연집, 2010). 또한, 아동기 외상이란 외부사건에 의해 촉발되어 아동 내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생물학적·심리적인 변화 과정의 결과로 정의되기도 한다(한성희, 2002). 즉, 아동이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면 공포,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사소한 언어폭력일지라도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외상적일 수 있으며, 신경화학적(neurobiological)인 변화가 수반되어 아동의 정신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아동기 외상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간과되기 쉬운데, 방치하면 다른 심각한 정신 질환의 선행인자로 기능하며, 품행장애, 경계성 인격장애, 주요우울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장애 및 적응장애, 다중인격 등 다양한 정신과적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DSM-IV, 1994; 한성희, 2002).

Allen(1995)은 심리적 외상을 일회적 외상 대 반복적 외상, 자연적 외상 대 인위적 외상으로 나누고,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는 인위적 외상으로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준다고 하였다(유재학 외, 2009). 아동학대는 아동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반복적이고 인위적인 외상으로 낮은 자존감, 정체성의 문제, 대처능력결함, 우울증, 공격성, 성격형성, 사회기능, 대인관계문제, 자살 충동 등에 영향을 미친다(Briere & Runtz, 1988; Browne & Finkelhor, 1986; Carmen et al., 1984; Farber & Joseph, 1985; Haskett & Kistner, 1991; Fox & Gilbert, 1994; 유재학 외., 2009에서 재인용).

장연집(2010)은 아동의 심리적 외상사건과 그 산물은 성인의 기준에 비교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부모가 이혼한 사건으로 인한 외상은 목숨을 위협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없지만, 아동들에게는 심리적 외상사건으로 누적되어 성인기에 표출될 수 있다. 아동이 정서적 바탕을 뒤흔드는 심리적 외상에 노출되면 아동의 뇌는 정보처리능력에 손상을 받아 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게 된다(장연집, 2009; 장연집, 2010에서 재인용). 만약, 아동이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족에 의해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면, 또한 그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만 한다면, 아동의 심리적인 외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성인들에 비해 아동은 심리적 외상에 대한 대처기술이 부족하고, 상처받기 쉬운데,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보다는 순응해버릴 수 있다. 뇌신경계 발달상 아동기 외상으로 인해 반복적인 해리반응, 과각성 반응 등이 나타나는데, 신경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문제들에 적응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장연집, 2010). 또한 기억의 측면에서 아동은 외현적 기억과 암묵적 기억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며, 두뇌의 해마와 편도체 기관에서 인지뇌와 감

정뇌가 자연스럽게 기능할 수 없게 된다(장연집, 2010).

본 연구는 이러한 트라우마 이론들이 제시하는 아동의 심리적 외상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정폭력의 노출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문헌검토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아동발달과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발달

인간발달의 영역은 인지·언어발달,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의사소통능력 발달, 도덕성 발달, 신체 및 운동발달 등으로 분류된다. 발달의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며 상호작용하며 통합적으로 발달한다(Newcombe, 1996; Zastrow & Kirst-Achman, 2004; 이봉주·김선숙·김남희, 2010에서 재인용). 인간은 생애 기간 동안 각 시기에 맞는 발달단계가 있으며, 각 시기에 수행해야 할 발달과업(development tasks)이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된다.

발달에 따른 단계별 과업은 예측가능한 일정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전 단계의 과업을 수행했을 경우에 다음 단계의 과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기초적 바탕이 된다. 때때로 아동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지체될 수도 있지만 성장의 가속화 현상인 따라잡기 성장(Catch-up growth)이 가능하다(배옥현·이영석, 2012). 그러나 손상기간이 길면 충분한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며 영구적인 성장지체를 일으킬 수 있다(장희숙, 2010).

Achenbach 와 Edelbrock(1991)은 아동기의 문제를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그리고 사회적 능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조미숙, 2012). 외현화 문제는 비행행동, 공격행동처럼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싸움을 하는 등의 과소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 내재화 문제는 위축(withdrawn), 신체증상(somatic complaints), 사고의 문제(thought problems), 주의집중 문제(attention problems) 등이며, 사회적으로 소극적이고 과잉통제된 행동을 의미한다. 사회적 능력은 친구나 또래와 어울리는 정도,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사회성(social competence), 교과목 수행정도나 학업수행상의 문제여부를 살펴보는 학업수행(school performance), 그리고 청소년이 가입한 집단에서의 활동을 살펴보는 사회활동(school activities)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아동의 심리사회발달 영역과 학교적응의 영역

으로 나누어 가정폭력의 영향을 유형별로 파악해 보려고 한다.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학교적응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분류는 아동발달 영역을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심리사회발달

아동기 심리사회적인 문제는 성인기의 우울증, 알콜중독, 반사회성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혜영, 1999). 즉, 아동기의 부적응 문제들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심각한 장애로 진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아동발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야 한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초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을 분석할 때, 대체로 외현화 및 내재화문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박원주, 2011),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구조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① 외현화문제

아동의 외현화문제(externalizing)는 자신의 갈등이나 고통을 통제하는 것에 실패하여(undercontrolled)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으로 외부로 표출되어 나타난다(Achenbach & Edelbrock, 1991; 조미숙,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공격성은 폭력, 파괴적 행동, 충동적 행동을 포함하며 분노, 적의, 증오, 불만 및 원한 등으로 표출되며,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동, 혹은 공포감을 일으키는 행동으로 나타난다(이아영, 2011; 정익중·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부모는 아동의 역할모델로서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관찰학습하고 모방하므로 부모의 공격성은 아동의 공격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Larsen & Dehle, 2007; 정익중·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만약 부모의 공격성이 아동에게 표출된다면, 학대라는 행위를 통해 자녀의 공격성을 유발할 수 있다(정익중, 2008).

또한,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학교 내 또래관계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이 가정의 환경적 요소로부터 학교 환경요인에 더 영향을 받게 되면서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커지게 된다. 대체로 공격적인 아동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하고 학업성취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McCarty et al., 2008; 정익중·

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외현화된 공격성을 드러내는 아동이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향후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Losel & Bender, 2011; 정익중 · 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따라서 가정폭력의 경험유형이 아동의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② 내재화문제

아동의 내재화문제(Internalizing)는 자신의 내적인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과하게 통제하게 되어(overcontrolled), 불안 · 우울 · 위축, 신체화증상, 정신과적 증상 등으로 나타난다(Achenbach & Edelbrock, 1991; 조미숙, 2012에서 재인용).

아동의 내재화문제를 대표하는 증상은 바로 우울이다.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문제이며 성인의 우울증과 다른 아동의 우울은 감추어져(masked depression) 있어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Chiles et al., 1980; 정익중 · 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아동기 우울과 관련된 환경요인에는 부모와 친구가 있다.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우울은 전 생애에 걸쳐 다양한 부적응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배화옥, 2010). 또래관계 역시 사회적 관계의 축으로서 대인관계에 필요한 의사소통기술과 갈등해결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우울은 이러한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이정숙 외, 2007; Ross et al., 2010; Nakemoto & Schwartz, 2011; 노언경 · 홍세희, 2010; 김혜원, 2011; 정익중 · 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문제해결 능력이 우울로 인해 손상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인지나 정서를 갖게 되고 학업적 수행결과도 낮은 것으로 보고된다(Barchia & Bussey, 2010; 정익중 · 이지언, 2012에서 재인용).

아동기의 우울 ·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는 이후 성인기의 우울과 정신건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후속적인 발달 손상에서 남자는 학력성취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고, 여자는 성인기에 정신적인 문제를 더 호소할 수 있다고 보고된다((Dekker et al., 2007; 박원주, 2011에서 재인용). 따라서 내재화문제에 가정폭력의 경험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고찰해 보려고 한다.

2) 학교적응

본 연구에서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수업,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욕

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가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최보람, 2008). 아동이 가정과 더불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회는 학교이다. 따라서 학교에서의 적응은 아동의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동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차원에서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의 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옮겨지게 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지 여부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최보람, 2008), 학교생활에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는 아동발달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정현희·이경아, 1999).

이런 의미에서 학교부적응은 학생의 기능과 환경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Bierman, 1994; 최보람, 2008에서 재인용). 즉, 아동이 학교환경과 균형을 이루려는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학교생활에 대한 개인의 만족도나 아동의 학업수행결과, 또래관계의 질은 높을 수 없다.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업적 적응, 사회정서 및 행동적 적응으로 나누어지는데, 부적응 결과는 학업성취, 학교참여, 학교출석, 학습준비, 교우관계 등에서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난다(최보람, 2008).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의 학교적응 발달영역을 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취도,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으로 나누고, 아동의 발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학교생활만족도

아동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적절한 성취동기 지향,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수행, 또래집단과의 원만한 관계형성은 발달단계상 중요한 과제들이다(Linch & Cicchetti, 1997; 최보람, 2008에서 재인용).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욕구를 학교환경에 바람직하게 관철시키게 되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생기게 되어 또래관계가 원만해지고, 학업성적이 향상될 수 있고, 바람직한 행동특성이 형성될 수 있다(최보람, 2008).

아동의 학교생활은 학업성취라는 목적을 가진 교사 및 또래와의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사회적인 영역이다(박미경·문혁준, 2009). 학교생활은 또래친구와의 대인관계, 시험 및 과제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를 경험할 소지가 많고, 가족외의 사람들과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으며, 아동의 성격형성에 영향

을 미치는 영역으로서(최은영, 1999; 박미경·문혁준, 2009에서 재인용), 학교생활에 대한 아동의 만족감은 중요한 발달과업일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높은 만족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규정을 어기는 문제행동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학교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의 규정을 어기는 행동을 예방한다(Hawkins et al., 1999).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급을 잘 운영하는 훈련된 교사는 학생을 사회적으로 잘 상호작용할 수 있게 향상시키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갖게 한다(김옥선 외, 2006).

또한, 높은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동 발달에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동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다. 학교생활만족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교환경, 수업, 교사 및 교우관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분석되어 왔다(박미경·문혁준, 2009). 본 연구는 학교생활만족도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학교환경, 수업, 교사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만족으로 정의하고(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아동의 발달영역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②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학력과 학업성적이 있다. 학력이란 것은 학습가능 능력을 추상적으로 총량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학업성적이나 학업성취도는 학습결과를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단에 의해 측정한 뒤에 나오는 구체화되고 조작화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김성분, 1991). 학업성취도는 각 교과목의 이해도와 교육목표의 포괄적인 달성도를 의미하며, 학교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기능,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 학교에서 학습한 결과를 통틀어서 지칭한다(최보람, 2008). 따라서 학습자의 학업성취도는 인지적, 정의적, 심리·정서적 발달을 포함한 광의의 영역에서 이해될 수 있다(유효현, 2006).

학업성취도는 환경적인 요인, 학습자와 관련된 요인, 수업에 관련된 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이성진·정범모, 1995).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교육풍토, 문화, 가정환경, 학습의 사회적 환경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학습자와 관련된 영향요인에는 선행학습 및 일반적인 학습능력, 정의적 특성, 학습방법 등이 있다. 또한 수업체제, 학습진단 구성, 교사의 행동 등의 수업에 관련된 요인들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학업성취에 학교

의 물리적 환경 자체가 미치는 영향력보다, 가정의 특성이나 또래집단이 주는 영향들이 학업성취도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Coleman, 1998; 장덕진, 2000에서 재인용).

결국, 학업성취의 개념은 학교에서의 학습결과로 귀결되며, 이러한 학습결과를 평소 학습자 스스로 지각하고 인식하고 있는 학습에 도달한 정도를 학업성취도라고 볼 수 있다(박영신·김이철, 2000).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 스스로 보고한 학교시험의 결과인 학교성적을 전과목 평균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인식을 학업성취도로 정의한다.

학업성취도는 아동의 중요한 사회적인 성공의 지표로 여겨질 수 있다. 학업성취 실패는 외현화문제로 인한 학교적응 실패, 내재화문제로 인한 학습능력 저하, 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으며(이호택, 2012), 아동기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심한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기의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동의 인지능력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고, 낮은 IQ, 언어능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Karestan et al., 2003). 따라서, 학업성적에 대한 아동의 인식은 아동발달의 한 영역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아동의 발달 상태를 살펴보는 중요한 지표이기에 탐색해 보고자 한다.

③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집단괴롭힘이란 개인 또는 집단이 자기보다 힘이 약한 특정인에게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을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가함으로써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된다(변귀연, 2002). 집단괴롭힘의 현상은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적인 특성과 연관되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성장기에서 경험한 애착관계, 자존감, 신체적 특성, 공격성 등의 차이가 괴롭힘현상의 이면에 존재한다(변귀연, 2002).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역기능적인 가족환경과 부적응적인 학교생활, 낮은 학업수행능력으로 인해 더 심각해 질 수 있고 집단괴롭힘 현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변귀연, 2002).

집단괴롭힘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이러한 괴롭힘을 관찰하는 방관자가 관계되는 세력간의 연합결과로 볼 수 있다(Rigby, 1996;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다자적 구도에서 집단괴롭힘이 발생하는 과정은 아동의 심리사회적인 요인, 또래집단내의 역동, 집단괴롭힘을 조장하는 환경의 영향으로 설명되기도 한다(변귀연, 2002; 이봉민, 2012).

집단괴롭힘의 피해자는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보다 외롭고 불안하고 불행한 불안정한 느낌을 가진다(Hodeg & 1978, 1996; Olweus, 1978, 1994;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피해자들이 또래집단에 의해 거부되는 경험은 자기인식에 관한 문제들을 악화시키고(Graham & Junoven, 1998;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또래로부터의 거절을 당연시 여기며 괴롭힘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방해할 수 있고, 낮은 자아존중감, 자책감, 우울감, 불안감 등 불안정한 정서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신체화증상, 해리증상 등의 정신과적 문제들로 발전될 수도 있다(Ekman, 1992; 진혜경, 1998;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문제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손상과 자아기능의 장애는 아동의 발달과정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Campell, 1996;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또한, 집단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대해 두려워하고 불안해 할 수 있는데, 학교 내 특성장소의 회피, 가출, 자살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이상균, 1998;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이러한 집단괴롭힘의 경험은 학업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키고, 학교에 대한 호감도를 떨어뜨려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Kochenderfer & Ladd, 1996;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낮아진 학업수행능력으로 인해 학업성적 저하는 또래들 사이에서 다시 표적이 되어 지속적으로 집단괴롭힘을 당하게 될 수 있다(Olweus, 1993;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집단괴롭힘의 현상은 우정의 역학관계로도 살펴볼 수 있다(Bukowski et al., 1995; Malone & Perry, 1995; Hartup, 1992;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예를 들어, 친구들이 많을수록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우정이 위협요인을 가진 아동을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변귀연, 2002). 공격을 가하는 아동은 피해자를 괴롭힐 때 피해자 친구들의 보복을 두려워하게 되고, 친구들과 상호작용이 많은 아동은 혼자 있는 경우가 별로 없어 표적으로 눈에 띄기 어렵다. 또한 친구가 많은 아동은 갈등과 피해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친구들의 충고와 조언을 더 많이 얻게 되어 유익한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다(변귀연, 2002).

또한, 집단괴롭힘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방관적 태도, 피해아동의 낮은 협력성이 또래친구들로부터 공격을 불러올 가능성을 높게 한다(Rigby, Cox, & Black, 1997;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집단괴롭힘에 대한 조사에서 아동의 연령이 증

가할수록 피해아동에 대한 동정심은 감소하게 되고,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더 동정적이라고 보고되었다(Rigby & Slee, 1993;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또한, 여학생과 남학생의 공격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여학생들은 ‘관계내의 공격성 (relational aggression)’ 이 주로 경험하는데, 이는 친구들간의 관계를 조정하여 서로를 혐오하게 함으로써 해를 입히는 공격행위를 의미한다(Marano, 1995;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남학생들은 여학생들보다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사용하는데, 차기, 때리기, 밀기, 밀치기와 같은 ‘신체적인 공격행위’ 와 별명부르기, 놀리기와 같은 ‘언어적 공격행위’ 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Olweus, 1995;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또한, 또래집단의 집단괴롭힘의 행동경향성과 집단의 감정이 관련되어 있는데, 집단괴롭힘에 동조하는 아동은 자긍심(pride), 가해자집단과 거리를 두는 아동은 수치심(shame),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아동은 죄책감(guilty), 가해자집단에 반대하는 아동은 분노감(anger)에 연관된다고 보고되고 있다(Johnes et al., 2009;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경쟁위주의 학교생활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들이 겪고 있는 좌절감을 표출하기 위한 공동의 희생양으로서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괴롭힌다. 가정과 사회에서 인지하고 습득한 아동의 행동양식과 감정상태가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집단괴롭힘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로 기능하게 한다(변귀연, 2002). 가정과 학교가 이러한 현상을 미처 발견해내지 못하면 아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Rigby, 1994;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따라서 아동 발달의 산물을 탐색하는 한 영역으로 집단괴롭힘 현상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 모두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과 아동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서, 가족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Straus et al., 1996). 폭력에 직접 연루된 사람들의 가족 내 지위에 따라 부부간폭력, 형제자매간 폭력, 자녀학대, 부모학대로 분류되는데, 본 연구는 발생빈도가 높은 부부간 폭력과 자녀학대의 유형을 중심으로(김정란, 2003) 아동기 자녀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학대유형은 보통 폭력의 형태에 따라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으로 분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게 보다 가시적인 폭력형태인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로 한정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폭력행위(action)의 차원에서 폭력이 물리적인 것인지, 언어적인 것인지에 따라 폭력의 형태를 규정해왔지만, 최근의 연구에서는 폭력행위로 인한 손상(harm)의 차원에서 폭력의 형태를 논하기 시작했다(sheehan, 2006). 즉 폭력행위 자체는 신체적일지라도 그 손상은 정서적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포괄하여 학대경험으로 정의한다.

아동이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은 직·간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표적이 되어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학대를 직접학대로, 간접적으로 폭력의 영향권 안에 들게 되는 부부폭력에 노출되는 경험, 형제자매학대를 목격하게 되는 경험을 간접학대로 정의하였다.

1) 단일학대경험

① 직접학대경험

본 연구는 부모에게 신체적으로 혹은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아동학대경험을 직접경험으로 정의한다. 신체적 아동학대는 아동을 때리고 밀고, 화상을 입히고 물건을 던지는 등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등을 포함한다(안재진 외, 2011).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의 특성으로는 부모 자신이 아동기 때 폭력경

험, 음주 혹은 약물남용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김정옥·장덕희, 1999), 부부 갈등이 많을수록,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에 의한 폭력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한경혜·김영희, 1999).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는 아동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신체 및 정서 학대는 아동의 공격성, 과잉활동성, 강박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이경주·신효식, 1998), 아동의 성격은 파괴적이고 반항적으로 될 수 있으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 도벽, 가출 등의 행동장애를 보일 수 있다(곽영숙·홍강의, 1987). 또한, 학대가 심할수록 공격성이 높으며 충동적이고, 분노와 적대감을 갖게 될 수도 있다(권자영, 1991),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은 일반아동보다 신체적이거나 언어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려는 공격욕구가 더 높아 다양한 외현화문제를 보이게 된다.

또한, 심리·정서적으로도 발달상 문제가 나타나는데, 학대당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소심하고, 우울하며, 사회적으로 위축된다(곽영숙·홍강의, 1987; 이경주·신효식, 1998). 또한 학대가 심할수록, 불행, 슬픔, 절망감을 느끼며,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정도가 높다(곽영숙·홍강의, 1987; 백혜정·황혜정, 2006).

직접적인 아동학대 경험이 많을수록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은 지연되고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이 저하되는 등 학교적응의 실패로 연결된다(배화옥, 2010). 학대당한 아동은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며 집중력의 저하로 학습수행능력이 떨어지게 된다(Karestan et al., 2003).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아동학대 직접경험은 이들의 학업성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이복희, 2007; 조춘범·조남홍, 2011; 이호택, 2012에서 재인용), 심층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② 간접학대경험

본 연구는 간접학대경험을 부부간의 폭력에 노출되거나 형제자매학대를 목격한 경험으로 정의한다⁷⁾. 부부폭력노출⁸⁾은 ‘부부간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살아

7) 국내외의 가정폭력 노출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부폭력 목격을 중심으로 다루어왔다(Renner, 2005; 조미숙, 1999). 그러나 아동학대 직접경험 못지않게 그 피해화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학대 목격의 영향이 최근 보고되기 시작했다(Leavitt et al., 1998; Hamilton-Giachritsis & Browne, 2005; Sydsjo et al., 2007; Tower, 2010; 박명숙, 2011에서 재인용). 이에 본 연구는 간접학대경

감'을 의미한다. 부부간 폭력이란 부부사이에 발생한 의도적인 신체 및 정서적인 폭력행위를 말한다(김재엽, 1998). 구체적인 행위로는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사정없이 때리는 행위, 물건으로 때리는 행위,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등이 있다(안재진 외, 2011). 부모가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동은 부모간에 발생한 폭력을 직접 목격하거나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듣거나, 싸움이 끝난 뒤의 흔적(상처, 깨진 물건들 등)을 보게 된다(김재엽 외, 2008). 아동이 직접적으로 폭력사건에 연루되지 않을지라도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목격하거나 엿듣게 된다(Ammerman et al., 1999).

아동의 형제자매가 부모에게 신체 및 정서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을 형제자매학대 목격이라 정의한다. 부모에게 자신의 형제자매가 신체 및 정서적으로 학대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경험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이 스트레스는 아동기의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Abigail & Jake, 2005; Amy & Barbara, 2010; Wareharm et al., 2007; 박명숙,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가해부모와의 관계, 피해부모와의 관계, 부모 역할의 부재 등으로 발달적인 맥락이 손상을 입게 될 수 있다(장희숙, 2010). 자기방어를 위해 가해부모와 동맹을 맺은 아동은 그로인해 혼란과 죄책감을 갖게 되고, 피해부모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폭력에 대한 공포심이 가해부모와 결탁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될 수 있다(최혜정, 2012). 부모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할 시기에, 부모간의 폭력으로 인해 역기능적인 가정환경에 노출되면, 아동은 부모를 안전한 신뢰의 대상으로 인식하기 어렵게 된다. 가해부모와 피해부모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힘이 들기 때문에, 아동의 욕구를 보살필 수 없다(장희숙, 2010).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동은 부모의 역할을 대행하게 되며 이것은 부모화문제, 부모와 병리적인 의존관계로 발전될 수 있다(김용태, 2000). 이런 맥락은 아동의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학업성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외현화문제를 드러낼 위험이 높다. 부부폭력에 노출되거나 형제자매학대를 목격해온 아동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또래

험으로 형제자매학대 목격 경험을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보고 분석에 포함한다.
8) 흔히 아내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실 가정폭력의 가해율은 부부 상호간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예정·김득성, 2006; Demaris, 1993; Kalmuss, 1984; 이호택, 2012에서 재인용)가 많이 보고되고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남편학대, 아내학대, 상호간의 폭력사용을 모두 포괄하는 부부간의 폭력으로 정의한다.

친구들에게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Markward, 1977; Wolfe & Jaffe, 1991; Renner, 2005에서 재인용; 조미숙, 1999),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타인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신체적 공격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서미경, 1997; 김형모·김영민, 2007에서 재인용).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은 왜곡된 인간관계 모델을 보면서 폭력지향적인 가치체계를 학습하며 이로 인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된다(김형모·김영민, 2007).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사는 아동은 심리정서적인 내재화 문제도 심각하다(조미숙, 1999). 외부로 드러낼 수 없는 가정 내의 폭력으로 인해 수치심을 갖을 수 있고, 이러한 감정은 자기 이미지와 자기 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Hughes, 1988; 장희숙, 2010에서 재인용). 또한, 본인의 잘못이나 결점으로 인해 부모가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죄책감을 느낄 수 있고(Jaffe et al., 1990; 장희숙, 2010에서 재인용), 자신에게 닥칠 학대상황으로 인해 불안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Wilson, 2004; Tower, 2010; 박명숙, 2011에서 재인용). 이에 아동은 방어기제로 도덕적 긴장에 대처하기 위해 공감능력은 제거하고 인지는 왜곡시킬 수 있다(Hollingsworth et al., 2007). 아동은 형제자매가 학대당하는 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는 한편, 형제자매들에 대한 대리적인 트라우마의 결과로서 정서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있다. 즉, 정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조차 회피하게 될 수 있다(Hollingsworth et al., 2007).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들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을 저해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하는 아동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장희숙, 2010).

또한, 이러한 문제들은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미숙, 1999). 부모간 폭력에 노출된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상대집단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며(Cummings & Davis, 1994; 장희숙,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회적 능력의 부족은 학교적응의 실패로 이어진다. 이호택(2012)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학업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는데, 그 이유로 부모와의 불안정한 유대를 지적한다. 아동은 학대하는 부모와 불안정한 유대를 맺게 되고(Hollingsworth et al., 2007), 이러한 영향은 아동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이호택, 2012). 또한 폭력목격경험과 학교폭력(bullying) 피해가능성 사이에 상관성이 매우 높음을 보고되고 있으며(Lepist et al., 2011), 목격경험이 학교적응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2) 중복학대경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부모체계와 자녀체계간의 중복적으로 발생하는 학대피해에 초점을 두고,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의 중복경험의 영향을 분석한다.

부부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아동학대를 당할 위험이 매우 높다(Daro et al., 2004; Edleson, 1999; Edelson et al., 2003; Slep & O' Leary, 2001; Finkelhor et al., 2011에서 재인용). 실제로 부부폭력 노출과 아동학대 직접경험의 중복경험에 대해 국내 연구자들이 보고하는 중복발생률은 24.9%(김재엽 외, 2010), 52.4%(김정란, 2003)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부모간에 폭력이 오고가는 가정에서 사는 아동이 또 다른 피해화에 중복되는 맥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부모가 배우자를 때릴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다(Edleson, 2000; 김형모 · 김영민, 2007에서 재인용). 둘째, 피해부모가 폭력피해경험에 대한 화풀이로 자녀들을 학대하거나(Edleson, 2000; 김형모 · 김영민, 2007에서 재인용), 아동의 잘못된 행동이 학대배우자의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한 노력에서 아동에게 학대적일 수도 있다(Slep & O' Leary, 2001). 셋째, 부모-자녀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학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부부폭력의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피해부모는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효과적으로 슈퍼비전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아동학대를 범할 위험이 높아진다(Slep & O' Leary, 2001). 혹은, 학대적인 엄마들은 아동의 행동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기대로 인해 자녀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lep & O' Leary, 2001).

반대로 아동학대가 부부폭력을 불러일으키는 맥락도 보고되는데, 부부가 혼육 방식에서 불일치할 때이다. 한 배우자가 아동에 대한 학대를 멈추게 하려고 개입할 때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부부는 폭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다(Slep & O' Leary, 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복경험하는 아동은 폭력에 더 오래 노출되어 폭력행동을 내면화할 가능성이 높아 외현적 문제인 공격성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노충래 · 이신옥, 2003). Hotaling et al.(1989)은 아동학대와 부부폭력을 중복경험한 아동은 가정외의 체계에서 또래친구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고, Hughes et al.(1989)는 부부폭력에 노출된 아동집단과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복경험한 아동집단 간의 비교를 통하여 중복경험한 아동들이 외현화 문제에

서 높은 점수를 보임을 검증하였다.

또한 내재화문제도 보고되는데, 김재엽 외(2010)는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경험집단과 한가지씩만 경험한 집단들을 ANCOVA분석한 결과, 중복경험집단인 더 부정적인 내재화문제(우울, 불안 등)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Margolin et al.(2010)은 누적적인 폭력노출의 경험을 상, 중, 하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는데, 내재화문제(신체화증상, 우울증상, 불안)과 외현화문제(범법행위), 학업실패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고하였다. 그러나 Margolin et al.(2010)의 연구는 부부폭력노출과 아동학대 직접경험과 더불어, 지역사회 폭력 노출까지 함께 측정한 결과여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경험의 영향에 대해 상반된 결과가 보고되는데, 지난 10년간의 연구에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경험이 아동발달에 적당히 긍정적인(modest positive)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Delsol & Margolin, 2004; Heyman & Slep, 2002; Anderson, 2010에서 재인용). 따라서 부부폭력노출과 아동학대 직접경험의 중복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3) 성별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

성차란 불변하는 고정된 차이가 아니라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인지적 요인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임을 인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한다(Fang et al., 2008). 아동의 성별 차이는 개체의 생물학적, 사회적, 인지적 요인의 차이와 더불어, 남녀가 각각 적응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녀가 부모와 상호작용함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도 성별 차이를 도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피해와 관련해서도 적응 상의 차이가 보고되고 있다(조미숙, 2012).

인간발달 과정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합의된 결론은 없지만,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남아의 경우 가정폭력의 피해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외적인 문제행동을 나타내며 보다 낮은 사회적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여아의 경우 여러 가지 내적인 문제를 보이지만 남아보다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고된다(Hughes & Barad, 1983; Porter & O' Leary, 1980; Rosenbaum & O' Leary, 1981; Wolfe et al., 1995; 신혜섭, 2000에서 재인용). 혹은 여아는 스트레스 상황이 지난 성인기가 되어서야 영향을 나타내는 지연

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남아는 자신이 처해 있는 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어려움을 표출한다고 한다(Rutter, 1970; Whitehead, 1979에서 재인용).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이 갈등에 대해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지는가 하면 (Cummings et al., 1985; Kitzmann et al., 2003), 가정폭력 노출 자녀의 아동 발달에서 별다른 성차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김정란, 2003).

이렇듯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아동발달의 영역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지금까지 서양에서 진행되어 왔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가족에서 가정폭력을 경험한 남아의 경우, 전반적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조미숙, 2012). 즉, 남자아동은 내재화된 문제보다는 외현화된 문제를 보다 더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Hughes & Barad, 1983; Porter & O' Leary, 1980; Rosenbaum & O' Leary, 1981; Wolfe et al., 1995; 신혜섭, 2000에서 재인용).

또한, 이러한 경향성에 반하는 연구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Herrera & McCloskey(2001)는 어린 시절 신체학대와 가정폭력을 경험한 여자 아동은 폭력 행동으로 인해 소년법원에 의뢰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보고했고(노충래 · 이신옥, 2003),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아동이 보다 더 많은 외현화문제를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했다(Herrera & McCloskey, 2001; 노충래 · 이신옥, 2003에서 재인용).

둘째, 가정폭력이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장희숙(2010)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더욱 많이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또한, 노충래 · 이신옥(2003)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경험은 내재화문제의 주요한 예측변인으로 특히 여자 아동에게 더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우울, 불안 등)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학업성적이 차이가 난다는 보고하는 연구들이 있다(이호택, 2012).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습수행능력을 방해하는 메커니즘에서 부모와의 유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이호택, 2012), 남자아동보다 여자아동이 부모유대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고 보고된다(오영진 · 김영희, 2010). 즉, 가정폭력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업성적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다는 연구(김지영 · 서영숙, 2011; 이호택, 2012), 남아가 여아보다 높다는 연구(고정화 등, 2008; 이호택, 2012에서 재인용)가 보고되고 있어, 성별에 따른 학업성적의 차이에서 일관된 경향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부부폭력 노출경험이 여아보다 남아에게 심리사회적인 부적응에서 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Wallerstein & Kelly, 1980), 가정폭력에 노출된 경험이 남자아동들의 적응문제에는 연관되었지만, 여자아동의 경우에는 연관되지 않았다는 연구(Cummings et al., 1985)도 있다. 또한, Heyman & Slep(2002)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한 가지 유형만 경험한 집단보다 중복경험집단에서 세대간 폭력전이 위험이 높았는데, 여자들 사이에서 더 높았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인간발달의 영역에서 남녀 간의 차이를 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직접학대와 간접학대의 중복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자 한다.

3. 기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복피해화 연구에서 아동의 피해화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으로 부모의 특성과 지역사회 특성을 검증해왔다(Finkelhor et al., 2009). 본 연구는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주요한 영향요인인 부모와의 유대를 통제하였고, 부모의 학대경험이 폭력의 세대간 전이(transmission)로서 자녀학대를 강하게 예측하는 요인이므로 이를 통제하였다. 또한 거시적인 생태체계 환경으로서 지역사회유대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Sampson, & Raudenbush, 1997) 이를 통제하였다. 이 외의 아동의 연령, 아동성별, 부모학력, 가구월소득, 주택점유형태 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들의 영향도 통제하였다.

① 부모유대

본 연구에서 통제된 부모유대는 아동발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이다. 특히 엄마와 아동간의 바람직한 유대관계는 학대적인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을 지탱해주고 부정적인 후속영향들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Grych, Raynor, & Fosco, 2004; Levendosky, Huth-Bocks, Shapiro, & Semel, 2003; Howell, 2011에서 재인용). 그러나 학대적인 가정에서 엄마가 이런 바람직한 유대관계를 아동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이 먼저 전제된다(Howell, 2011). 또한, 비단 엄마와의 유대만이 아니라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양육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동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으며 명확한 지침과 감독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게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Masten & Coatsworth, 1998; Skopp, McDonald, Jouriles, & Rosenfield, 2007; Howell, 2011에서 재인용). 부모유대는 아동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본 연구에서는 관심을 둔 변수의 영향력에 초점을 유지하고자 부모유대를 통제하였다.

②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

본 연구에서 통제된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은 ‘폭력의 세대간의 전이’의 측면에서 자녀세대에게 부모세대의 폭력경험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예측하는 영향요

인이다.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피해를 입게 되면, 성인기에 신체적 문제, 심리정서적인 문제, 사회부적응 문제 등을 나타낼 수 있고, 폭력을 일종의 행동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김보환, 1994; 김정란, 2002; 손정영, 1998; 안영희, 1998; Hotaling & Sugarman, 1986; Stuth, Rosen, Middleton, Busch, Lundeborg, Carlton, 2000; 김경신 · 김정란, 2002에서 재인용). 따라서 부모에게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했던 사람은 자신이 결혼했을 때, 배우자와 자녀에게 자신이 당했던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Mihalic et al., 1997). 이렇듯 아동발달에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어 통제하고자 한다.

③ 지역사회유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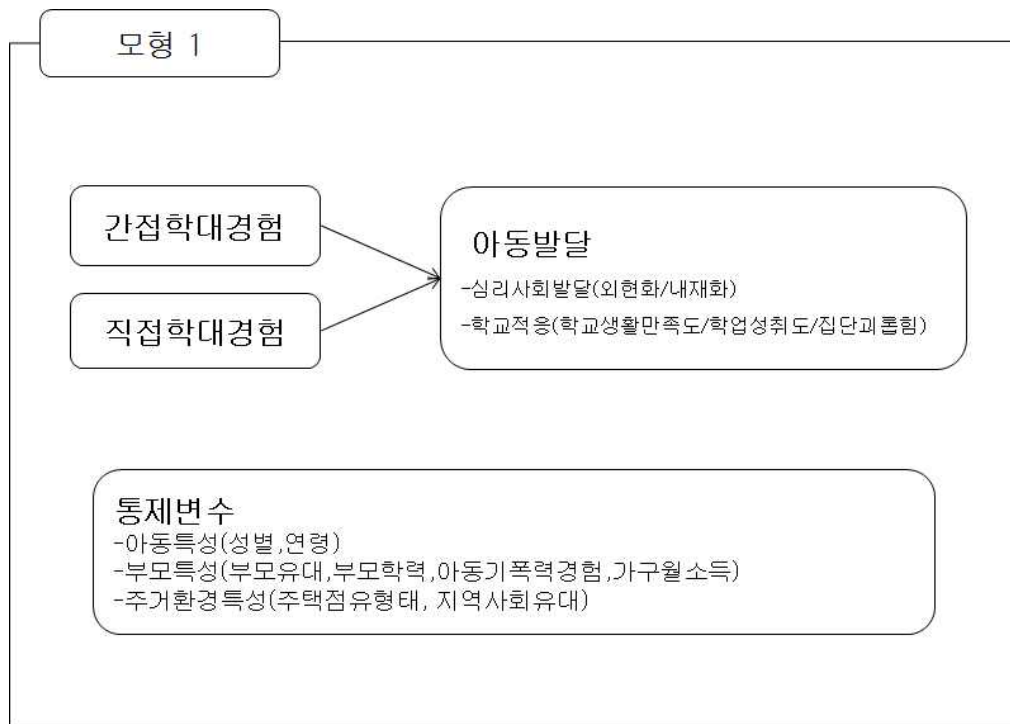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통제된 지역사회유대는 지역구성원간의 신뢰, 비공식적 사회통제,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지지적 이웃관계, 지역사회에의 응집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ampson, & Raudenbush, 1997). 강한 지역사회유대가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며, 아동부모가 인식하는 지역주민들의 질적 수준은 청소년들이 상위학교 진학률, 우울 및 정서적 상태 수준, 비행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선숙, 2008; Boisjoly, Duncan & Hofferth, 1995; Garbarino, & Sherman, 1980; 이봉주 · 김선숙 · 김남희, 2010에서 재인용). 지역사회의 지지적인 이웃관계 또한 아동발달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양육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지지해 주어 가족이 지역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Putnam, 2000; Furstenberg & Hughes, 1995; Morrow, 2000; 이봉주 · 김선숙 · 김남희, 2010에서 재인용). 이러한 지역사회유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본 연구에서는 통제하고자 한다.

제 3 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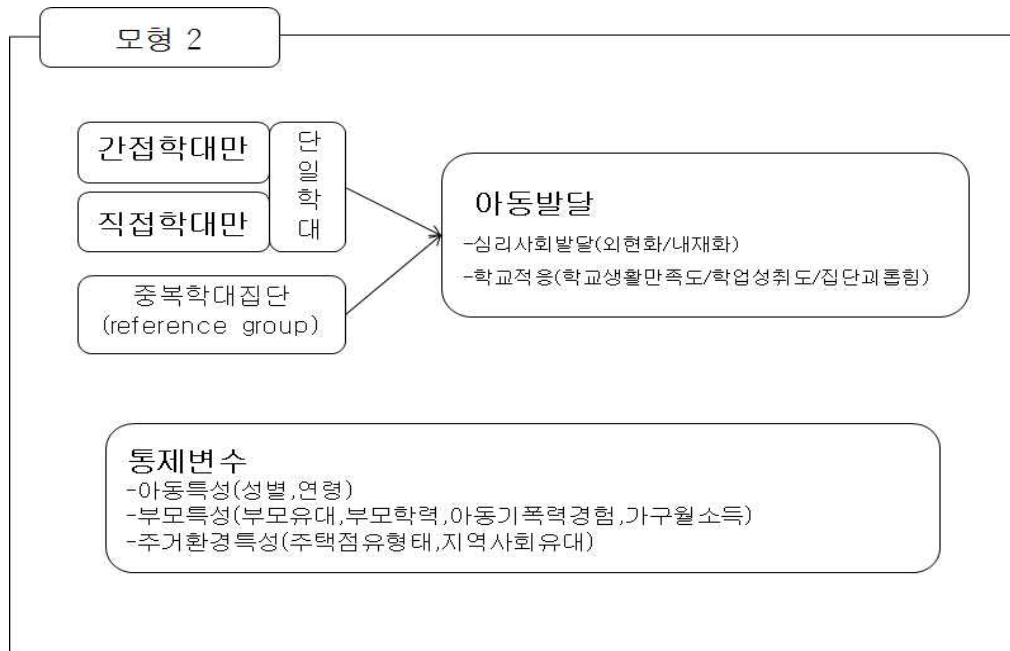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개별적인 학대피해유형과 중복적인 피해유형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첫째, 간접학대경험과 직접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다. 둘째, 중복학대집단은 단일학대경험집단(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는지 검증한다. 셋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한다.

제 1 절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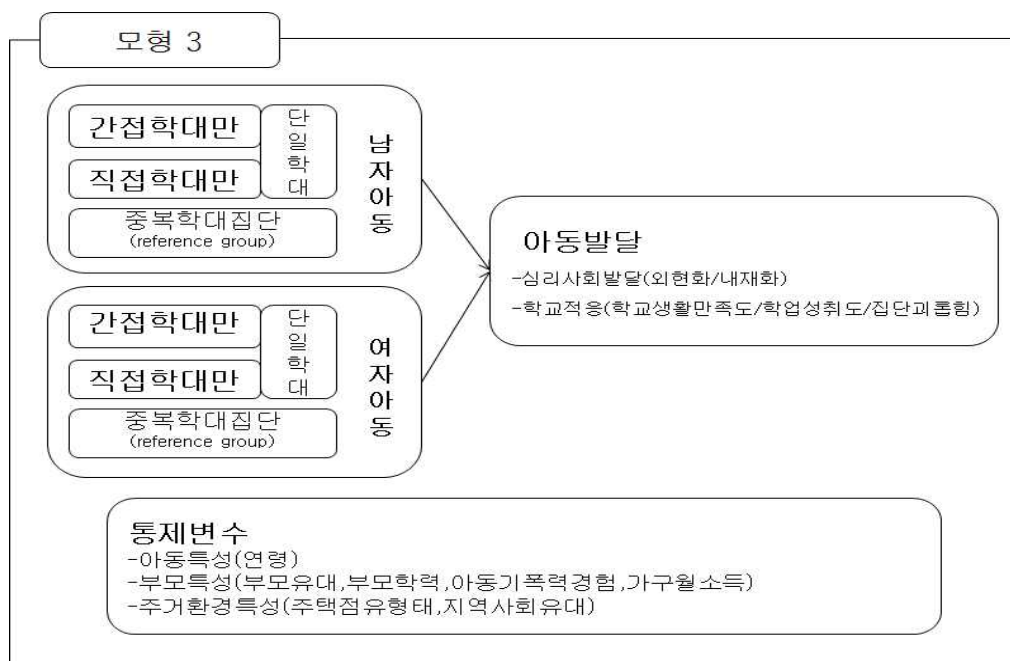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1,2,3에 따른 모형1,2,3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그림 1] 연구모형1



[그림 2] 연구모형2



[그림 3] 연구모형3

제 2 절 연구가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간접학대경험과 직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1-1.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2.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중복학대집단은 단일학대집단보다 아동발달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2-1. 중복학대집단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 2-2. 중복학대집단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 2-3. 중복학대집단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 2-4. 중복학대집단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3-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3-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대상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 원자료를 이용한다. 이 조사는 아동복지법 제 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주양육자와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훈련된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의 조사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 내 만 18세 미만 아동과 그 양육자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전체표본 5000⁹⁾가구 중 20%인 1000¹⁰⁾가구를 저소득층¹¹⁾을 과대표집(boosting)하여 아동학대 의심가구를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본추출 과정은 일반가구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층화이단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 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 추출단위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양육자이다. 이들을 각 층에서 할당된 표본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반영한 가중치는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하고, 무응답조정, 표본가구내 적격자 추출률 반영,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반영 등의 조정을 거쳐 산출되었으며(안재진 외, 2011), 본 연구에서 제시되는 모든 수치는 가중치를 적용한 값이다.

9)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수치임.

10)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수치임.

11) 저소득가구의 모집단은 조사시점(2011년)에서의 전국 저소득층 가구(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이다.

[표 1] 가구조사 층화 방법

구분	지역	1차 층화	2차 층화	층의 개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6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	아파트, 일반조사구	20
	9개 도 지역	9개 도 지역(동부)	아파트, 일반조사구	18
		9개 도 지역(읍·면부)	농림어가 조사구, 비농림어가 조사구	18
신축 아파트 리스트	서울, 6대 광역시, 9개 도 지역	-	-	16

본 연구는 가정폭력을 아동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부부폭력노출, 자녀학대, 형제자매학대 목적을 분석한다. 이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으로 ‘양친과 함께 살면서 형제자매가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인 아동’을 본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에서 조사한 총 5051가구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¹²⁾의 아동이 있으며, 양친부모와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서 관심변수에서 Missing이 있는 자료는 제외하고 1918가구¹³⁾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 2 절 변수의 정의와 측정

1. 독립변수

본 연구는 가정폭력의 경험유형을 간접학대, 직접학대, 중복학대로 분류하고, 각 유형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간접학대는 부부폭력에 노출되었거나 형제자매학대를 목격한 것으로, 직접학대는 아동학대를 직접 경험했는지

12) 초등학교 고학년(4학년이상)부터 고등학생(만18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은 자기응답이 가능하지 않아서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에서 학교생활만족도, 문제행동 등의 변수를 질문하지 않았다.

13) 양친과 형제자매가 있으면 가구원수가 최소한 4명 이상이어야 하므로, 동거가구원수가 4명이상이라고 응답한 가구만을 선택하였다. 진학, 군입대, 직장 등의 이유로 비동거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또한, 양친과 함께 살고 있다고 응답했는데, 주양육자의 결혼상태는 사별인 경우는 모순이 되는데,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과 가구형태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로 측정하였다. 중박학대는 간접학대와 직접학대를 모두 경험한 것으로 조작화하였다.

각 연구문제의 독립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전제 개념으로서 부부폭력, 아동학대, 형제자매학대 목격이라는 하위개념을 먼저 측정하였다. 부부폭력은 Straus et al.(1996)의 갈등해결전략(CTS2), 아동학대는 Straus(1999)의 부모자녀간 갈등해결전략(CTSPC-CA), 형제자매학대 목격은 Straus et al.,(1998)의 갈등해결전략(CTS1)을 사용하였다. 원칙도는 국내의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손정영, 1997), 국내의 아동관련 전문가들(학계와 현장)의 의식조사에서 심각한 학대¹⁴⁾라고 동의한 항목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표 2] Conflict Tactics Scales 관련 변수명 및 분석문항

독립변수의 하위개념		도구	전문가 의식조사 항목
간 접	부부폭력 노출	Straus et al.(1996)의 CTS2	I-1-1), 5), 6), 7), 9), 10)
	형제자매학대 목격	Straus et al.(1998)의 CTS1	I-3-2),10),11),13),14), 15)
직 접	아동학대 직접경험	Straus(1999)의 CTSPC-CA	I-2-4),6),7),8),9),10), 15), 16), 18)

간접학대에 대한 측정은 부부폭력노출과 형제자매학대목격으로 구성된다. 부부폭력노출에 관련된 항목 “배우자가 나에게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목을 조르는 행위/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물건(책대,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에 대해서 부모가 7개의 수준¹⁵⁾으로 응답하였고, 형제자매학대목격에 관련된 항목 “부모가 나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였다/뺨을 때렸다/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

14) 학계와 현장전문가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결과, 정서학대로는 “아이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아이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신체학대로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아이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아이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있는 힘을 다해 아이를 마구 두들겨 뺨다/아이의 목을 잡고 졸랐다/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의 항목을 심각한 학대라고 동의하였다(안재진 외, 2011, p.64).

15) ‘지난 1년간 얼마나 본 적이 있었습니까?’에 대하여 ‘전혀없었다’ (1), ‘1-2번 있었다’ (2), ‘3-5번 있었다’ (3), ‘6-10번 있었다’ (4), ‘11-20번 있었다’ (5), ‘20번이상 있었다’ (6), ‘모름/무응답’ (7)의 7개의 수준으로 응답한다.

로 때렸다/사정없이 마구 때렸다/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에 대해 아동이 7개의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모두 12개의 응답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한 번이상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면 ‘1’로, 전혀 없으면 ‘0’으로 부호화하여 ‘간접학대경험’이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직접학대에 대한 측정은 “부모가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뺐다/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에 대해 아동이 7개의 수준으로 응답하였다. 모두 9개의 응답 중에서 한 항목이라도 한 번이상 경험한 것은 ‘1’로, 전혀 없으면 ‘0’으로 부호화하여 ‘직접학대경험’이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연구문제1]에는 이 두 변수 ‘간접학대경험’, ‘직접학대경험’을 투입하여 분석하였고, [연구문제2]와 [연구문제3]에서는 중복경험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일반아동 집단/간접학대만을 경험한 집단/직접학대만을 경험한 집단/직접학대와 간접학대를 모두 경험한 집단”으로 나누어, ‘일반아동’, ‘간접학대만’, ‘직접학대만’, ‘중복학대’ 변수를 생성하고, ‘중복학대’를 준거집단(reference group)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2. 종속변수

본 연구는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이 아동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은 아동발달의 영역을 측정하였다.

1) 심리사회발달

본 연구는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을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로 정의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SSIS(Social Skill Improvement System)의 외현화문제(Externalizing)과 내재화문제(Internalizing)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Gresham & Elliott(2008)이 SSRSTM(Social Skill Rating System(1990))을 새로 개정하여 만든 것으로, 본 연구의 의도에 부합된다.

① 외현화문제

외현화문제의 측정영역은 언어상이나 신체상의 공격성, 아동의 참지 못하는 성미, 대드는 성향 등이다. 이 척도는 사회적 행동이 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setting)에 영향을 받는다는 지식에 의거해 고안되어진 것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척도이다.

외현화문제를 측정하는 항목은 총 12문항으로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였고(안재진 외, 2011), 각각의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다. 12개의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며, 0~3점의 범위를 가지고, 점수가 높을수록 외현화문제 수준이 높은 것이다.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49이다.

② 내재화문제

내재화문제는 걱정, 슬픔, 외로움, 낮은 자기효용감의 표출 등이다. 내재화문제를 측정하는 항목은 총 10문항으로 원척도 그대로 사용하고(안재진 외, 2011), 각각의 항목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다.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각 응답을 0~3점의 범위로 코딩하고, 10개의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은 것이며,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82이다.

2) 학교적응

① 학교생활만족도

본 연구의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인 만족과 애착으로 측정한다. 「2009년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동이 인지하는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호감, 교사, 수업 등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학교유대 설문문항은 총 9문항을 평균하여 측정하였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대감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21 이었다.

②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학교학습결과로 귀결되며 평소 아동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학습에 도달한 정도를 의미한다(박영신·김이철, 2000). 따라서 학교의 전과목평균 성적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학교 성적에 대해 아동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문시점(2011년 상반기)에서 직전의 학기(2010년 2학기)의 전과목성적에 대해 질문하고, 응답은 ‘매우 못하는 수준(0)/못하는 수준(1)/보통(2)/잘하는 수준(3)/매우 잘하는 수준(4)’ 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이다.

③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

집단괴롭힘 현상은 아동의 사회성 발달의 한 영역으로서 또래관계에서의 적응에 대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괴롭힘을 아동이 친구 혹은 선후배를 심리적, 언어적, 신체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함으로써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로 정의하였고(변귀연, 2002), 그에 대한 측정은 가해경험은 ‘다른 친구를 집단괴롭힘 시키기/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협박하기’ 로 질문하였고, 피해경험은 ‘또래나 선후배에게 집단괴롭힘 당하기/고의적으로 괴롭힘(심부름, 놀림, 물건 망가뜨리기 등) 당하기/돈이나 물건을 뺏기기’ 로 질문하였다. 피해경험 3문항, 가해경험 3문항으로 각각의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물었고, 한 번이라도 있다고 응답하면 경험이 있는 것(1),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면 경험이 없는 것(0)으로 부호화하여 질적변수로 사용하였다.

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및 분석모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근거로 아동특성(아동연령, 아동성별), 부모특성(부모학력, 가구월소득, 부모유대, 아

동기폭력경험), 거주환경특성(주택점유형태, 지역사회유대)을 통제변수로 한다 (Sudermann & Jaffe, 1999; Finkelhor et al., 2007; 김형모 · 김영민, 2007).

아동연령: 조사시점 당시(2011년 8월)의 아동의 현재나이를 조사하였고, 그 범위는 9~19세이다.

아동성별: 아동의 성별은 남자는 0으로, 여자는 1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학력: 부모의 학력은 미취학/무학=0, 초등학교이하=1, 중학교이하=2, 고등학교이하=3, 대학(3년제)이하=4, 대학(4년제)이하=5, 대학원이상=6 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가구월소득: 100만원이하=0, 101~200만원=1, 201~300만원=2, 301~400만원=3, 401~500만원=3, 501~600만원=4, 601~700만원=5, 701~800만원=6, 701~800만원=7, 801~900만원=8, 901~1000만원=9, 1000만원이상=1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유대: 아동이 인식하는 부모유대를 측정하였고, 자녀의 행동과 집밖의 생활에 대한 부모의 감독과 통제, 그리고 부모의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에 대한 아동의 인식으로 정의한다. 부모유대 척도로 「2009년 한국 아동 종합실태조사」에서 사용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다. 부모유대는 총 8문항으로 부모의 감독과 통제와 관련된 질문은 1)~4)번 문항,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태도와 관련된 질문은 5)~8)번 문항으로, 각각의 질문에 대해 4점 척도로 질문한다. 응답결과를 평균하여 사용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유대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891 다.

부모의 아동기 학대경험: Straus et al.,(1996)의 CT 척도를 사용하여, 부모의 아동기(만18세 이전) 폭력경험을 질문한다. “부모가 나의 뺨을 때렸다/나를 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렸다/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나에게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나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¹⁶⁾”의 설문으로 질문하고, ‘일

16) 아동학대 실태조사의 설문은 원래 척도에서 8개의 질문을 가져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식조사에서 심각한 학대라고 동의한 기준에 맞추어 5개만 분석하였다.

어나지 않았다/1-2번 있었다/여러 차례 있었다' 로 응답하게 하였다. 5개의 심각한 학대 항목 중에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 응답한 것은 1로,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것은 0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주택점유형태: 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부모에게 질문하였다. 월세=0, 보증부월세=1, 전세=2, 자가=3 으로 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지역사회유대: 본 연구는 지역사회유대를 사회결속 및 신뢰감에 대한 주양육자의 인식으로 정의한다(Sampson & Raudenbush, 1997). 「아동학대실태조사(2011)」는 사회결속 및 신뢰질문 5개문항과 지역사회통제 4문항을 합쳐 총 9문항을 물었으며, 각각 5점척도로 물었다. 5개의 문항을 평균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지역사회유대가 높은 것이다. 응답결과를 분석한 결과 신뢰도계수 Cronbach's α 값은 .787 다.

제 3 절 통계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연속변수에 대한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직접학대경험, 간접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에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검증하기 위해 남·녀 아동집단 별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 장 연구결과

제 1 절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아동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거주환경(권역, 지역크기, 부스터 가구여부, 주택유형, 주택점유형태), 가구특성(가구특성, 가구유형, 동거가구원수, 방수, 가구월소득), 부모특성(아동과의 관계, 주양육자 성별, 주양육자 연령대, 주양육자 학력, 주양육자 결혼상태, 부모경제활동분야), 아동특성(자녀성별, 자녀연령, 전과목성적, 집단괴롭힘 가해·피해경험)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3]~[표6]과 같다.

아동이 사는 거주환경을 가정폭력발생률에 따라 살펴보았다. 아래 [표3]에서 보듯이, 전국적인 권역 중에서,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률이 가장 높은 권역은 서울/인천으로(68.2%) 나타났다. 지역크기에서는 대도시가 57.3%, 주택유형으로는 열악한 주거형태인 기타¹⁷⁾가 66.7%, 주택을 점유한 형태에서는 월세로 살고 있는 아동이 70.0%의 가정폭력 경험률을 나타냈다.

17) ‘기타’에는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16명), 오피스텔(3명), 기타(2명) 유형이 포함되어 있음.

[표 3]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거주환경)

구분	내용	인원수 (명/%)		일반아 동 (%)	가정폭 력 (%)	학대유형별 (%)		
						간접학 대만	직접학 대만	중복 학대
권역	서울/인천	441	23.0	31.8	68.20	48.0	3.6	16.6
	경기	485	25.3	50.6	49.40	37.6	5.0	6.8
	대전/충북/충남	224	11.7	53.6	46.40	33.9	2.7	9.8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04	26.3	50.8	49.20	38.7	2.2	8.3
	광주/강원/전북/전남/제주	264	13.8	54.2	45.90	31.1	6.8	8.0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지역 크기	대도시	869	45.3	42.7	57.30	40.4	3.3	13.6
	중소도시	791	41.3	50.9	49.10	37.5	4.6	7.0
	농어촌	258	13.4	50.4	49.70	38.0	4.3	7.4
	Total	1918	100.0	47.1	52.90	38.9	4.0	10.0
부서 가구 여부	비해당	1870	97.5	47.4	52.60	38.8	3.9	9.9
	해당	48	2.5	39.6	60.50	41.7	4.2	14.6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주택 유형	일반단독	506	26.4	44.7	55.40	39.7	3.8	11.9
	다가구/다세대/연립	369	19.2	46.1	53.90	40.4	4.3	9.2
	아파트(영구임대포함)	1023	53.3	49.0	51.00	37.8	4.0	9.2
	기타	21	1.1	33.3	66.70	42.9	.0	23.8
	Total	1918	100.0	47.1	53.00	38.9	4.0	10.1
주택 점유 형태	자가	1302	67.9	49.6	50.40	38.7	3.7	8.0
	전세	546	28.5	42.1	57.90	38.6	4.6	14.7
	보증부월세	49	2.6	44.9	55.10	44.9	4.1	6.1
	월세	20	1.1	30.0	70.00	40.0	5.0	25.0
	Total	1918	100.0	47.2	52.90	38.9	4.0	10.0

아동이 사는 가구특성을 가정폭력 경험률에 따라 살펴보았다. 아래 [표4]에서 보듯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률이 62.1%로, 차상위 가구(56.5%)나 일반가구(52.5%)의 경험률보다 높았다. 아동이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동거가구원 수는 5명이상일 때 62.2%, 방 개수가 2개 이하일 때 61.5%로 나타났다. 가구의 월소득에서 가정폭력 경험률을 살펴보면, 대체로 50% 이상의 경험률을 보이다가 500~700만원의 월소득을 가지는 가구에서 사는 아동이 20~30%정도의 다소 낮은 경험률을 보였고, 오히려 1000만원이상인 가구에서 사는 아동도 54%의 가정폭력경험률을 보여 높은 월소득과 가정폭력경험률이 서로 정적 관계를 이루지는 않았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가구특성)

구분	내용	인원수 (명/%)		일반아 동 (%)	가정폭 력 (%)	학대유형별 (%)		
						간접학 대만	직접학 대만	중복 학대
가구 특성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37	1.9	37.8	62.10	37.8	5.4	18.9
	차상위가구	25	1.3	43.5	56.50	43.5	.0	13.0
	일반가구	1857	96.8	47.4	52.50	38.8	3.9	9.8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가구 유형	양친+자녀	1847	96.3	47.3	52.70	38.8	4.0	9.9
	조부모+양친+자녀	71	3.7	43.7	56.30	40.8	1.4	14.1
	Total	1918	100.0	47.2	52.80	38.8	3.9	10.1
동거 가구 원수	4명	1444	75.3	50.2	49.80	36.9	2.9	10.0
	5명이상	474	24.7	37.8	62.20	45.1	7.0	10.1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방수	2개 이하	276	14.4	38.4	61.50	43.8	7.6	10.1
	3개	1481	77.2	48.7	51.30	38.4	3.2	9.7
	4개 이상	161	8.4	48.8	51.30	35.0	3.8	12.5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가구 월소 득	100만원이하	25	1.3	44.0	56.00	40.0	4.0	12.0
	101-200만원	153	8.0	34.2	65.80	53.3	2.6	9.9
	201-300만원	476	24.8	44.4	55.60	40.5	4.8	10.3
	301-400만원	553	28.8	51.3	48.70	39.3	2.0	7.4
	401-500만원	285	14.9	46.7	53.30	38.2	6.3	8.8
	501-600만원	67	3.5	68.7	31.30	19.4	.0	11.9
	601-700만원	16	.8	75.0	25.00	25.0	.0	.0
	701-800만원	20	1.1	45.0	55.00	45.0	.0	10.0
	801-900만원	5	.2	25.0	75.00	75.0	.0	.0
	901-1000만원	6	.3	16.7	83.30	50.0	.0	33.3
	1000만원이상	311	16.2	46.0	54.00	33.1	5.8	15.1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아동의 부모특성에 따라 아동이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을 [표5]에서 살펴보았다. 부모가 50대 이상일 때(60.3%), 다른 연령대보다 가정폭력경험률이 높았고,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받았을 때(44.1%), 다른 교육수준의 부모에 비하여 낮은 편이었다. 경제활동분야가 실업자인 경우가 가장 높은 경험률(64%)을 나타냈지만, 25명의 소수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이므로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한다. 나머지 경제활동분야에서는 자영업자/고용주의 직업을 가진 부모가 무급가족종사자보다 자녀를 더 많이(58.1%>54.3%)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부모특성)

구분	내용	인원수 (명/%)		일반아 동(%)	가정폭 력(%)	학대유형별(%)		
						간접학 대만	직접학 대만	중복 학대
아동과 의 관계	아버지	184	9.6	53.3	46.70	33.7	3.8	9.2
	어머니	1734	90.4	46.5	53.50	39.4	4.0	10.1
	Total	1918	100.0	47.1%	52.90	38.9	4.0	10.0
부모연 령대	20대이하	2	.1	100.0	0.00	.0	.0	.0
	30대	350	18.3	45.7	54.30	40.6	6.6	7.1
	40대	1418	73.9	48.0	52.00	38.4	3.2	10.4
	50대	135	7.1	39.7	60.30	41.9	3.7	14.7
	60대이상	5	.3	80.0	20.00	20.0	.0	.0
	모름/무응답	8	.4	50.0	50.00	25.0	25.0	.0
	Total	1918	100.0	47.1	53.00	38.9	4.0	10.1
부모 학력	미취학/무학	—	—	—	0.00	—	—	—
	초등학교이하	4	.2	50.0	50.00	50.0	.0	.0
	중학교	24	1.3	36.0	64.00	48.0	.0	16.0
	고등학교	814	42.5	45.2	54.80	40.9	4.3	9.6
	대학(3년제)	259	13.5	46.3	53.70	37.5	3.1	13.1
	대학(4년제)	782	40.8	49.4	50.60	37.4	4.1	9.1
	대학원이상	33	1.7	55.9	44.10	26.5	.0	17.6
	Total	1918	100.0	47.2	52.90	38.9	3.9	10.1
부모결 혼상태	유배우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경제활 동분야	자영업자/ 고용주	253	13.2	41.9	58.10	43.1	5.1	9.9
	임금근로자	617	32.2	46.2	53.90	39.1	2.8	12.0
	무급가족종사자	47	2.4	45.7	54.30	41.3	4.3	8.7
	실업자	25	1.3	36.0	64.00	40.0	.0	24.0
	비경제활동인구	976	50.9	49.6	50.40	37.4	4.4	8.6
	Total	1918	100.0	47.2	52.80	38.8	3.9	10.1

아동특성에 따라 가정폭력을 경험할 확률을 [표6]에서 살펴보았다. 아동이 여자일 때(55.6%)가 남자일 때(50.4%)보다 경험할 확률이 높았고, 연령상으로는 13살이 40.5%로 가장 낮았고, 17살이 57.8%로 가장 높은 경험률을 보였다. 전 과목성적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서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한 아동은 60~70%정도의 가정폭력경험률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아동은 40~50%정도의 가정폭력경험률을 나타냈다. 또한,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을 보고한 아동에서 가정폭력 경험률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가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집단에서는 72.4%,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집단에서는 90.7%가 보고되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아동특성)

구분	내용	인원수 (명/%)		일반아 동(%)	가정폭력 (%)	학대유형별(%)		
						간접학대 만	직접학대 만	중복 학대
자녀 성별	남자	1012	52.8	49.7	50.40	36.6	3.3	10.5
	여자	906	47.2	44.4	55.60	41.5	4.6	9.5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자녀 연령	9살	5	.3	60.0	40.00	40.0	.0	.0
	10살	10	.5	20.0	80.00	70.0	.0	10.0
	11살	141	7.4	42.1	57.80	36.4	6.4	15.0
	12살	199	10.4	44.2	55.70	43.7	4.5	7.5
	13살	272	14.2	59.4	40.50	31.7	1.8	7.0
	14살	274	14.3	44.2	55.80	35.4	8.4	12.0
	15살	240	12.5	45.8	54.20	42.9	5.0	6.3
	16살	235	12.2	47.2	52.70	38.3	3.8	10.6
	17살	231	12.0	42.2	57.80	43.9	.4	13.5
	18살	230	12.0	50.4	49.50	40.4	1.3	7.8
	19살	81	4.2	45.7	54.20	33.3	4.9	16.0
	Total	1918	100.0	47.3	52.80	38.9	3.9	10.0
전과목 성적	매우 못함	12	.6	33.3	66.70	66.7	.0	.0
	못함	90	4.7	25.6	74.50	45.6	8.9	20.0
	보통	862	44.9	43.9	56.00	40.3	4.5	11.2
	잘함	816	42.5	52.5	47.50	36.6	2.7	8.2
	매우 잘함	138	7.2	51.4	48.50	36.2	4.3	8.0
	Total	1918	100.0	47.2	52.80	38.8	3.9	10.1
집단괴 롭힘가 해경험	없다	1679	87.6	50.0	50.00	38.9	3.2	7.9
	있다	239	12.4	27.6	72.40	38.9	8.8	24.7
	Total	1918	100.0	47.2	52.80	38.9	3.9	10.0
집단괴 롭힘괴 해경험	없다	1832	95.5	48.9	51.10	38.4	4.1	8.6
	있다	86	4.5	9.3	90.70	48.8	.0	41.9
	Total	1918	100.0	47.2	52.90	38.9	3.9	10.1

제 2 절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다음 [표7]과 같다. 변수의 집중경향성과 분산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과 최솟값을 제시하고, 자료의 정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를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 지수는 3.0보다 크면 심한 것으로 보고, 첨도값은 10보다 크면 정상분포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Kline, 2005). 독립변인 ‘직접학대만’ 변수와 종속변인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수에서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왜도와 첨도가 기준값보다 높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종속변인의 편포이지, 독립변인의 편포된 정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¹⁸⁾. 종속변수인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질적변수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왜도와 첨도의 수치가 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¹⁹⁾.

18) 종속변수나 독립변수의 정규성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회귀식을 통해 추정된 '오차의 분포'가 정규성을 가지는 것이다(김태근, 2006, p.239). 본 연구는 Normal probability plot과 p-p plot을 그려 오차의 정규성을 확인하였고, 분석된 사례수는 1900개 이상이다. 또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오차의 정규성은 중심극한정리(central limit theorem)에 의해서 확보되며, 일반적으로 사례수가 200개를 넘으면 오차의 정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더미변수의 편포는 중요한 문제로 삼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직접학대만’ 변수의 편포는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정규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성의 확보와 관련된 왜도와 첨도는 문제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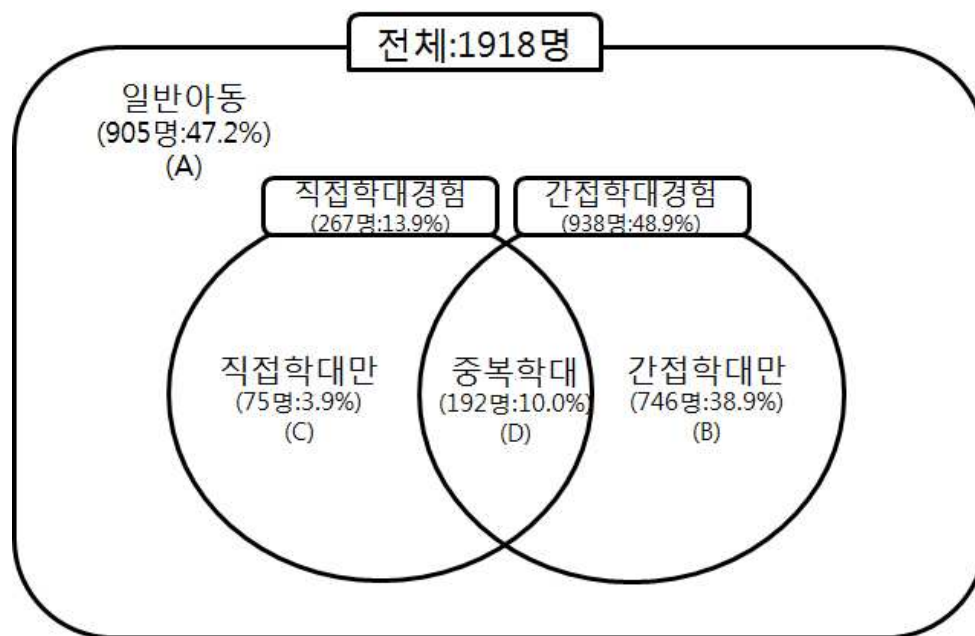
[표 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치

변수명				N	평균	표준 편차	최솟 값	최댓 값	왜도	첨도
독립변수	연구문 제1	직접학대경험		1918	0.14	0.35	0.00	1.00	2.08	2.34
		간접학대경험		1918	0.49	0.50	0.00	1.00	0.04	-2.00
	연구문 제2	일반	일반아동	1918	0.47	0.50	0.00	1.00	0.11	-1.99
		단일	직접학대만	1918	0.04	0.19	0.00	1.00	4.74	20.52
			간접학대만	1918	0.39	0.49	0.00	1.00	0.46	-1.79
		중복	중복학대	1918	0.10	0.30	0.00	1.00	2.66	5.11
종속변수	심리사회발달	외현화문제		1918	0.28	0.31	0.00	3.00	1.77	4.98
		내재화문제		1918	0.21	0.35	0.00	3.00	2.47	7.32
	학교적응	학교생활만족도		1918	2.28	0.47	0.67	3.00	-0.17	-0.67
		학업성취도		1918	2.51	0.73	0.00	4.00	-0.08	0.27
		집단 괴롭힘	가해	1918	0.12	0.33	0.00	1.00	2.28	3.19
			피해	1918	0.04	0.21	0.00	1.00	4.40	17.38
통제변수	아동성별(남=0,여=1)			1918	0.47	0.50	0.00	1.00	0.11	-1.99
	아동연령			1918	14.82	2.32	9.00	19.00	0.00	-1.00
	부모유대			1918	2.26	0.50	0.00	3.00	-0.33	0.26
	부모학력			1918	3.99	0.99	1.00	6.00	0.00	-1.43
	부모아동기폭력경험			1918	0.09	0.29	0.00	1.00	2.78	5.73
	가구월소득			1918	4.01	2.89	0.00	10.00	1.27	0.27
	주택점유형태(월세=0,자가=3)			1918	2.63	0.59	0.00	3.00	-1.68	3.21
	지역사회유대(1~4)			1918	2.59	0.45	1.33	4.00	-0.14	-0.32

2. 학대경험유형별 분포

본 연구의 관심은 학대경험의 유형에 따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서 독립변수를 조금 다르게 조작하였다. [연구문제1]에서는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을 초점에 두고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고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 모형으로 개별적인 학대의 독자적인 영향력을 먼저 검증한다. [연구문제2]에서는 각각의 집단별로 나누어 중복학대의 심각성을 검증하고자 ‘일반아동’, ‘직접학대만’, ‘간접학대만’, ‘중복학대’로 분류하고, 중복학대경험과 단일학대경험을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집단별 분포는 아래 [그림4]와 같다.

[연구문제1]에 투입된 ‘직접학대경험’ 아동은 267명(13.9%), ‘간접학대경험’ 아동은 937명(48.9%)이다. [연구문제2]에 투입된 ‘일반아동’은 905명(47.2%), ‘직접학대만’은 75명(3.9%), ‘간접학대만’은 746명(38.9%), ‘중복학대’는 192명(10.0%)이다.



[그림 4] 학대경험유형 집단별 벤다이어그램

3. 학대경험유형별 종속변인에 대한 분산분석

본 연구는 회귀분석과 로지스틱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에 앞서 종속변수인 심리사회발달(외현화 및 내재화문제),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 학업성적,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 대한 아동의 가정폭력 학대경험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집단의 크기가 같지 않으므로 Scheffe검정을 하였고, 집단간 종속변수의 변량이 동질성 가정에 위배되는 경우는 Games-Howell 검정을 하였다(최성재, 2005).

아동발달에 대한 학대경험유형별 집단 간 비교결과는 아래 [표8]과 같다. 자세히 살펴보면,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일반아동집단(A)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과 비교할 때,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과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의 심리사회발달 수준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아동집단(A)의 학교생활만족도는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보다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과는 차이가 없었다. 또한,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의 학교생활만족도는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서는 일반아동집단(A)과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과의 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는, 일반아동집단(A)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보다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보다도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 간의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살펴보면, 각 집단들 간의 차이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C)은 '0' 명이므로 제외하고 해석하였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가장 낮은 집단은 일반아동집단(A)이었고,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이 가장 높았다. 즉,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일반아동집단(A) <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B) <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D)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8] 학대경험유형별 집단간 종속변수의 차이

학대 경험 유형	n (명)	종속변수											
		심리사회발달				학교적응							
		외현화		내재화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평균	S.D
A	905	0.18	0.26	0.14	0.29	2.37	0.46	2.60	0.69	0.07	0.26	0.01	0.10
B	746	0.31	0.29	0.23	0.36	2.24	0.44	2.46	0.75	0.12	0.33	0.06	0.23
C	75	0.48	0.35	0.33	0.33	2.33	0.43	2.35	0.78	0.28	0.45	—	—
D	192	0.59	0.37	0.45	0.47	1.97	0.47	2.37	0.73	0.31	0.46	0.18	0.39
전체	1918	0.28	0.31	0.21	0.35	2.28	0.47	2.51	0.73	0.12	0.33	0.04	0.21
F		127.980** *		47.176***		43.992***		9.246***		34.107***		42.688***	
Scheffe						A>B*** A>D*** B>D*** C>D***		A>B*** A>C* A>D***		A<B** A<C*** A<D*** B<C* B<D***			
Games -Howell		A<B*** A<C*** A<D*** B<C*** B<D***		A<B*** A<C*** A<D*** B<C*** B<D*								A<B*** A<D*** B<D***	

* p<.05, ** p<.01, *** p<.001

A: 일반아동집단, B: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C: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D: 중복학대집단

4.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에 앞서 변수간의 관련성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파악하고,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변수간 Pearson의 단순상관행렬을 분석하였다.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서 독립변수의 조작을 달리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상관관계 수표를 제시하였다.

상관계수의 절댓값이 .85를 넘으면 해당 변수들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상관계수의 절댓값들이 .85를 넘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속변수들 중에서 외현화문제와 내재화문제의 상관계수가 .660이지만, 종속변수들은 따로 투입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얻어지는 분산팽창지수(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를 살펴보았다.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김두섭·강남준, 2000), 변수들의 VIF값이 모두 기준값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연구문제1]에서 설정한 독립변수인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의 상관관계는 $r=0.185$ 이며, 통계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9).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직접학대경험과 아동의 외현화문제는 $r=.353$ ($p<0.01$), 내재화문제는 $r=.231$ ($p<0.01$), 학교생활만족도는 $r=-.175$ ($p<0.01$), 학업성취도는 $r=-.082$ ($p<0.01$),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은 $r=.213$ ($p<0.0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r=.171$ ($p<0.01$)로 나타났다. 즉, 직접학대경험은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는 정적 관계를,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학대경험과 아동의 외현화문제는 $r=.267$ ($p<0.01$), 내재화문제는 $r=.164$ ($p<0.01$), 학교생활만족도는 $r=-.196$ ($p<0.01$), 학업성취도는 $r=-.094$ ($p<0.01$),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은 $r=.109$ ($p<0.0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r=.179$ ($p<0.01$)로 나타났다. 간접학대경험도 외현화 및 내재화 문제,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과는 정적 관계를, 학교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와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문제2]에서는 독립변수를 일반 아동집단,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집단,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집단,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집단으로 분리하였다 (표10). 독립변수들을 먼저 살펴보면, 일반아동과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집단과의 상관관계는 $r = -.191 (p < .01)$, 일반아동과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집단과의 상관관계는 $r = -.754 (p < .01)$, 일반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집단은 $r = -.315 (p < .01)$,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집단은 $r = -.161 (p < .01)$,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집단은 $r = -.068 (p < .01)$,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집단은 $r = -.266 (p < .01)$ 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아동은 외현화문제와 $r = -.317 (p < .01)$, 내재화문제와 $r = -.192 (p < .01)$, 학교생활만족도와 $r = .187 (p < .01)$, 학업성취도와 $r = .111 (p < .01)$, 집단괴롭힘 가해경험과 $r = -.147 (p < .0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r = -.162 (p < .01)$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집단은 외현화문제와 $r = .128 (p < .01)$, 내재화문제와 $r = .070 (p < .01)$, 집단괴롭힘가해경험과 $r = .098 (p < .01)$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집단은 외현화문제와 $r = .074 (p < .01)$, 학교생활만족도와 $r = -.067 (p < .01)$, 학업성취도와 $r = -.056 (p < .05)$,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과 $r = .045 (p < .05)$ 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중복학대집단은 외현화문제($r = .325$, $p < .01$), 내재화문제($r = .222$, $p < .01$), 학교생활만족도($r = -.218$, $p < .01$), 학업성취도($r = -.066$, $p < .01$), 집단괴롭힘 가해경험($r = .183$, $p < .0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r = .225$, $p < .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종속변수와 통제변수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외현화문제는 아동연령($r = 0.046$, $p < .05$), 부모유대($r = -0.392$, $p < .01$),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r = 0.156$, $p < .01$), 주택점유형태($r = -0.081$, $p < .01$), 지역사회유대($r = -0.114$, $p < .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내재화문제는 아동성별($r = 0.052$, $p < .05$), 아동연령($r = 0.068$, $p < .01$), 부모유대($r = -0.300$, $p < .01$),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r = 0.091$, $p < .01$), 가구월소득($r = 0.058$, $p < .05$), 주택점유형태($r = -0.077$, $p < .01$), 지역사회유대($r = -0.086$, $p < .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학교생활만족도는 아동성별($r = 0.069$, $p < .01$), 아동연령($r = -0.127$, $p < .01$), 부모유대($r = 0.331$, $p < .01$), 부모학력($r = 0.150$, $p < .01$),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r = -0.119$, $p < .01$), 가구월소득($r = 0.158$, $p < .01$), 주택점

유형태($r=0.052$, $p<0.05$)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학업성취도는 아동 연령($r=-0.109$, $p<0.01$), 부모유대($r=0.251$, $p<0.01$), 부모학력($r=0.135$, $p<0.01$), 가구월소득($r=.050$, $p<0.05$), 주택점유형태($r=.091$, $p<0.01$), 지역사회유대($r=.086$,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은 아동성별($r=-.047$, $p<0.05$), 부모유대($r=-.222$, $p<0.01$),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r=.166$, $p<0.01$), 가구월소득($r=-.057$, $p<0.05$), 지역사회유대($r=-.120$,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또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아동성별($r=-.053$, $p<0.05$), 부모유대($r=-.169$, $p<0.01$),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r=.111$, $p<0.01$), 가구월소득($r=-.070$, $p<0.01$), 지역사회유대($r=-.079$, $p<0.01$)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표 9]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1)

	외원화 문제 (1)	내재화 문제 (2)	학교생활 만족도 (3)	학업 성취도 (4)	직단교류 가해경험 (5)	직단교류 피해경험 (6)	직접함대 경험 (7)	간접함대 경험 (8)	아동성별 (9)	아동연령 (10)	부모유대 (11)	부모학력 (12)	아동기 폭력경험 (13)	가구 월소득 (14)	주택 점유형태 (15)	지역사회 유대 (16)
1	1															
2	.660**	1														
3	-.309**	-.208*	1													
4	-.195**	-.144**	.350**	1												
5	.390**	.247**	-.174**	-.100**	1											
6	.237**	.210**	-.182**	-.106**	.211**	1										
7	.353**	.231**	-.175**	-.082**	.213**	.171**	1									
8	.267**	.164**	-.196**	-.094**	.109**	.179**	.185**	1								
10	-.036	.052*	.069**	.001	-.047*	-.053*	.005	.040	1							
11	.046*	.068**	-.127**	-.109**	-.045	-.032	-.018	.023	.014	1						
12	-.392**	-.300**	.331**	.251**	-.222**	-.169**	-.246**	-.224**	.081**	-.117**	1					
13	.003	-.011	.150**	.135**	-.035	-.042	-.007	-.046*	-.029	-.088**	.075**	1				
14	.156**	.091**	-.119**	-.013	.166**	.111**	.135**	.161**	-.002	.021	-.107**	-.058*	1			
15	.039	.058*	.158**	.050*	-.057*	-.070**	.074**	-.034	.009	-.017	-.069**	.174**	-.044	1		
16	-.081**	-.077**	.052*	.091**	-.044	-.043	-.085**	-.066**	.068**	.085**	.053*	.060**	-.033	.109**	1	
17	-.114**	-.086**	.016	.086**	-.120**	-.079**	-.110**	-.107**	.052*	.026	.123**	-.043	-.011	-.007	.093**	1

* p<.05, ** p<.01

[표 10]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연구문제2)

	외원화 문제 (1)	내재화 문제 (2)	학교생활 만족도 (3)	학업 성취도 (4)	집단 괴롭힘 가해경험 (5)	집단 괴롭힘 피해경험 (6)	일반 아동 (7)	직접 학대만 (8)	간접 학대만 (9)	증복 학대 (10)	아동 성별 (11)	아동 연령 (12)	부모 유대 (13)	부모 학력 (14)	아동기 폭력 경험 (15)	가구 월소득 (16)	주택 점유 형태 (17)	지역 사회 유대 (18)
1	1																	
2	.660**	1																
3	-.309**	-.208**	1															
4	-.195**	-.144**	.350**	1														
5	.390**	.247**	-.174**	-.100**	1													
6	.237**	.210**	-.182**	-.106**	.211**	1												
7	-.317**	-.192**	.187**	.111**	-.147**	-.162**	1											
8	.128**	.070**	.024	-.044	.098**	-.044	-.191**	1										
9	.074**	.032	-.067**	-.056*	-.001	.045*	-.754**	-.161**	1									
10	.325**	.222*	-.218**	-.066**	.183**	.225**	-.315**	-.068**	-.266**	1								
11	-.036	.052*	.069**	.001	-.047*	-.053*	-.053*	.034	.051*	-.016	1							
12	.046*	.068**	-.127**	-.109**	-.045	-.032	-.002	-.055*	.015	.014	.014	1						
13	-.392**	-.300**	.331**	.251**	-.222**	-.169**	.246**	-.056*	-.077**	-.248**	.081**	-.117**	1					
14	.003	-.011	.150**	.135**	-.035	-.042	.048*	-.007	-.045	-.003	-.029	-.088**	.075**	1				
15	.156**	.091**	-.119**	-.013	.166**	.111**	-.192**	.078**	.101**	.106**	-.002	.021	-.107**	-.058*	1			
16	.039	.058*	.158**	.050*	-.057*	-.070**	.020	.035	-.073**	.063**	.009	-.017	-.069**	.174**	-.044	1		
17	-.081**	-.077**	.052*	.091**	-.044	-.043	.071**	-.011	-.012	-.091**	.068**	.085**	.053*	.060**	-.033	.109**	1	
18	-.114**	-.086**	.016	.086**	-.120**	-.079**	.113**	-.016	-.038	-.116**	.052*	.026	.123**	-.043	-.011	-.007	.093**	1

* p<.05, ** p<.01

제 3 절 가설검증

본 연구는 아동의 가정폭력 경험유형에 따라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또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조사 집단의 일반적 특성의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아동특성(아동연령, 아동성별), 부모특성(부모학력, 가구월소득, 부모유대, 아동기폭력경험), 거주환경특성(주택점유형태, 지역사회유대)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에 대한 충족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오차의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 다중공선성²⁰⁾을 검증하였다.

1.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연구문제1]과 관련한 회귀식은 [표11]과 같다.

[연구문제1] 간접학대경험과 직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표 11] 연구문제1의 회귀식

$$\hat{Y}_i = \alpha + \beta_1 \times D_1 + \beta_2 \times D_2 + U$$

\hat{Y}_i : 외현화문제(i=1), 내재화문제(i=2), 학교생활만족도(i=3),
학업성취도(i=4)

D_1 : 직접학대경험(경험=1, 미경험=0)

D_2 : 간접학대경험(경험=1, 미경험=0)

U : 통제변수

$$\ln \frac{\hat{P}_i}{1 - \hat{P}_i} = \alpha + \beta_1 \times D_1 + \beta_2 \times D_2 + U$$

\hat{P}_i : 집단괴롭힘 가해경험(i=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i=2)

20)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은 VIF 지수, condition index, variance propotion을 확인하여 검증하였다.

- [연구가설 1-1]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1-2]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론적 모형과 기술통계, 상관관계의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종속변수인 아동발달에 미치는 다른 변수를 통제한 뒤,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아래 표에서 제시되었듯이, 가정폭력의 직·간접학대경험은 서로를 통제하고 난 뒤에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검증된 아동발달영역은 심리사회발달에서 외현화 및 내재화문제, 학교적응에서 학교생활만족도와 집단괴롭힘 가해 및 피해경험에서 유의미한 기댓값이 나타났다. 이 영역들에서는 아동특성, 부모특성, 거주환경특성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투입하고 난 후에도, 각각의 가정폭력 경험유형인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독자적으로 아동발달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Finkelhor et al., 2007).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을 살펴보면, F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는 외현화문제에서 25.1%, 내재화문제에서 13.1%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현화문제에서 가정폭력의 직·간접학대경험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beta = .241, p = .000$)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beta = .144, p = .000$)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가진다. [표12]에서 보듯이,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218만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090만큼 외현화문제 기댓값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외현화문제를 높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부모유대($\beta = -.286, p = .000$)와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beta = .070, p = .001$)이 아동의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가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180만큼,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면 .075만큼 아동의 외현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

다.

내재화문제에서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beta = .144$, $p = .000$)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beta = .070$, $p = .002$)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가진다. [표12]에서 보듯이,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147만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049만큼 내재화문제 기댓값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서로를 통제하더라도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아동성별($\beta = .072$, $p = .001$), 아동연령($\beta = .047$, $p = .031$), 부모유대($\beta = -.237$, $p = .000$), 주택점유형태($\beta = -.057$, $p = .009$)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이 여자이면 .051만큼, 아동이 한 살 증가하면 .007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168$ 만큼,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위 증가하면 $-.034$ 만큼, 아동의 내재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따라서,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외현화 및 내재화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1-1]은 지지되었다.

[표 12] 가정폭력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발달		외현화문제(0~3)			내재화문제(0~3)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경험	.218	.241***	.000	.147	.144***	.000
	간접학대경험	.090	.144***	.000	.049	.070**	.002
통제변수	아동성별 (0=남, 1=여)	-.009	-.015	.452	.051	.072**	.001
	아동연령	.003	.020	.322	.007	.047*	.031
	부모유대	-.180	-.286***	.000	-.168	-.237***	.000
	부모학력	.012	.038	.065	.005	.015	.497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75	.070**	.001	.042	.035	.113
	가구월소득	.001	.007	.726	.005	.038	.079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18	-.035	.086	-.034	-.057**	.009
	지역사회유대	-.022	-.032	.117	-.025	-.032	.140
모형	Constant	.625***			.528***		
	F	65.129***			29.852***		
	R^2	.251			.131		

학교적응의 학교생활만족도는 18.2%, 학업성취도는 9.0%의 모형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F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beta = -.099$, $p = .000$)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beta = -.104$, $p = .000$)은 일반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가진다. [표13]에서 보듯이,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135만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098만큼 학교생활만족도 기댓값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낮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통제변수의 경우, 아동성별($\beta = .055$, $p = .008$), 아동연령($\beta = -.083$, $p = .000$), 부모유대($\beta = .273$, $p = .000$), 부모학력($\beta = .086$, $p = .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beta = -.045$, $p = .032$), 가구월소득($\beta = .161$, $p = .000$)이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가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이 여자이면 .052만큼, 아동이 한 살 증가하면 -.017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256만큼, 부모학력이 한 수준 높아지면 .041만큼, 부모가 아동

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면 -.073만큼, 가구의 월소득이 한 수준 높아지면 .026만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기댓값은 변화한다.

학업성취도에서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과 통계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즉,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했을 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13]에서 보듯이, 통제변수의 경우, 아동연령($\beta = -.081$, $p = .000$), 부모유대($\beta = .220$, $p = .000$), 부모학력($\beta = .102$, $p = .000$), 주택점유형태($\beta = .070$, $p = .002$), 지역사회유대($\beta = .056$, $p = .012$)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이 한 살 증가하면 -.025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320만큼, 부모학력이 한 단위 증가하면 .075만큼,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위 증가하면 .086만큼, 지역사회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090만큼, 아동의 학업성취도 기댓값은 변화한다.

[표 13]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I

학교적응		학교생활만족도(0~3)			학업성취도(0~4)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경험	-.135	-.099***	.000	-.040	-.019	.411
	간접학대경험	-.098	-.104***	.000	-.039	-.027	.244
통제변수	아동성별 (0=남, 1=여)	.052	.055**	.008	-.028	-.019	.381
	아동연령	-.017	-.083***	.000	-.025	-.081***	.000
	부모유대	.256	.273***	.000	.320	.220***	.000
	부모학력	.041	.086***	.000	.075	.102***	.000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73	-.045*	.032	.073	.030	.185
	가구월소득	.026	.161***	.000	.010	.041	.068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04	.005	.828	.086	.070**	.002
	지역사회유대	-.037	-.036	.089	.090	.056*	.012
모형	Constant	1.814***			1.398***		
	F	43.578***			19.979***		
	$\overline{R^2}$.182			.090		

집단피록합 가해경험에서 Model Chi-square와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Model Chi-square 값은 상수항만으로 구성된 회귀모형의 $-2LL$ 값²¹⁾과 모든 독립변수가 포함된 회귀모형의 $-2LL$ 값과의 차이로써, 이를 카이제곱분포표에 비추어 p-value가 .05보다 작으면 ‘두 모형간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김태근, 2006). [표14]에서 보듯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의 Model Chi-square 값은 190.775이며 $p < .001$ 이므로, 영가설은 기각되고,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는 ‘관찰된 우도값(likelihood)과 완전한 모형의 우도값인 1과 다르지 않다’라는 영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Chi-Square=12.638, p-value=.125로서 영가설이 채택되었고, 분석모형은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Exp(B)=.393, $p=.000$)만이 일반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즉,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을 할 Odds가 .393배 또는 60.7%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아동연령(Exp(B)=.905, $p=.002$), 부모유대(Exp(B)=.335, $p=.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Exp(B)=.376, $p=.000$), 가구월소득(Exp(B)=.918, $p=.002$), 지역사회유대(Exp(B)=.587, $p=.002$)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Model Chi-square와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표14]에서 보듯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Model Chi-square 값은 148.170이며 $p < .001$ 이므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에서 Chi-Square=7.574, p-value=.476으로, 분석모형은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1) $-2LL$ 은 $-2 \times \text{Log(likelihood)}$ 이며 항상 양수값을 가지며 크기가 작을수록, 즉, 0에 가까울수록 모형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값이다(김태근, 2006).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text{Exp}(B)=.385$, $p=.000$)과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text{Exp}(B)=.146$, $p=.000$)은 일반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 즉,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385 또는 61.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서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146 또는 85.4%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아동연령($\text{Exp}(B)=.879$, $p=.011$), 부모유대($\text{Exp}(B)=.317$, $p=.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text{Exp}(B)=.494$, $p=.014$), 가구월소득($\text{Exp}(B)=.856$, $p=.002$)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다. 즉,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당할 Odds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가정폭력의 피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더 심각한 영향이 검증된 영역은 학교생활만족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었다. 따라서 학교생활만족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1-2]는 지지되었고, 학업성취도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1-2]는 기각되었다.

[표 14]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II (로지스틱 회귀분석)

		집단과 통합 가해경험					집단과 통합 피해경험				
		B	β	Wald	sig.	Exp(B)	B	β	Wald	sig.	Exp(B)
독립 변수	직접학대경험	-.934 ***	.176	28.312	.000	.393	-.955 ***	.258	13.704	.000	.385
	간접학대경험	-.167	.157	1.128	.288	.846	-1.925 ***	.375	26.318	.000	.146
통제 변수	아동성별 (0=남, 1=여)	.177	.151	1.375	.241	1.193	.444	.245	3.274	.070	1.558
	아동연령	-.100 **	.032	9.685	.002	.905	-.129 *	.051	6.470	.011	.879
	부모유대	-1.094 ***	.158	48.170	.000	.335	-1.150 ***	.251	21.004	.000	.317
	부모학력	-.045	.077	.339	.560	.956	-.137	.124	1.219	.269	.872
	부모아동기 폭력경험 (0=없음, 1=있음)	-.978 ***	.196	24.789	.000	.376	-.705 *	.285	6.094	.014	.494
	가구월소득	-.085 **	.028	9.444	.002	.918	-.156 **	.050	9.730	.002	.856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42	.122	.116	.734	1.042	.094	.188	.251	.616	1.099
	지역사회유대	-.533 **	.168	10.070	.002	.587	-.274	.278	.970	.325	.760
모형	Constant	5.162 ***	.831	38.611	.000	174.443	4.308 ***	1.282	11.301	.001	74.318
	-2LL	1250.446					554.302				
	Model Chi-Square	190.775***					148.170***				
	Hosmer and Lemeshow	Chi-Square=12.638, p-value=.125					Chi-Square=7.574, p-value=.476				
	Cox & Snell R^2	.095					.074				

2. 중복학대와 단일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1]에서 검증한 내용을 토대로 [연구문제2]에서는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을 일반아동 집단,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회귀식은 [표15]와 같다.

[연구문제2] 중복학대집단은 단일학대집단보다 아동발달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는가?

[표 15] 연구문제2의 회귀식

$$\hat{Y}_i = \alpha + \beta_1 \times D_1 + \beta_2 \times D_2 + \beta_3 \times D_3 + U$$

\hat{Y}_i : 외현화문제 (i=1), 내재화문제 (i=2), 학교생활만족도 (i=3),
학업성취도 (i=4)

D_1 : 직접학대만 (경험=1, 미경험=0)

D_2 : 간접학대만 (경험=1, 미경험=0)

D_3 : 일반아동 (일반아동=1, 학대경험=0)

U : 통제변수

$$\ln \frac{\hat{P}_i}{1 - \hat{P}_i} = \alpha + \beta_1 \times D_1 + \beta_2 \times D_2 + \beta_3 \times D_3 + U$$

\hat{P}_i :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i=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i=2)

[연구가설 2-1] 중복학대집단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2] 중복학대집단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3] 중복학대집단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아동의 학교적응

(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2-4] 중복학대집단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보다 아동의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이론적 모형과 기술통계, 상관관계의 분석결과와 [연구문제1]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발달에 미치는 다른 영향요인을 통제한 뒤, 일반아동 집단,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 중복학대를 경험한 집단에서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에서는 단일학대집단과 중복학대집단을 비교하기 위해, 가정폭력 경험유형을 일반아동,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연구의 초점이 중복학대집단을 단일학대 집단들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을 중복학대집단으로 하였다. 이러한 설정에 따라 회귀식에는 ‘중복학대’ 변수가 아닌 ‘일반아동’ 변수를 투입하였다. 이에 따른 집단별 분류는 아래 [표16]과 같다.

[표 16] 학대경험유형별 더미코딩에 의한 집단분류

학대경험유형	D_1	D_2	D_3
일반아동	0	0	1
간접학대만	0	1	0
직접학대만	1	0	0
중복학대(reference group)	0	0	0

심리사회발달에서 모형적합도를 살펴보면, 외현화문제는 25.1%, 내재화문제는 13.0%, 의 설명력을 가지고, F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은 내재화문제보다 외현화문제를 더 많이 설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외현화문제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beta = -.321$, $p = .000$)과 일반아동($\beta = -.479$, $p = .000$)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표17]에서 보듯이,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207만큼 외현화문제 기댓값이 낮았다.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중복학대를 경

험한 아동과 외현화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부모유대($\beta = -.286, p = .000$)와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beta = .069, p = .001$)이 아동의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180$ 만큼,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면 $.074$ 만큼 아동의 외현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내재화문제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beta = -.212, p = .000$)과 일반아동($\beta = -.283, p = .000$)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표17]에서 보듯이,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154$ 만큼 기댓값이 낮았다.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내재화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통제변수의 경우, 아동성별($\beta = .073, p = .001$), 아동연령($\beta = .046, p = .033$), 부모유대($\beta = -.237, p = .000$), 주택점유형태($\beta = -.057, p = .009$)가 아동의 내재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이 여자이면 $.052$ 만큼, 아동이 한 살 증가하면 $.007$ 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168$ 만큼,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위 증가하면 $-.034$ 만큼, 아동의 내재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연구가설2-1]은 기각되었다. 또한,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는 더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 [연구가설2-2]은 지지되었다.

[표 17] 중복학대와 단일학대 비교 I

심리사회발달		외현화문제 (0~3)			내재화문제 (0~3)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059	-.036	.114	-.068	-.037	.133
	간접학대만	-.207	-.321***	.000	-.154	-.212***	.000
	일반아동	-.301	-.479***	.000	-.200	-.283***	.000
통제변수	아동성별 (0=남, 1=여)	-.010	-.016	.429	.052	.073**	.001
	아동연령	.003	.021	.301	.007	.046*	.033
	부모유대	-.180	-.286***	.000	-.168	-.237***	.000
	부모학력	.012	.038	.062	.005	.015	.503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74	.069**	.001	.042	.035	.108
	가구월소득	.001	.007	.715	.005	.038	.081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19	-.035	.082	-.034	-.057***	.009
	지역사회유대	-.022	-.032	.115	-.025	-.032	.141
모형	Constant	.923***			.730***		
	F	59.276***			27.144***		
	R^2	.251			.130		

* p<.05, ** p<.01, *** p<0.001

학교적응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18.7%, 학업성취도는 9.1%의 모형적합도를 가지고, F값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이 학업성취도보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더 높게 설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beta = .121$, $p = .000$),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beta = .212$, $p = .000$), 일반아동($\beta = .293$, $p = .000$)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표18]에서 보듯이,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292만큼,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204만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아동성별($\beta = .051$, $p = .014$), 아동연령($\beta = -.079$, $p = .000$), 부모유대($\beta = .272$, $p = .000$), 부모학력($\beta = .087$, $p = .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beta = -.050$, $p = .017$), 가구월소득($\beta = .163$, $p = .00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이 여자이면 .048만큼, 아동이 한 살 증가하면 -.016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255

만큼, 부모학력이 한 단계 높아지면 .041만큼,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면 -.081만큼, 가구의 월소득이 한 수준 높아지면 .026만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기댓값은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더 불만족하였고,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연구가설2-3]은 지지되었다. 또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더 불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검증되어,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연구가설2-4]은 지지되었다.

학업성취도에서는 [표18]에서 보듯이 투입된 학대경험 변수들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즉,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간에 학업성취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문제1]에서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간에도 학업성취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과의 비교에서도 학업성취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제변수의 경우, 아동연령($\beta = -.084$, $p = .000$), 부모유대($\beta = .221$, $p = .000$), 부모학력($\beta = .101$, $p = .000$), 주택점유형태($\beta = .071$, $p = .002$), 지역사회유대($\beta = .056$, $p = .011$)가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가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이 한 살 증가하면 -.026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320만큼, 부모학력이 한 단위 증가하면 .075만큼,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위 증가하면 .087만큼, 지역사회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090만큼, 아동의 학업성취도 기댓값은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학업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학업성취도에서 [연구가설2-3]은 기각되었다. 또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학업성취도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학업성취도에서 [연구가설2-4]은 기각되었다.

[표 18] 중북학대와 단일학대 비교 II

학교적응		학교생활만족도(0~3)			학업성취도(0~4)		
		B	β	sig.	B	β	sig.
독립 변수	직접학대만	.292	.121***	.000	-.127	-.034	.180
	간접학대만	.204	.212***	.000	-.019	-.013	.739
	일반아동	.275	.293***	.000	.042	.029	.472
통제 변수	아동성별 (0=남, 1=여)	.048	.051*	.014	-.025	-.017	.435
	아동연령	-.016	-.079***	.000	-.026	-.084***	.000
	부모유대	.255	.272***	.000	.320	.221***	.000
	부모학력	.041	.087***	.000	.075	.101***	.000
	부모아동기 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81	-.050*	.017	.080	.032	.149
	가구월소득	.026	.163***	.000	.010	.040	.072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02	.003	.894	.087	.071***	.002
	지역사회유대	-.038	-.037	.081	.090	.056*	.011
모형	Constant	1.522***			1.371***		
	F	41.042***			18.505***		
	R ²	.187			.091		

* p<.05, ** p<.01, *** p<0.001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Model Chi-square와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표19]에서 보듯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의 Model Chi-square 값은 191.881이며 $p < .001$ 이므로, 영가설은 기각되고,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 결과, Chi-Square=9.419, p -value=.308로서 영가설이 채택되었고, 분석모형은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Exp(B)=2.261, p =.000)이 중북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기댓값이 유의미하게 다르다. 즉,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중북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집단괴롭힘 가해행위를 할 Odds가 2.261배 또는 126.1%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아동연령(Exp(B)=.907, p =.003), 부모유대(Exp(B)=.334, p =.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Exp(B)=.383, p =.000), 가구월소득(Exp(B)=.918, p =.002), 지역사회유대(Exp(B)=.587, p =.001)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 아동의 학교적응에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2-3]은 기각되었다. 또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을 오히려 덜 할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2-4]은 기각되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Model Chi-square와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를 통해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았다. [표19]에서 보듯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Model Chi-square 값은 130.324이며 $p < .001$ 이므로,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 결과, Chi-Square=8.784, p -value=.361로서, 분석모형은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text{Exp}(B)=1.998$, $p=.008$)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즉,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중복경험을 경험한 아동에 비해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1.998배 또는 99.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에서 아동연령 ($\text{Exp}(B)=.895$, $p=.027$), 부모유대 ($\text{Exp}(B)=.308$, $p=.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 ($\text{Exp}(B)=.499$, $p=.014$), 가구월소득 ($\text{Exp}(B)=.852$, $p=.001$)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즉,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증가할수록,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당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 중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0' 명으로 나타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2-3]은 검증할 수 없었다. 또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을 오히려 덜 할 것으로 나타나서,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2-4]은 기각되었다.

위에서 살펴본 학교적응의 가설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구가설2-3]는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지지되었고, 학업성취도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는 기각되었으며,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은 검증할 수 없었다. [연구가설2-4]는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지지되었고, 학업성취도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기각되었다.

[표 19] 중복학대와 단일학대의 비교Ⅲ(로지스틱 회귀분석)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B	β	Wald	sig.	Exp(B)	B	β	Wald	sig.	Exp(B)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²²⁾	-.135	.324	.173	.678	.874	-	-	-	-	-
	간접학대만	.816***	.209	15.296	.000	2.261	.692**	.260	7.074	.008	1.998
	일반아동	1.070***	.225	22.685	.000	2.917	2.255***	.411	30.138	.000	9.535
통제변수	아동성별 (0=남, 1=여)	.183	.151	1.475	.225	1.201	.423	.244	3.008	.083	1.526
	아동연령	-.097**	.032	9.030	.003	.907	-.111*	.050	4.880	.027	.895
	부모유대	-1.096***	.158	48.225	.000	.334	-1.177***	.245	23.157	.000	.308
	부모학력	-.043	.077	.310	.578	.958	-.120	.123	.954	.329	.887
	부모아동기 폭력경험 (0=없음, 1=있음)	-.959***	.197	23.736	.000	.383	-.696*	.284	6.013	.014	.499
	가구월소득	-.085**	.028	9.457	.002	.918	-.160**	.050	10.334	.001	.852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33	.122	.075	.784	1.034	.021	.182	.013	.908	1.021
	지역사회유대	-.538**	.168	10.246	.001	.584	-.344	.269	1.641	.200	.709
모형	Constant	3.296**	1.015	10.535	.001	27.006	1.160	1.439	.650	.420	3.189
	-2LL	1249.339					572.148				
	Model Chi-Square	191.881***					130.324***				
	Hosmer and Lemeshow	Chi-Square=9.419, p-value=.308					Chi-Square=8.784, p-value=.361				
	Cox & Snell R^2	.095					.066				

* p<.05, ** p<.01, *** p<0.001

22)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0' 명이므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3]은 [연구문제2]에서의 회귀모형을 남녀 아동 집단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회귀식은 [표20]과 같다.

[연구문제3]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가?

[표 20] 연구문제3의 회귀식

<남자 vs 여자 아동집단을 분리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모형을 분석함>

$$\hat{Y}_i = \alpha + \beta_1 \times D_1 + \beta_2 \times D_2 + \beta_3 \times D_3 + U$$

\hat{Y}_i : 외현화문제 (i=1), 내재화문제 (i=2), 학교생활만족도 (i=3), 학업성취도 (i=4)

D_1 : 직접학대만 (경험=1, 미경험=0)

D_2 : 간접학대만 (경험=1, 미경험=0)

D_3 : 일반아동 (일반아동=1, 학대경험=0)

U : 통제변수

$$\ln \frac{\hat{P}_i}{1 - \hat{P}_i} = \alpha + \beta_1 \times D_1 + \beta_2 \times D_2 + \beta_3 \times D_3 + U$$

\hat{P}_i :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i=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i=2)

[연구가설 3-1]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외현화/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가설 3-2] 아동의 성별에 따라 중복학대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학교생활만족도/학업성취도/집단괴롭힘 가해경험/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연구문제3]에서는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남·녀 집단을 분리하여 [연구문제2]에서 한 분석과정을 동일하게 실행하였다.

외현화문제에서 남녀집단별로 분석해본 결과, F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는 남자아동은 21.2%, 여자아동은 30.1%로, 여자아동집단에서 더 설명력이 높았다. [표21]에서 보듯이, 남녀 모두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는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즉,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보다 외현화문제가 .216만큼 낮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199만큼 외현화문제가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아동 모두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심각한 외현화문제를 보임을 의미하며,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르지는 않았다.

통계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남자아동에서는 부모유대($\beta = -.278$, $p = .000$)와 주택점유형태($\beta = -.060$, $p = .036$)가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177만큼,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계 상승하면 -.032만큼 아동의 외현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여자아동에서는 부모유대($\beta = -.300$, $p = .000$), 부모학력($\beta = .062$, $p = .030$), 부모아동기폭력경험($\beta = .087$, $p = .002$)이 외현화문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186만큼, 부모학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 .019만큼,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088만큼, 아동의 외현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아동의 외현화문제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고, 외현화문제에서 [연구가설3-1]은 기각되었다.

[표 21]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I

외현화문제 (0~3)		남			여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053	-.029	.368	-.059	-.042	.213
	간접학대만	-.216	-.316***	.000	-.199	-.333***	.000
	일반아동	-.284	-.431***	.000	-.322	-.542***	.000
통제변수	아동연령	.004	.030	.289	.001	.009	.752
	부모유대	-.177	-.278***	.000	-.186	-.300***	.000
	부모학력	.005	.016	.575	.019	.062*	.030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61	.054	.060	.088	.087**	.002
	가구월소득	.001	.010	.740	.000	.000	.999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32	-.060*	.036	-.002	-.003	.907
	지역사회유대	-.021	-.029	.317	-.019	-.029	.309
모형	Constant	.950***			.880***		
	F	28.264***			39.983***		
	R^2	.212			.301		

* p<.05, ** p<.01, *** p<0.001

내재화문제에서 남녀집단별로 분석해본 결과, F값이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는 남자아동은 8.1%, 여자아동은 19.5%로 나타나, 여자아동에서 훨씬 더 설명력이 높았다. 남자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일반아동에서, 여자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일반아동에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표22]에서 보듯이,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보다 .128만큼 내재화문제 기댓값이 낮았다. 직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136만큼 내재화문제 기댓값이 낮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189만큼 내재화문제 기댓값이 낮았다. 따라서, 남·녀 모두 공통적으로 중복학대집단이 단일학대집단보다 심각한 내재화문제를 보이며, 남녀간의 패턴은 다르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남자아동에서는 부모유대($\beta = -.191$, $p = .000$)와 주택점유형태($\beta = -.076$, $p = .013$)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내재화문제 기댓값을 가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아동의 내재화문제 기댓값은 -.127만큼, 주택의 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계 상승하면 -.043만큼, 아동의 내재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여자아동에서는 아

동연령($\beta = .077$, $p = .012$), 부모유대($\beta = -.280$, $p = .000$), 부모아동기폭력경험($\beta = .077$, $p = .012$)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의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012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213만큼,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하면 .096만큼, 아동의 내재화문제 기댓값은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아동의 내재화문제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고, 내재화문제에서 [연구가설3-1]은 지지되었다.

중복학대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외현화문제에서는 [연구가설3-1]은 기각되었고, 내재화문제에서 [연구가설3-1]은 지지되었다.

[표 22]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II

내재화문제(0~3)		남			여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023	.012	.724	-.136	-.079*	.029
	간접학대만	-.128	-.180***	.001	-.189	-.256***	.000
	일반아동	-.161	-.234***	.000	-.250	-.343***	.000
통제변수	아동연령	.002	.013	.676	.012	.077*	.012
	부모유대	-.127	-.191***	.000	-.213	-.280***	.000
	부모학력	-.009	-.026	.404	.017	.046	.136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05	-.004	.891	.096	.077*	.012
	가구월소득	.003	.025	.418	.006	.049	.110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43	-.076*	.013	-.021	-.032	.298
	지역사회유대	-.002	-.003	.915	-.047	-.059	.056
모형	Constant	.717***			.815***		
	F	9.903***			22.983***		
	R^2	.081			.195		

* $p < .05$, ** $p < .01$, *** $p < 0.001$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중복학대경험이 남녀집단별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해보았다. 남녀집단별로 분석해본 결과, 둘다 F 값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는 남자아동은 17.8%, 여자아동은 18.5%로 나타나, 남녀에서 비슷한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집단 모두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일반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표23]에서 보듯이, 직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보다 .239만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보다 .190만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직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338만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228만큼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중복학대집단이 단일학대집단보다 불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녀간의 패턴은 다르지 않았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남자아동에서는 아동연령($\beta = -.077$, $p = .008$), 부모유대($\beta = .272$, $p = .000$), 부모학력($\beta = .106$, $p = .000$), 가구월소득($\beta = .170$, $p = .000$)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의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016$ 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251$ 만큼, 부모의 학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 $.051$ 만큼, 가구의 월소득이 한 단계 상승하면 $.028$ 만큼,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 기댓값은 변화한다. 여자아동에서는 아동연령($\beta = -.083$, $p = .008$), 부모유대($\beta = .269$, $p = .000$), 부모학력($\beta = .068$, $p = .027$), 가구월소득($\beta = .157$, $p = .000$)이 학교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댓값을 가진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의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016$ 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259$ 만큼, 부모의 학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 $.032$ 만큼, 가구의 월소득이 한 단계 상승하면 $.025$ 만큼, 학교생활만족도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중복학대경험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고,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연구가설3-2]은 기각되었다.

[표 23]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Ⅲ

학교생활만족도(0~3)		남			여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239	.089**	.006	.338	.155***	.000
	간접학대만	.190	.192***	.000	.228	.245***	.000
	일반아동	.244	.255***	.000	.315	.343***	.000
통제변수	아동연령	-.016	-.077**	.008	-.016	-.083**	.008
	부모유대	.251	.272***	.000	.259	.269***	.000
	부모학력	.051	.106***	.000	.032	.068*	.027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73	-.045	.127	-.091	-.058	.060
	가구월소득	.028	.170***	.000	.025	.157***	.000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20	.026	.368	-.020	-.024	.435
	지역사회유대	-.049	-.047	.109	-.028	-.027	.372
모형	Constant	1.492***			1.611***		
	F	22.912***			21.526***		
	R^2	.178			.185		

* p<.05, ** p<.01, *** p<0.001

학업성취도에서 남녀집단별로 분석해본 결과, 모두 F값이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고, 모형적합도는 남자아동은 9.4%, 여자아동은 10.0%로, 남녀에서 비슷한 정도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집단에서는 단일학대집단과 중복학대집단 간에 학업성취도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여아집단에서는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이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다른 학업성취도 기댓값을 갖는다.

[표24]에서 보듯이, 직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311만큼 학업성취도 기댓값이 낮았다.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보다 오히려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과는 심층적으로 좀더 고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일단 학업성취도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는 검증되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남자아동에서는 아동연령($\beta = -.092$, $p = .003$), 부모유대($\beta = .203$, $p = .000$), 부모학력($\beta = .129$, $p = .000$), 가구월소득($\beta = .084$, $p = .007$), 지역사회유대($\beta = .094$, $p = .002$)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의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029$ 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287$ 만큼, 부모의 학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 $.095$ 만큼, 가구월소득이 한 단계 상승하면 $.021$ 만큼, 지역사회유대가

한 단위 상승하면 .152만큼,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변화한다. 여자아동에서는 아동 연령($\beta = -.073$, $p = .025$), 부모유대($\beta = .243$, $p = .000$), 부모학력($\beta = .064$, $p = .049$), 주택점유형태($\beta = .103$, $p = .002$)가 학업성취도에서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동의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022$ 만큼, 부모유대가 한 단위 증가하면 .368만큼, 부모학력이 한 단계 상승하면 .047만큼, 주택점유형태가 자가소유형태로 한 단계 상승하면 .132만큼, 학업성취도는 변화한다.

가설검증 결과, 중복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고, 학업성취도에서 [연구가설3-2]은 지지되었다.

[표 24]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IV

학업성취도(0~4)		남			여		
		B	β	sig.	B	β	sig.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052	.013	.707	-.311	-.091*	.017
	간접학대만	.048	.031	.544	-.112	-.077	.184
	일반아동	.047	.032	.553	.022	.015	.802
통제변수	아동연령	-.029	-.092**	.003	-.022	-.073*	.025
	부모유대	.287	.203***	.000	.368	.243***	.000
	부모학력	.095	.129***	.000	.047	.064*	.049
	부모아동기폭력경험 (0=없음, 1=있음)	.082	.033	.289	.075	.030	.344
	가구월소득	.021	.084**	.007	-.002	-.007	.828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53	.044	.146	.132	.103**	.002
	지역사회유대	.152	.094**	.002	.013	.008	.795
모형	Constant	1.260***			1.477***		
	F	11.468***			11.102***		
	\overline{R}^2	.094			.100		

* $p < .05$, ** $p < .01$, *** $p < .001$

집단피륙험 가해경험에서 남녀집단별로 모형적합도를 Model Chi-Square로 분석해본 결과, [표25]에서 보듯이, 남자아동($\chi^2 = 97.971$, $p = .000$)과 여자아동 집단($\chi^2 = 107.215$, $p = .000$) 모두 영가설은 기각되고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 결과, 남자아동(χ^2

=8.324, $p=.402$)과 여자아동집단($\chi^2=11.253$, $p=.188$) 모두 영가설이 채택되었고, 분석모형은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text{Exp}(B)=2.830$, $p=.000$)만이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보였고, 여자아동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보다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Odds가 2.830배 또는 183% 높아지고, 여자아동은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이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남녀아동간에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남자아동에서는 아동연령($\text{Exp}(B)=.888$, $p=.005$), 부모유대($\text{Exp}(B)=.409$, $p=.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text{Exp}(B)=.447$, $p=.003$), 지역사회유대($\text{Exp}(B)=.587$, $p=.013$)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가진다. 즉, 아동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지역사회유대가 높을수록, 아동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자아동에서는 부모유대($\text{Exp}(B)=.197$, $p=.000$),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text{Exp}(B)=.329$, $p=.000$), 가구월소득($\text{Exp}(B)=.835$, $p=.000$)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는다. 즉,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 중복학대경험이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고,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3-2]은 지지되었다.

[표 25]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 V (로지스틱 회귀분석)

집단괴롭힘가해경험		남					여				
		B	β	Wald	sig.	Exp(B)	B	β	Wald	sig.	Exp(B)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430	.463	.864	.353	1.537	-.905	.475	3.627	.057	.404
	간접학대만	1.040***	.275	14.344	.000	2.830	.399	.338	1.396	.237	1.491
	일반아동	1.150***	.283	16.473	.000	3.157	.934*	.380	6.037	.014	2.545
통제변수	아동연령	-.119**	.042	7.843	.005	.888	-.073	.051	2.035	.154	.929
	부모유대	-.895***	.194	21.201	.000	.409	-1.624***	.290	31.277	.000	.197
	부모학력	-.148	.100	2.197	.138	.862	.077	.121	.404	.525	1.080
	부모아동기 폭력경험 (0=없음, 1=있음)	-.805**	.272	8.772	.003	.447	-1.110***	.292	14.443	.000	.329
	가구월소득	-.033	.034	.946	.331	.968	-.181***	.051	12.678	.000	.835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12	.155	.006	.940	1.012	.164	.208	.620	.431	1.178
	지역사회유대	-.549*	.221	6.168	.013	.578	-.394	.268	2.167	.141	.674
	Constant	2.841*	1.265	5.043	.025	17.138	4.345**	1.683	6.663	.010	77.108
모형	-2LL	718.732					512.999				
	Model Chi-Square	97.971***					107.215***				
	Hosmer and Lemeshow	Chi-Square=8.324, p-value=.402					Chi-Square=11.253, p-value=.188				
	Cox & Snell R^2	.092					.112				

* p<.05, ** p<.01, *** p<0.001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남녀집단별로 모형적합도를 Model Chi-Square로 분석해본 결과, [표26]에서 보듯이, 남자아동($\chi^2=108.439$, $p=.000$)과 여자아동 집단($\chi^2=34.681$, $p=.000$) 모두 영가설은 기각되고, 적합한 모형임이 검증되었다. Hosmer and Lemeshow의 Goodness-of-fit Test 결과, 남자아동($\chi^2=13.744$, $p=.089$)과 여자아동집단($\chi^2=14.084$, $p=.080$) 모두 영가설이 채택되었고, 분석모형은 완전한 모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독립변수들을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text{Exp}(B)=3.217$, $p=.000$)만이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과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갖고, 여자아동은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즉, 간접학대만 경험한 남자아동은 중복학대를 경험한 남자아동보다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3.217배 또는 221.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해경험에서와 동일한 양상이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도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

증되었다.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남자아동에서는 부모유대 ($\text{Exp}(B)=.265, p=.000$), 가구월소득 ($\text{Exp}(B)=.770, p=.001$)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가진다. 즉,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가구의 월소득이 높을수록, 아동이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자아동에서는 아동연령 ($\text{Exp}(B)=.822, p=.021$), 부모유대 ($\text{Exp}(B)=.348, p=.020$), 부모학력 ($\text{Exp}(B)=.631, p=.029$), 부모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 ($\text{Exp}(B)=.335, p=.013$)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유의미하게 다른 기댓값을 가진다. 즉,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부모유대가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모가 아동기에 가정폭력을 경험했을 때, 아동이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가설검증 결과, 중복학대경험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었고,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3-2]는 지지되었다.

중복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연구가설3-2]는 기각되었고, 학업성취도,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3-2]는 지지되었다.

[표 26]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VI (로지스틱 회귀분석)

집단괴롭힘피해경험		남					여				
		B	β	Wald	sig.	Exp(B)	B	β	Wald	sig.	Exp(B)
독립변수	직접학대만 ²³⁾	—	—	—	—	—	—	—	—	—	—
	간접학대만	1.169***	.335	12.148	.000	3.217	-.097	.472	.042	.838	.908
	일반아동	2.917***	.559	27.218	.000	18.493	1.215	.643	3.571	.059	3.370
통제변수	아동연령	-.058	.064	.819	.366	.944	-.196*	.085	5.323	.021	.822
	부모유대	-1.327***	.312	18.091	.000	.265	-1.055*	.454	5.400	.020	.348
	부모학력	.089	.159	.316	.574	1.094	-.461*	.211	4.772	.029	.631
	부모아동기 폭력경험 (0=없음, 1=있음)	-.482	.388	1.544	.214	.618	-1.093*	.440	6.161	.013	.335
	가구월소득	-.255***	.074	11.871	.001	.775	-.041	.070	.339	.560	.960
	주택점유형태 (0=월세, 3=자가)	.066	.235	.079	.778	1.068	-.171	.292	.345	.557	.843
	지역사회유대	-.398	.356	1.250	.264	.672	-.168	.438	.148	.701	.845
	Constant	-.407	1.781	.052	.819	.666	4.606	2.410	3.651	.056	100.059
모형	-2LL	323.855					230.049				
	Model Chi-Square	108.439***					34.681***				
	Hosmer & Lemeshow	Chi-Square=13.744, p-value=.089					Chi-Square=14.084, p-value=.080				
	Cox & Snell R^2	.102					.038				

* p<.05, ** p<.01, *** p<0.001

23)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 중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은 '0' 명이므로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제 6 장 결론

제 1 절 논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가설검증 결과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 학교적응에서 영향을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탐색하였다.

아동의 외현화문제에서 [연구가설1-1]은 지지되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인 아동학대는 아동의 외현화문제를 증가시킨다고 하였고(이경주·신효식, 1998), 가정폭력을 목격만하게 되는 아동도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외현화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했다(조미숙, 1999; Renner, 2005),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고,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외현화문제를 높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아동의 내재화문제에서 [연구가설1-1]은 지지되었는데,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은 자아존중감이 낮고, 소심하고, 우울하며, 정서적으로 불안한 내재화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고(곽영숙·홍강의, 1987; 백혜정·황혜정, 2006),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목격한 아동도 수치심과 부정적인 자아상, 죄책감 등의 심리적인 문제를 갖게 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했다(조미숙, 1999; 장희숙, 2010; 박명숙, 2011).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는데,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의 내재화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것이 밝혀졌다.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연구가설1-2]는 지지되었는데,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선행연구는 드물지만, 직접적인 아동학대 경험의 많을수록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이 지연되어 학교적응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배화옥, 2010), 간접적인 학대경험을 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여 학교적응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연구(조미숙, 1999; 장희숙, 2010)들에 비추어보면,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이 다르다는 점에서 후속적으로 이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을 동시에 투입하고도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서 [연구가설1-2]는 기각되었는데,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직접적인 학대를 당한 아동은 인지적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업수행능력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고(Karestan et al., 2003),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부모와 불안정한 유대를 맺게 되고 이것이 아동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Hollingsworth et al., 2007; 이호택, 2012). 이렇게 학업성취도에 가정폭력의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아동의 학업성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어(이복희, 2007; 조춘범·조남홍, 2011; 이호택, 2012에서 재인용)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독립변수를 가정폭력의 경험유형에 따라 나누고 함께 투입하여 분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후속연구에서 보완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1-2]는 기각되었는데,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집단괴롭힘 가해행위를 할 Odds가 낮았고,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과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에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김소명·현명호, 2004)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폭력적인 부모와 함께 사는 아동이 오히려 집단괴롭힘 가해행위를 덜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창훈·송주영, 2009).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에 대해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후속연구에서 면밀한 분석결과와 함께 살펴봄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1-2]는 지지되었는데, 직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낮았고,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도 일반아동보다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과 집단괴롭힘 피해가능성

사이의 상관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Lepist et al., 2011)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직접학대는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단지 정서조절과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을 뿐이라고 보고한 연구(김소명·현명호, 2004)와는 불일치한다. 아직 가정폭력 노출유형과 집단괴롭힘 피해경험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함을 밝혀낸 것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아동의 심리사회발달과 학교적응의 영역에서 가정폭력의 경험유형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 학교생활만족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에서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기능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즉, 검증된 아동발달의 영역에서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은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동등한 학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발견은 아직 직접학대와 간접학대의 영향력이 서로 독립적인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않은 실정에서 (Kitzmann et al., 2003; 문영희, 2010; 조미숙, 2012), 후속연구와 실천현장에 의미있는 결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중복학대와 단일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1]에서는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이 서로의 영향을 통제하고도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동등한 학대유형인지 검증하였다. [연구문제2]에서는 중복학대집단과 단일학대집단과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연구문제2]에서는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으로 나누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제로 가정폭력의 유형들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간접학대만을 경험한 것과 직접학대만을 경험한 것으로 분리하여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즉, 가족 내 구성원 중에서 누구는 직접 맞기만 하고, 누구는 보기만 하는 상황이 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 유형의 학대만 경험하는 사례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가정폭력을 목격만 하거나, 목격은 하지 않고 맞기만 하는 아동도 보고되고 있다 (Hollingsworth et al., 2007). 이렇게 쪼개어 학대경험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단일학대들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하며, 복잡하게 얽힌 현상을 단순화

해서 살펴봄으로써 학대경험의 본질을 보다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복적인 영역을 분리해낸 단일학대경험으로 ‘직접학대만’과 ‘간접학대만’을 변수로 투입하였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설검증 결과를 살펴 봐야 한다.

아동의 외현화문제에서 [연구가설2-1]은 기각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외현화문제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지 않았다. 또한, [연구가설2-2]은 지지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더 심각한 외현화문제를 나타냈다. 즉,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문제가 비슷한 수준이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외현화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의 외현화문제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것으로도 충분히 중복학대를 경험한 것에 준하는 발달손상을 입을 수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이 간접학대를 추가적으로 경험할 때는 아동의 외현화문제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이 직접학대를 추가적으로 경험할 때는 외현화문제가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부부폭력과 아동학대를 중복경험하는 아동은 폭력에 더 오래 노출되어서 외현화문제 수준이 매우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노충래·이신옥, 2003)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학대를 목격만한 아동은 직접당한 아동보다 폭력행위에 더 강화될 수 있어 외현화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Renner, 2005)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 연구와 같이 가정폭력 경험유형을 직접학대만, 간접학대만, 중복학대로 나누어 비교한 연구가 드물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단순히 목격만 하게 되는 것보다 심리적인 문제에 상관될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Martinez & Richters, 2003; 김소명·현명호, 2004에서 재인용)에 비추어 볼 때, 직접학대만 경험하는 것이 간접학대만 경험하는 것보다 외현화문제에 더 상관될 수 있고, 중복학대경험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것이 간접학대만 경험한 것보다 더 본질적일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아동의 내재화문제에서 [연구가설2-1]은 기각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내재화문제에서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구가설2-2]은 지지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더 심각한 내재화문제를 나타냈다. 즉, 아동의 내재화문제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것으로도 충분히 중복학대를 경험한 것에 준하는 발달손상을 입

을 수 있고,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이 간접학대를 추가적으로 경험할 때는 아동의 내재화문제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이 직접학대를 추가적으로 경험할 때는 내재화문제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경험에서 단일학대경험보다 더 부정적인 내재화문제(우울, 불안 등)를 보이고 있음을 보고한 연구(김재엽 외, 2010)와 불일치하는 결과이며,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온 아동의 심리적인 외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보고한 연구(장연집, 2010)와도 완벽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목격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를 나타냄을 보고한 연구(Martinez & Richters, 2003; 김소명·현명호, 2004에서 재인용)와 일치하는 면이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후속연구에서 보다 많은 검토와 탐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본 연구결과는 후속연구를 촉진하는 근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연구가설2-3]와 [연구가설2-4]는 지지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중복학대집단이 단일학대집단보다 더 불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와 완전히 일치하는 선행연구는 드물지만, 가정폭력 경험이 아동의 학교적응을 어렵게 한다는 선행연구들(조미숙, 1999; 이호택, 2012)을 참조할 때, 중복학대경험은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를 더 낮출 수 있는 요인일 수 있다. 간접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사회적 능력이 저하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조미숙, 1999)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아질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와의 유대를 약화시켜 학교적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이는데(이호택, 2012), 이러한 결과로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복경험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기존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는 일치하고 있으며, 보다 세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서 [연구가설2-3]와 [연구가설2-4]는 모두 기각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학업성취도에서 차이가 없었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도 차이가 없었다. 이는 중복경험집단과 단일학대집단은 학업성취도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경험해온 아동은 두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인지적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였고(장연집,

2010), 중복학대경험으로 심화된 내재화문제들이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하여 인지언어발달의 영역에서 손상을 입을 수 있어(Karestan et al., 2003) 학업수행능력이 낮을 수 있다고 보고해 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비추어 중복학대경험이 아동의 학업성취도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상식적으로 예측하게 되지만, 본 연구결과는 중복경험집단과 단일학대집단에서 비슷한 학업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에 이르는 수많은 경로와 변인들로 인해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검증되는 것은 아니며(유효현, 2006; 이호택, 2012), 학대경험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자기효능감이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나은숙 외, 2006), 후속연구에서 더 보완된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아개념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데이터상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해석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의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2-3]는 기각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연구가설2-4]는 기각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집단괴롭힘 가해행위를 하게 될 Odds가 오히려 낮았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일수록 학교에서 집단괴롭힘 행위에 더 많이 가담하게 되고(이승출, 2012), 학교에서 심리적인 폭력이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도기봉, 2008) 보고되고 있지만,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중복학대경험과 단일학대경험간의 차이를 보고한 연구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다소 비상식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간에 집단괴롭힘의 가해행위에서 차이가 없었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발견은 가정폭력의 노출형태에 따라 아동의 집단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며(김소명·현명호, 2004), 집단괴롭힘 중재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가정폭력 경험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연구문제1에서도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을 동시에 투입하여도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이 일반아동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 더 정밀하게 밝혀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2-3]는 기각되었는데,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 중에서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아동이 없어서 비교할 수 없었다. 또한, [연구가설2-4]는 기각되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

험한 아동보다 집단괴롭힘 피해를 경험하게 될 Odds가 오히려 더 낮았다.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학교에서 집단괴롭힘 피해를 더 많이 당하게 되고 (Holt et al., 2007), 가정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Hamby et al., 2010). 즉, 심리사회적으로 더 손상된 아동은 또래집단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변귀연, 2002)고 알려져 왔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중복학대경험을 단일학대경험과 비교한 것은 아니므로 본 연구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좀 보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간에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오히려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러한 발견은, 집단괴롭힘 가해경험과 마찬가지로, 중재프로그램에서 가정폭력 경험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후속연구에서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학대만 경험한 집단과 직접학대만 경험한 집단으로 나누어 단일학대집단과 중복학대집단에서 아동에게 나타나는 발달손상을 탐색하였다. 이러한 탐색은 기존의 선행연구가 파악해 내지 못한 측면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 (Van Arsdale, 2010), 바로 중복학대, 직접학대만,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간에 나타나는 차별적인 발달손상을 검토해 본 것이다. 즉, 외현화문제, 내재화문제,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의 아동발달영역에서는 직접학대만 경험한 것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것이 거의 동등한 위험으로 나타났고,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각 학대경험유형들이 모두 다른 정도의 위험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학업성취도에서는 세 가지 학대경험들이 가지는 위험의 정도가 모두 비슷한 수준이었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의 수가 '0' 이어서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을 비교할 수 없었지만,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의 차이는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접학대와 직접학대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서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고, 중복학대에서 간접학대와 직접학대가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실험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하였다.

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아동발달의 차이

[연구문제2]은 아동발달에서 중복학대집단이 단일학대집단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탐색하였다. [연구문제3]에서는 남녀 아동으로 나누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 인간의 발달은 남녀의 성차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며, 가정폭력 경험은 아동의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조미숙, 2012). 구체적으로 아동발달의 하위영역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가정폭력 중복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하였다.

아동의 외현화문제에서 [연구가설3-1]은 기각되었는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간의 패턴이 다르지 않았다. 남녀아동 모두,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 외현화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과는 외현화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남자아동이 여자아동보다 가정폭력의 피해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외현화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Wolfe et al., 1995; 신혜섭, 2000에서 재인용), 중복학대를 경험한 자녀의 외현화문제에서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한 연구(김정란, 2003)를 보면, 외현화문제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이 외현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의 패턴이 남녀아동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후속적인 연구에서 보다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의 내재화문제에서 [연구가설3-1]는 지지되었는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간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중복학대를 경험한 여자아동과 직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의 내재화문제에서 차이가 나타났고, 나머지 부분은 남자아동과 여자아동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에게서 남성보다 내재화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장희숙, 2010), 특히 중복학대경험은 여자아동의 내재화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노충래·이신옥, 2003).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은 일치하는 맥락이다. 그러나 7세 아동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연구한 결과, 남녀모두 정서장애에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Whitehead, 1979), 내재화문제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결과와 더불어, 중복학대경험이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 후속연구에서 지속적으로 밝혀내야 한다.

아동의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연구가설3-2]는 기각되었는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패턴이 다르지 않았다. 남녀모두,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더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고,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도 학교생활만족도가 낮았다.

가정폭력 피해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예상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의 영향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인 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보고한 연구들(Hughes & Barad, 1983; Porter & O' Leary, 1980; Rosenbaum & O' Leary, 1981; Wolfe et al., 1995; 신혜섭, 2000에서 재인용)을 바탕으로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남녀간에 발생하는 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보면, 사회적인 적응에서 남아와 여아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다. 이런 상반되는 결과는 후속연구에서 보다 보완된 연구결과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며, 후속적인 연구를 촉구하는 탐색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동의 학업성취도에서 [연구가설3-2]는 지지되었는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아동의 경우에만,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과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의 비교에서 학업성취도 차이가 검증되었다. [연구문제1]과 [연구문제2]에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가정폭력 경험유형의 영향이 전부 유의하지 않았던 것을 참조할 때, 이러한 결과는 매우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러나 검증된 결과는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직접학대만 경험한 아동보다 학업성취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비상식적인 결과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여자아동이 학대경험으로 인해 더 심각한 내재화문제를 갖게 되며, 이러한 내재화문제 때문에 학업수행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연구(이호택, 2012)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에서 드러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며, 사실 학업성취에 관련되는 요인은 매우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어서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쉽게 검증되지 않을 수 있음을(유효현, 2006) 고려할 때 매우 주목할만한 결과이다. 데이터상의 한계로 인해, 자기효능감과 같은 자아개념 변수를 통제하지 못했는데, 학대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나은숙 외, 2006)에 비추어볼 때, 본 연구의 비상식적인 결과를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후속연구에서 보완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직접학대만 경험한 여자아동'의 수가 44명²⁵⁾에 불과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액면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역시 후속연구

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아동의 집단괴롭힘 가해경험에서 [연구가설3-2]는 지지되었는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단일학대경험과 중복학대경험간의 비교에서, 남자아동에서만 차이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차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밝히고 있는데,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단일학대를 경험한 아동보다 집단괴롭힘 가해행위를 할 Odds가 낮다는 내용은 조금 의외의 결과이다. 집단괴롭힘 가해행위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보고되어 왔는데, 남자아동은 집단괴롭힘에서 더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를 사용하고, 여자아동은 보다 간접적인 관계내의 괴롭힘을 행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arano, 1995;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 또한 가정에서 폭력을 경험하고 목격하여 학습하게 되어도 폭력을 내면화하여 재현할 가능성은 남자아동에게서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성식·전신현, 2011).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서 밝혀진 남녀간의 차이를 고려할 때, 가정폭력의 중복경험이 집단괴롭힘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가해행위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어 후속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연구가설3-2]는 지지되었는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났다. 남자아동의 경우에만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간접학대만 경험한 아동에 비해 집단괴롭힘 피해를 당할 Odds가 더 낮았다.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 나타나는 아동의 성별 차이에 대해서는, 집단괴롭힘의 현상이 남녀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Marano, 1995; 변귀연, 2002에서 재인용)과 가정폭력피해를 학교에서 재현할 가능성이 남녀아동간에 다르다는 점(이성식·전신현, 2011)이 보고되고 있어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확률이 감소하는 본 연구결과는 보다 신중하게 해석해야 하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예상을 해보았다. 집단괴롭힘을 본인이 당했다고 응답한 확률(4.5%)은 가해행위를 했다고 응답한 확률(12.4%)보다 매우 낮았는데, 실제 피해아동은 자신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 있다. 학대피해가 가증될수록 사회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이 방해를 받게 되어 인지발달이 지연되고 왜곡될 수 있는데(장연집, 2010), 자신이 피해자임을 본인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능성이며, 이러한 맥락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25)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실제 조사한 사례수는 25명이다.

보다는 후속연구에서 좀더 보완된 결과와 비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중복경험과 단일경험을 비교하면서 남녀 아동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본 결과, 아동의 외현화문제와 학교생활만족도에서는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내재화문제, 학업성취도,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에서는 아동성별에 따른 차이가 밝혀졌다. 아동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밝혀진 영역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때 남녀아동간에 다른 방식으로 작동되거나, 남녀아동이 가정폭력에 대해서 다르게 대처하고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프로그램이 학대경험유형과 아동의 성차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전국 표본을 사용하여 대표성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 실태조사(2011)」의 데이터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층화 표집하여 수집한 대표성있는 자료이다. 가정폭력의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경험에 대해서 많은 선행연구들이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김재엽 외, 2010; 김정란, 2003), 이들의 연구결과는 대표성이 확보한 전국 data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웠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중복경험률은 24.9%(김재엽 외, 2010), 52.4%(김정란, 2003)로 나타나, 중복발생률에 대한 평균적인 값을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가정폭력을 중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은 10%정도일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주로 중복적인 피해화가 아동의 심리적인 손상이 중복적으로 발생한 피해경험으로 인해 심각해질 수 있음에 치우쳐 보고되는 경향이 있는데(Finkelhor et al, 2005; 2007; 2009), 본 연구는 이를 확장하여 아동발달의 심리사회영역과 학교 적응에서 발달손상을 탐색하였다. 내재화문제에 미치는 심각한 손상은 물론, 외현화문제, 학교생활만족도, 집단괴롭힘에서 가정폭력 중복경험이 미치는 심각성을 검증하여, 가정폭력의 연구가 아동발달 전반에 대해 보다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으며, 후속연구를 촉진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많지만, 중복적인 가정폭력의 경험을 단일학대경험과 함께 다루어 정밀한 분석결과를 보고한 연구는 드물다. 주로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함께 거론하여도 각각 영향을 따로 분석하였고(김형모·김영민, 2007), 중복적인 영향을 검증하여도(김재엽·송아영·한샘, 2010) 개별적인 학대경험과 중복적인 학대경험간의 관계에서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한 분석결과는 보고하지 못했었다. 본 연구는 각 개별적인 학대피해의 고유한 영향력을 검증하여, 간접적인 목격경험도 직접적인 학대경험과 동등하게 기능하면서 아동에게 손상을 미치고 있음을 밝혀냈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폭력을 직접 경험한 아동과 간접적으로 목격한 아동은 위험에 연결되는 맥락이 다르다고 개념화했다(Jenkins & Bell, 1997; 김소명·현명호, 2004에서 재인용). 또한,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단순히 목격만 하는 것에 비해 불안·우울·PTSD와 상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하며, 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모두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보고도 있다(Martinez & Richters, 1993; 김소명·현명호, 2004에서 재인용). 이렇듯 직접학대경험과 간접학대경험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어 왔으나, 이 두 학대경험이 본질적으로 서로 동등한 학대유형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검증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간접학대와 직접학대를 함께 고려한 결과로써, 직접학대와 더불어 간접학대도 동등하게 조명돼야 함을 촉구하였다.

2. 실천적 함의

본 연구의 분석결과, 간접학대경험이 직접학대경험에 준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가진 엄연한 피해화유형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가정폭력을 목격만 한 것도 아동발달에 광범위하게 손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검증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증적인 근거로서 기여할 것이다. 아직 목격피해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로 규정되지 않아 개입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어,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엄마가 쉼터에 입소하고자 할 때, 자신의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입소할 수 없어 폭력적인 아빠와 함께 어린 자녀를 두고 나오거나, 그냥 폭력적인 관계에 머물기도 한다(문영희, 2010). 또한, 부부폭력은 가정폭력관련 기관에서 개입하고 아동학대는 따로 전문기구에서 다루고 있어, 부부간에 폭력이 발생하여 가정폭력기관의 개입이 시작될 때에 목격만 한 자녀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었다(정혜숙, 2011). 즉, 목격만 한 자녀와 직접적인 학대 피해자를 동시에 개입할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갖추거나 통합적인 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개편해야 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폭력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다른 가족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을 사정해야 한다.

또한, 학교적응에서 가정폭력이 학교생활만족도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학업성취도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도 가정폭력을 사정해야 하고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학생에 대한 개입과

사정에서 가정폭력의 영향을 파악해내고 치료할 수 있는 가정폭력전문가를 학교 현장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장희숙, 2010). 특히 중복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그 피해가 학교생활만족도에서 보다 심각할 수 있으므로, 그들에 대한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그들이 성장한 후에도 피해가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적인 개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 제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첫째, 자료상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학대피해경험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서, 아동의 자아개념, 또래지지 및 사회적지지 의 영향을 함께 살펴보지 못한 제한점을 가진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아동의 자아개념과 또래지지와 같은 사회적지지가 가정폭력의 피해를 완화시키고 있는 보호요인인 것으로 보고한다(Heller et al., 1999; Perkins & Jones, 2004; 배화옥, 2010),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아동학대실태조사(2011)」의 데이터상의 한계로 이를 고려할 수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 결과와 해석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독립변수를 구성하는 부부폭력노출은 아동의 응답이 아니라 주양육자인 부모의 응답을 사용하였다. 부부폭력노출을 광범위하게 조작화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이 부부폭력을 목격했는지 안했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러한 측정상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연구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업성취도에 대해서 아동이 보고하는 전과목평균에 대한 주관적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여자아동의 중복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제로 학업적인 수행의 결과인 성적 자체를 측정한 것이 아니고, 아동이 보고한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면을 고려하여 해석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Polyvictimization 연구들은 보통 피해화의 개수를 중심으로 4개이상, 혹은, 11개 이상의 중복적인 피해경험을 중복피해로 조작화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본 연구는 직접학대와 간접학대의 두 유형의 중복경험을 조

작화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Polyvictimization 연구들에서 했던 것처럼 피해화유형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할 수 없으며, 이러한 독립변인에 대한 차이로 인해 선행연구들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기존의 Polyvictimization 연구들은 가정폭력에만 한정하여 사정한 것이 아니고 아동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피해유형들을 포괄하였는데, 본 연구는 가정폭력에만 한정하여 살펴보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중복피해화에 대한 외국의 연구들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Macmillan, 2009; Smith et al., 2003). 아동이 성장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 된다고 할 때,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은 사회의 질과 관련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향후 국내연구에서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가정폭력의 경험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가 피해를 예측한다는 중복피해화 메커니즘도 종단적인 연구를 통하여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에 따른 피해화 추적연구에서는 폭력노출 기간이 미래의 피해화에 영향을 주고 다른 부정적인 피해화의 귀결(consequences)에도 영향을 준다고 한다(Cherlin et al., 2004; Kaukinen & DeMaris, 2005; Anderson, 2010에서 재인용). 후속연구가 시간의 변화 속에서 피해화에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현상을 검증한다면, 학대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다 보완된 근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가정폭력 경험유형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다차원적인 영향을 통합적으로 그려내는 경로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관계 피해로 이어지는 경로(정익중, 2008), 비행에 이르는 경로(정익중·박현선·구인회, 2006), 심리사회적 손상에 미치는 경로들(정익중·이지언, 2012; 김광혁, 2009)에 대해서 각각 보고되고 있지만, 각각의 경로들을 통합적으로 그려내는 연구는 아직 시도되지 않고 있다. 향후 후속연구에서 기존의 밝혀진 경로들을 연결하여 가정폭력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그려낸다면 인간발달에 대한 이해가 보다 깊어질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상경(2011).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파주; 나남출판.
- 곽영숙·홍강의(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정신건강연구. 6. 37-52.
- 권자영(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경신·김정란(2002). 아내학대에 대한 세대전이 과정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0(1). 85-98.
- 김광혁(2009). 아동학대 및 방임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총. 24(2). 27-45.
- 김두섭·강남준(2000). 회귀분석 기초와 응용. 서울: 나남출판사.
- 김미정·정규석(2010).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사회자본이 학업수행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19. 37-59.
- 김성돈(1999). 우리나라 피해자학의 연구동향. 피해자학연구. 7(1). 87-104.
- 김성분(1991). 아동의 교사에 대한 지각과 학습 습관.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김세원(2003).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김소명·현명호(2004). 가정폭력이 집단 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1). 17-32.
- 김옥선·오윤자·최명구(2005). 초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19(3). 761-777.
- 김옥선·오윤자·최명구(2006). 초등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만족도. 아동교육. 15(1). 195-207.
- 김용태(2000). 패륜아의 가족역동의 이해. 청소년상담연구. 8. 79-99.
-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 김재엽(2001). 부부폭력과 아동학대. 연세사회복지연구. 6. 1-32.
- 김재엽·송아영·박경나(2008). 일반긴장이론에 근거한 청소년 지위비행에 관한 연구: 긴장요인으로서의 자녀학대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7. 295-318.
- 김재엽·송아영·한샘(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자녀학대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엽·이지현·정윤경(2007). 부부폭력가해자의 성장기아동학대경험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부모역할만족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5. 291-312.
- 김재엽·조춘범·정윤경(2008).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이 부모폭력에 미치는 영향과 인터넷 중독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학. 60(2). 29-51.

- 김재엽·최권호(2012). 중복학대 피해 청소년의 우울, 공격성, 비행행동: 신체학대와 방임의 중복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3), 193-213.
- 김정란(2003). 자녀의 가정폭력 노출과 행동문제: 자녀학대 피해와 아내학대 목격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8(3), 67-88.
- 김정옥·장덕희(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153-186.
- 김지연·이인숙(2008). 가정폭력 직·간접 경험이 청소년의 비행과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피해자학연구, 16(1), 199-228.
- 김지영·서영숙(2011). 학년별·성별에 따른 초등학교의 학업성취도와 진로발달간 관계 비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아동교육, 20(3), 103-120.
- 김태근(2006). (U-Can)회귀분석. 서울: 인간과 복지.
- 김형모·김영민(2007). 부부폭력 목격과 아동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11(1), 31-60.
- 김혜영(1999).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이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나은숙·정익중·이봉주·김예성·김광혁(2006). 학대 및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6(11), 187-193.
- 노성호(2010). 다중범죄피해의 실태와 영향요인. 피해자학연구, 83, 77-102.
- 노충래(2003). 학대와 방임 피해 아동의 치료. 서울: 학지사.
- 노충래·김현경(2004). 중학생의 부부폭력 목격경험, 아동학대, 학교폭력 가해여부의 공존성 및 학교폭력 가해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사회복지연구, 5, 79-107.
- 노충래·이신옥(2003). 중학생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6, 1-35.
- 도기봉(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에 대한 공격성과 충동성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2, 5-34.
- 도기봉·이운형(2009). 청소년의 교사체벌과 친구비행에 관한 간접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15(3), 225-245.
- 문영희(2010).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 피해자학연구, 18(2), 83-104.
- 민수홍(1998).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명숙(2011). 학대피해아동 형제자매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요인으로써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9(1), 229-259.
- 박미경·문혁준(2009).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정서지능, 사회적 능력, 학교생활만족도와 관계. 47(2), 1-13.
- 박영신·김이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원주(2011). 자아탄력성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박은하·권세원(2010). 가정폭력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애착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3). 201-231.
- 박형원(2004).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배옥현·이영석(2012). 취약가족과 비취약가족 아동의 인지 및 언어발달 비교. 부모교육연구. 9(1). 5-25.
- 배화옥(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백혜정·황혜정(2006). 초등학생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변인 및 자아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발달. 19(3). 1-27.
- 변귀연(2002). 집단괴롭힘 피해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2011). 빈곤과 학령기 아동의 발달에 관한 추적연구. 서울: 학지사.
- 손정영(1997). 갈등대처유형척도(CTS2)의 한국부부에 대한 타당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 51-87.
- 신선인(2008).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동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가족복지학. 23. 153-182
- 신혜섭(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1), 67-85.
- 신혜섭(2006).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 학생생활연구. 25. 117-130.
- 안재진·강상경·김혜란·신혜령·유조안·이봉주·이은주·황옥경(2011). 아동 학대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 안정숙·신승우(2002). 집단 따돌림 피해 중학생의 학교적응에 관련된 위험인자와 보호인자. 신경정신의학. 40(6). 1166-1173.
- 오승환(2001). 아동 학대와 아동의 생태학적 환경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5(2). 47-60.
- 오영진·김영희(2010). 청소년기 내면화 문제 행동의 발달적 양상과 유형화 예측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48(10). 89-103.
- 오혜정(2004). 아동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노출경험이 성장 후 문제음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청구논문. 연세대학교.
- 유재학·박지선·박두흠·유승호·하지현(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 14(3). 563-578.
- 유효현(2006). 학업성취에 대한 관련변인의 예측력 분석. 박사학위 청구논문. 홍익대학교.

- 윤명숙·조혜정(2008). 청소년의 폭력경험유형이 우울 및 음주행위에 미치는 영향: 가정폭력, 학교폭력, 중폭력 피해경험 중심으로.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295-329.
- 이경은·장덕희(2000). 가정폭력 경험이 청소년의 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7(1). 103-105.
- 이경주·신효식(1998). 청소년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126. 139-150.
- 이봉민(2012). “상상 접촉”을 활용한 청소년의 외집단에 대한 집단괴롭힘 태도 개선. 박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이봉주·곽금주·구인회·김민화·김선숙·김지현·김혜란·박혜준·신혜은·윤명희·이강이·이광호·정익중·진미정.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이봉주·김선숙·김남희(2010). 한국 아동 발달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1. 107-141.
- 이봉주·임세희(2008). 아동의 주거상태와 아동발달. 보건복지포럼. 145. 43-50.
- 이성식·전신현(2011). 집단괴롭힘의 피해와 가해의 관계와 그 성별차이. 한국피해자학회. 19(1). 207-227.
- 이성진·정범모(1995). 학업성취의 요인. 서울: 교육출판사.
- 이승출(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29. 116-135.
- 이재연·한지숙(2003). 아동과 부모, 가족환경 특성에 따른 아동학대 실태 연구. 아동학회지. 24(2). 63-78.
- 이종화(2007). 우리나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임상사회사업연구. 4(1). 213-235.
- 이창훈·송주영(2009). 집단 괴롭힘(Bullying)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한국범죄학. 3(2). 103-143.
- 이혜련·최보가(1999).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 75-85.
- 이호택(2012).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11(1). 25-52.
- 임정하·윤정진(2010).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인간발달연구. 17(1). 263-284.
- 장덕진(2000). 학급내 연결망과 학습성과. 사회과교육학연구. 4. 161-185.
- 장연집(2010). 아동기의 심리적 외상과 치료적 개입. 사회과학논총. 17. 175-197.
- 장화정(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과 권리. 8(4). 777-792.

- 장희숙(2010). 가정폭력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교정담론. 4(2). 85-113.
- 정남순(1999). 심리적 가정환경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청구논문. 관동대학교.
- 정윤수·이정희(2003).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네트워크 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2(3). 227-254.
- 정익중(2008). 아동학대 경험이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로 이어지는 발달경로. 아동학회지. 29(4). 79-95.
- 정익중·박현선·구인회(2006). 피학대아동이 비행에 이르는 발달경로. 한국사회복지학. 58(3). 223-244.
- 정익중·이지언(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정현희·이경아(1999).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2). 213-226.
- 정혜숙(201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중복발생과 관련된 국내 사회복지 현장 실무자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3). 83-108.
- 조미숙(1999).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 295-326.
- 조미숙(2002). 가정폭력이 아동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6(1). 245-256.
- 조미숙(2005). 가정폭력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파주: 21세기사.
- 조미숙(2012). 청소년자녀 성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4(1). 1-19.
- 조성상·이서원(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인터넷 중독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27(4). 117-131.
- 조용주·정남운(2009). 부모 공감에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15-941.
- 조유진(2005). 집단괴롭힘 목격과 피해 경험의 가해화 경로에 대한 중재요인. 박사학위 청구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조춘범·조남홍(2011).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8(4). 75-102.
- 최보람(2008).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소득수준, 성취동기, 진로태도성숙 요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대학교.
- 최성재(2005).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파주: 나남출판.
- 최현정 & Herman, J.(2007). 트라우마. 서울: 플래닛.
- 최혜정(2012). 부부폭력을 목격하고 자란 자녀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2). 157-182.
- 하태희·김희숙(2010). 중학생의 자존감,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

- 한국보건간호학회. 24(1). 93-104.
- 한경혜 · 김영희(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개인과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27-39.
- 한성희(2002). 아동기 외상의 정신과적 개관. 소아 · 청소년정신의학. 13(1). 3-14.
- Ammerman, Robert T., & Hersen, Michel. (1999).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이화여대사회복지연구회. 서울: 양서원.
- Anderson, Kristin L. (2010). Conflict, Power, and Violence in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 Family. 72(3). 726-742.
- Bandura, Albert(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Carleton, R. A. (2006). Does the mandate make a difference? reporting decisions in emotional abuse. Child Abuse Review. 15(1). 19-37.
- Chan, K. L. (2011). Children exposed to child maltreatment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A study of co-occurrence among Hong Kong Chinese families. Child Abuse & Neglect. 35(7). 532-542.
- Cummings, E. Mark, Iannotti, Ronald J., & Zahn-Waxler, Carolyn. (1985). Influence of conflict between adults on the emotions and aggression of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3). 495-507.
- Daro, Deborah, Edleson, Jeffrey L., & Pinderhughes, Howard. (2004). Finding Common Ground in the Study of Child Maltreatment, Youth Violence, and Adult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3). 282-298.
- DuMont, Kimberly A., Widom, Cathy Spatz, & Czaja, Sally J. (2007). Predictors of resilience in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grown-up: The role of individual an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Child Abuse & Neglect. 31(3). 255-274.
- Dutton, Donald G. (2007). The Complexities of Domestic Violence. The American psychologist. 62(7). 708-709.
- Edleson, J. yL., Ellerton, A. L., Seagren, E. A., Kirchberg, S. L., Schmidt, S. O., & Ambrose, A. T. (2007). Assessing child exposure to adult domestic violenc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7). 961-971.
- Edleson, Jeffrey L. (1999). The Overlap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Woman Battering. Violence Against Women. 5(2). 134-154.
- Edleson, Jeffrey L., Mbilinyi, Lyungai F., Beeman, Sandra K., & Hagemeister, Annelies K. (2003). How Children Are Involved in

- Adult Domestic Violence: Results From a Four-City Telephone Surve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1). 18–32.
- Fang, Xiangming, & Corso, Phaedra S. (2008).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nections Between Violence Experienced as a Child and Perpetration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Family Violence. 23(5). 303–313.
- Farrell, Graham. (1992). Multiple Victimization: Its Extent and Significanc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2). 85–102.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K., & Turner, Heather A. (2007). Poly-victimization: A Neglected component in child victimization. Child Abuse and Neglect. 31(1). 7–26.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K., & Turner, Heather A. (2007a). Polyvictimization and trauma in a national longitudinal cohor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9(1). 149–166.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K., Turner, Heather A., & Hamby, Sherry L. (2005). Measuring poly-victimization using the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Child Abuse and Neglect. 29(11). 1297–1312.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 Turner, Heather, A. (2009a). Lifetime assessment of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Child Abuse and Neglect. 33. 403–411.
-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Turner, Heather, & Holt, Melissa. (2009). Pathways to Poly-Victimization. Child Maltreatment. 14(4). 316–329.
- Finkelhor, David, Shattuck, Anne, Turner, Heather A., Ormrod, Richard, & Hamby, Sherry L. (2011). Polyvictimization in Developmental Context.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4(4). 291–300.
- Ford, Julian D., Wasser, Tobias, & Connor, Daniel F. (2011). Identifying and Determining the Symptom Severity Associated With Polyvictimization Among Psychiatrically Impaired Children in the Outpatient Setting. Child Maltreatment. 16(3). 216–226.
- Gresham, F. M. & Elliot, S. N. (2008). Social Skills Improvement System. Minneapolis: NCS Pearson Inc.
- Gunnlaugsson, G., Kristjansson, A. L., Einarsdottir, J., & Sigfusdottir, I. D. (2011). Intrafamilial conflict and emotional well-being: A population based study among Icelandic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35(5). 372–381.
- Hamby, S., Finkelhor, D., Turner, H., & Ormrod, R. (2010). The overlap

- of witnessing partner violence with child maltreatment and other victimizations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of youth. Child Abuse & Neglect. 34(10). 734–741.
- Haskett, Mary E., Smith Scott, Susan, Grant, Raven, Ward, Caryn Sabourin, & Robinson, Canby. (2003). Child-related cognitions and affective functioning of physically abusive and compariso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7(6). 663–686.
- Hawkins, J. D., Catalano, R. F., Kosterman, R., Abbott, R., & Hill, K. G. (1999). Preventing Adolescent Health-Risk Behaviors by Strengthening Protection During Childhood.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3(3). 226–234.
- Herrenkohl, Ellen C., Herrenkohl, Roy C., Rupert, Leslie J., Egolf, Brenda P., & Lutz, J. Gary. (1995). Risk factors for behavioral dysfunction: The relative impact of maltreatment, SES, physical health problems, cognitive ability, and quality of parent-child interaction. Child Abuse & Neglect. 19(2). 191–203.
- Herrenkohl, Todd I., Sousa, Cynthia, Tajima, Emiko A., Herrenkohl, Roy C., & Moylan, Carrie A. (2008). Intersection of Child Abuse and Children's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Trauma, Violence, & Abuse. 9(2). 84–99.
- Heyman, Richard E., & Slep, Amy M. Smith. (2002). Do Child Abuse and Interparental Violence Lead to Adulthood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4). 864–870.
- Hollingsworth, Jane, Glass, Joanne, & Heisler, Kurt W. (2007). Empathy Deficits in Siblings of Severely Scapegoated Children: A Conceptual Model. Journal of Emotional Abuse. 7(4). 69–88.
- Holt, Melissa K., Finkelhor, David, & Kantor, Glenda Kaufman. (2007). Multiple victimization experiences of urb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functioning and academic performance. Child Abuse & Neglect. 31(5). 503–515.
- Hope, Tim, Bryan, Jane, Trickett, Alan, & Osborn, Denise R. (2001). The Phenomena of Multiple Victimiz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and Property Crime Risk.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41(4). 595–617.
- Hotaling, Gerald T., Straus, Murray A., & Lincoln, Alan J. (1989). Intrafamily Violence, and Crime and Violence outside the Family. Crime & Just. 11. 315–375.
- Howell, K. H. (2011). Resilience and psychopathology in children exposed

- to family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6(6). 562–569.
- Hughes, HonoreM, Parkinson, Donna, & Vargo, Michael. (1989). Witnessing spouse abuse and experiencing physical abuse: A “double whammy” ?. Journal of Family Violence. 4(2). 197–209.
- Jean-Gilles, M. & P. M. Crittenden (1990). Maltreating Families: A Look at Siblings. Family Relations. 39(3). 323–329.
- Jimnez, L., Dekovic, M., & Hidalgo, V. (2009). Adjustment of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growing up in at-risk families: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variables and individual, relational and school adjustment.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6). 654–661.
- Johnson, Michael P., & Ferraro, Kathleen J. (2000).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in the 1990s: Making Distin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948–963.
- Kitzmann, K. M., Gaylord, N. K., Holt, A. R., & Kenny, E. D. (2003). Child witnesses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1(2). 339–352.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이현숙 · 김수진 · 전수현 공역(2010). 학지사.
- Koenen, Karestan C., Moffitt, Terrie E., Caspi, Avshalom, Taylor, Alan, & Purcell, Shaun. (2003). Domestic violence is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suppression of IQ in young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5(2). 297–311.
- Kolbo, Jerome R., Blakely, Eleanor H., & Engleman, David. (1996). Children Who Witness Domestic Violence: A Review of Empirical Literatur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2). 281–293.
- Lepist, S., Luukkaala, T., & Paavilainen, E. (2011). Witnessing and experiencing domestic violence: a descriptive study of adolescent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5(1). 70–80.
- Macmillan, Ross. (2009). The life course consequences of abuse, neglect, and victimization: Challenges for theory, data collection, and methodology. Child Abuse & Neglect. 33(10). 661–665.
- Margolin, Gayla, Vickerman, Katrina A., Oliver, Pamela H., & Gordis, Elana B. (2010). Violence Exposure in Multiple Interpersonal Domains: Cumulative and Differential Effec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7(2). 198–205.
- Mihalic, Sharon Wofford, & Elliott, Delbert. (1997). A Social Learning

- Theory Model of Marit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1). 21–47.
- Nelson, James F. (1980). Multiple Victimization in American cities: A statistical analysis of rare event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5(4). 870–891.
- Osborn, DeniseR, Ellingworth, Dan, Hope, Tim, & Trickett, Alan. (1996). Are repeatedly victimized households different?.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2(2). 223–245.
- Perkins, Daniel F., & Jones, Kenneth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28(5). 547–563.
- Renner, L. M. (2005). An integrated approach to understanding the effects of physical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S.l.], The 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DDOD박사학위논문.
- Richmond, Jessica M., Elliott, Ann N., Pierce, Thomas W., Aspelmeier, Jeffery E., & Alexander, Apryl A. (2009). Polyvictimization, Childhood Victimiz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Child Maltreatment. 14(2). 127–147.
- Sampson, R. J., S. W. Raudenbush, et al. (1997).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Science. 277(5328). 918–924.
- Scott Heller, Sherryl, Larrieu, Julie A., D' Imperio, Rhonda, & Boris, Neil W. (1999). Research on resilience to child maltreatment: empirical considerations. Child Abuse & Neglect. 23(4). 321–338.
- Sheehan, R. (2006). Emotional harm and neglect: the legal response. Child Abuse Review. 15(1). 38–54.
- Smith Slep, Amy M, & O'Leary, Susan G. (2001). Examining Partner and Child Abuse: Are We Ready for a More Integrated Approach to Family Violence?.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2). 87–107.
- Sparks, Richard F. (1981). Multiple victimization: Evidence, Theory, and Future research.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2(2). 762–778.
- Straus, M. A.(1999). Child–report, adult–recall, and sibling versions of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University of New Hampshire. <http://pubpages.unh.edu/~mas2/CTS24.pdf>
- Straus, M. A., S. L. Hamby, et al. (1998). Identification of Child Maltreatment With the Parent–Child Conflict Tactics Scales:

-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Data for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2(4). 249–270.
- Straus, Murray A., & Sweet, Stephen. (1992).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4(2). 346–357.
- Straus, Murray A., Hamby, Sherry L., Bonet–McCoy, Sue, & Sugarman, Davi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udermann, M. & Jaffe, P. G. (1999). Chapter 16: Child Witnesses of Domestic Violence. in R. T. Ammerman & M. Hersen.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A Clinical and Legal Source Book. (2nd Ed.). 343–366.
- Trickett, Penelope K., Kim, Kihyun, & Prindle, John. (2011). Variations in emotional abuse experiences among multiply maltreated young adolescents and relations with developmental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35(10). 876–886.
- Turner, Heather A., Finkelhor, David, Ormrod, Richard. (2010). Poly–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8(3). 323–330.
- Tyler, Tom R. (1980). Impact of directly and indirectly experienced events: The origin of crime–related judgments and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 13–28.
- Van Arsdale, Amy(2010). Is adolescent female sex offending a true paradox? A comparative study of gender differences in sex offending and delinquenc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Florida.
- Wallerstein, Judith S. & Kelly, Joan B. (1980). Effects of divorce on the visiting father–child relationship.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7. 1534–1539.
- Whitehead, Linette. (197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s to family stress: A re–evaluation.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0(3). 247–254.

부록1. 설문문항

I. 독립변수

1. 간접학대경험(부부폭력노출, 형제자매학대 목격)

주양육자: 귀하는 지난 1년간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년 이전에도 배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문 가	배우자가 나에게...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일을 않음	지난 1년 간 1~2 번	지난 1년 간 3~5 번	지난 1년 간 6~10 번	지난 1년 간 11~20 번	지난 1년 간 21 번 이상	지난 1년 이전에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음
<input type="radio"/>	1) 모욕적인 어투로 말을 하는 행위	1	2	3	4	5	6	7
	2) 때리려고 위협을 하는 행위	1	2	3	4	5	6	7
	3)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1	2	3	4	5	6	7
	4) 어깨나 목 등을 짊 움켜잡는 행위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5)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6) 목을 조르는 행위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7)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1	2	3	4	5	6	7
	8)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9) 물건(혁명, 몽둥이, 칼 등)으로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10)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1	2	3	4	5	6	7

아동: 지난 1년 간 함께 사는 부모님이 본인 이외의 다른 형제자매(형/오빠, 누나/언니, 동생)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문 가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어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전혀 없다.	지난 1년 간 1~2 번	지난 1년 간 3~5 번	지난 1년 간 6~10 번	지난 1년 간 11~20 번	지난 1년 간 21 번 이상	모함/ 응답
	1) 빈정거렸다(비웃거나 놀렸다)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2)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하였다	1	2	3	4	5	6	7
	3) 빠치거나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1	2	3	4	5	6	7
	4) 악담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5) 문을 쾅 닫고 방을 나갔다	1	2	3	4	5	6	7
	6) 주위의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7) 물건으로 때리려고 위협하였다	1	2	3	4	5	6	7
	8) 물건을 던졌다	1	2	3	4	5	6	7
	9) 잡거나 밀쳤다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10) 뺨을 때렸다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11) 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4	5	6	7
	12) 막대기 등 도구를 가지고 때렸다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13)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14)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input type="radio"/>	15)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	1	2	3	4	5	6	7

2. 직접학대경험

어른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화나게 할 때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함께 사는 부모님이 본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만약 지난 1년간 그런 적이 없다면, 예전에는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전 문 가	함께 사는 가족(어른)들은 내가 잘못했을 때...	지금 한번도 아닌 없음	지난 1-2 년	지난 3-5 년	지난 6- 10 년	지난 11-20 년	지난 21 년 이상	지난 1년 이상 아닌 예전 에는 있었 음
	1) 나를 잡고 흔들었다	1	2	3	4	5	6	7
	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3) 내게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질렀다	1	2	3	4	5	6	7
○	4) 나를 심하게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1	2	3	4	5	6	7
	5) 맨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때렸다	1	2	3	4	5	6	7
○	6) 나의 목을 잡고 졸랐다	1	2	3	4	5	6	7
○	7) 나에게 욕하거나 나쁜 말을 퍼부었다	1	2	3	4	5	6	7
○	8) 있는 힘을 다해 나를 마구 두들겨 팼다	1	2	3	4	5	6	7
○	9) 나에게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집에서 내쫓겠다고 말했다	1	2	3	4	5	6	7
○	10) 나에게 일부러 화상을 입게 하거나 물에 데게 하였다	1	2	3	4	5	6	7
	11) 나에게 때리겠다고 위협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다	1	2	3	4	5	6	7
	12) 벨트, 빗, 막대기나 다른 딱딱한 물건으로 내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렸다	1	2	3	4	5	6	7
	13) 손바닥으로 내 손, 팔, 다리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14) 나를 꼬집었다	1	2	3	4	5	6	7
○	15) 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4	5	6	7
○	16) 나를 내던지거나 때려눕혔다	1	2	3	4	5	6	7
	17) 나를 ‘바보’ 나 ‘멍청이’ 등으로 불렀다	1	2	3	4	5	6	7
○	18) 손바닥으로 나의 얼굴이나 머리, 귀 등을 때렸다	1	2	3	4	5	6	7

II. 종속변수

1. 외현화

다음 각각의 항목을 읽고 지난 두 달 동안 본인의 행동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도록 만든다	1	2	3	4
2) 나는 자주 생각 없이 행동한다	1	2	3	4
3) 나는 욕을 하거나 나쁜 말을 쓴다	2	3	4	4
4) 나는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	1	2	3	4
5) 나는 불끈 화를 잘 낸다	1	2	3	4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다	1	2	3	4
7)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	1	2	3	4
8) 나는 게임을 할 때 반칙을 쓴다	1	2	3	4
9)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	1	2	3	4
10) 나는 어른에게 말대꾸를 한다	1	2	3	4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 싸운다	1	2	3	4
12) 나는 규칙을 어긴다	1	2	3	4

2. 내재화

다음 각각의 항목을 읽고 지난 두 달 동안 본인의 행동에 가장 가까운 번호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종종 그렇다	거의 항상 그렇다
1) 나는 겁이 많다	1	2	3	4
2) 나는 자주 아프다	1	2	3	4
3) 나는 쉽게 창피해 한다	1	2	3	4
4) 나는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	1	2	3	4
5) 나는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6) 나는 외롭다	1	2	3	4
7)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나는 자주 피곤하다고 느낀다	1	2	3	4
9) 나는 같은 반 친구들과 있을 때 긴장이 된다	1	2	3	4
10) 나는 슬프다	1	2	3	4

3. 학교생활만족도

다음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생활이 즐겁다	1	2	3	4
2) 내가 배우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1	2	3	4
3)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존경한다	1	2	3	4
4) 나는 수업태도가 좋은 편이다	1	2	3	4
5) 숙제는 내 스스로 꼬박꼬박 해 가는 편이다	1	2	3	4
6) 선생님의 지시를 잘 따른다	1	2	3	4
7)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1	2	3	4
8) 시험볼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적이 있다	1	2	3	4
9) 수업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허락없이 교실에서 나간 적이 있다	1	2	3	4

4. 학업성취도

지난 학기(2010년 2학기) 성적은 반에서 어느 정도였습니까? 전과목 평균과 국어, 영어, 수학 과목 각각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해당되는 번호에 솔직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목	매우 잘하는 수준	잘하는 수준	중간	못하는 수준	매우 못하는 수준
전과목평균	1	2	3	4	5

5. 집단괴롭힘 가해경험

지난 1년 간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개인의 비밀은 보장되오니 숨김없이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상당히 자주 있었다
1) 다른 친구를 집단따돌림(왕따) 시키기	1	2	3	4
2) 다른 친구를 심하게 놀리거나 조롱하기	1	2	3	4
3) 다른 친구를 협박(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음)하기	1	2	3	4

6.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지난 1년 간 학교 내에서 또래나 선후배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항 목	전혀 없었 다	일년 에 1-2 회	한달 에 1-2 회	일주 일에 1-2 회	주 3회 이상
1) 돈이나 물건 뺏김	1	2	3	4	5
2) 집단따돌림(왕따)	1	2	3	4	5
3) 고의적 괴롭힘(심부름시키기, 놀림, 물건 망가뜨리기 등)	1	2	3	4	5

Ⅲ. 통제변수

1. 부모유대

다음의 각각의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해 주세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부모님 두 분 모두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 주로 돌봐주는 분(양육자)을 생각하면서 응답해 주세요.

문 항	항상그 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있다	1	2	3	4
2)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있다	1	2	3	4
3) 부모님(양육자)은 외출했을 때에도 내가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다	1	2	3	4
4)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부모님(양육자)은 전화를 한다	1	2	3	4
5) 부모님(양육자)은 나와 이야기 할 때 꾸지람 없이 대화하는 편이다	1	2	3	4
6) 나와 이야기 할 때 부모님(양육자)은 내가 대화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편이다	1	2	3	4
7) 부모님(양육자)은 나의 행동을 자주 칭찬해 준다	1	2	3	4
8) 내가 집에서 학교숙제를 할 때, 부모님(양육자)은 칭찬을 해주거나 보상을 해준다	1	2	3	4

2.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

귀하는 어린 시절(만 18세 이전)에 부모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 각각의 행동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용	알아지지 않았다	1-2번 알아났다	여러차례 알아났다
	1) 부모가 나에게 물건을 던졌다	1	2	3
	2) 부모가 나를 잡거나 밀쳤다	1	2	3
<input type="radio"/>	3) 부모가 나의 뺨을 때렸다	1	2	3
<input type="radio"/>	4) 부모가 나를 발로 차거나 물거나 혹은 주먹으로 때렸다	1	2	3
	5) 부모가 나를 도구(벨트, 빗, 막대기 등)를 가지고 때렸다	1	2	3
<input type="radio"/>	6) 부모가 나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1	2	3
<input type="radio"/>	7) 부모가 나에게 칼이나 흉기로 위협했다	1	2	3
<input type="radio"/>	8) 부모가 나에게 칼이나 흉기를 휘둘렀다	1	2	3

3. 지역사회 유대

귀하는 지난 1년 간 동네 사람들의 동네 아이들에 대한 훈육 경향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이사한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그동안의 주거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가만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모름/무 응답
1) 동네 아이들이 만약 학교를 무단결석하고 거리를 배회하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2) 동네 아이들이 만약 어른들에게 공손하지 않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3) 동네 아이들이 만약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4) 동네 아이들이 만약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으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혼내서 바로잡아 줄 것이다	1	2	3	4	5

귀하는 지난 1년 간 동네 사람들의 경향과 관련된 다음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만약 이사한지 1년이 안 되었더라도 그 동안의 주거경험을 토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작게 동한다	약간 동한다	별로 동하지 않다	전혀 동하지 않다	모름/무 응답
1)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와려고 할 것이다	1	2	3	4	5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친한 편이다	1	2	3	4	5
3)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할 만하다	1	2	3	4	5
4)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잘 못 어울린다	1	2	3	4	5
5) 우리 동네 사람들은 삶의 가치나 관점이 서로 다르다	1	2	3	4	5

4. 가구의 사회·경제적 영역

현재 귀 닥의 가구 구성원은 모두 몇 명입니까? 사정상 따로 살고 있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비혈연 동거인 모두 포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족: 혈연/혼인/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

명

가 구 원 변 호	조사대 상 아동과 의 관계	성별	최종학교	졸업여부	장애/질병여 부	장애 등급	결혼상태	경제활동분야	동거 여부	비동거 사유
		1)남자 2)여자	1)미취학 2)무학 3)초등학교 4)중학교 5)고등학교 6)대학(3년제 이하) 7)대학교(4년 제 이상) 8)대학원이상 9)모름/무응답	1)재학 2)중퇴 3)휴학 4)졸업 5)비해당(미취학/무학) 6)모름/무응답	1)장애있음 2)질병있음 3)장애와 질병모두 있음 4)없음 5)모르겠음	1)1급 2)2급 3)3급 4)4급 5)5급 6)6급 7)비등록 장애인(보훈처 등록장애인 포함) 8)비해당(비장 애인)	1)미혼 2)유배우 3)사별 4)별거 5)이혼 6)비해당(만14세이하) 7)모름/비 해당	1)자영업자 2)고용주 3)상용직 임금근로자 4)임시직 임금근로자 5)일용직 임금근로자 6)자활근로 및 공공근로 7)무급가족종사자 8)무직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중인 자) 9)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군 인 등) 10)비해당 (만 14세 이하)	1)동 거 2)비 동거	1)이혼 및 별거 2)직장때문 에 3)학업때문 에 4)입대(병역 의무) 5)기타 6)비해당 7)모름/무응 답
01	아동본인									
02	주양육자									

가구월소득: 작년 한 해(2010년)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됩니까?
(소득은 세금 공제전의 금액)

월평균 천만 백만 십만 만 만 원

(무응답시) 그럼, 작년 한 해(2010년) 귀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
에 가깝습니까?

- | | |
|------------------|-------------------|
| 1. 100만원 이하 | 6. 501만원 ~ 700만원 |
| 2. 101만원 ~ 200만원 | 7. 701만원 ~ 800만원 |
| 3. 201만원 ~ 300만원 | 8. 801만원 ~ 900만원 |
| 4. 301만원 ~ 400만원 | 9. 901만원 ~ 1000만원 |
| 5. 401만원 ~ 500만원 | 10. 1000만원 이상 |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을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 | |
|-------------|---------------------------|
| 1. 일반단독주택 | 7.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 |
| 2. 다가구용단독주택 | 8.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상가, 공장 등) |

- | | |
|-------------|---------------------------------|
| 3. 다세대주택 | 9. 오피스텔 |
| 4. 연립주택(빌라) | 10.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
| 5. 일반아파트 | 11.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 |
| 6. 영구임대아파트 | 12. 기타 |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의 점유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자가 2. 전세 3. 보증부월세 4. 월세 5. 기타

귀 닥이 현재 살고 계신 주택에서 거실, 부엌, 화장실 등을 제외한 방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개

귀 닥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1. 그렇다
 2. 아니다(차상위 가구이다)
 3. 아니다(일반 가구이다)

부록2. NatSCEV

Conventional Crime

- C1.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use force to take something away from (your child/you) that (he/she was/you were) carrying or wearing?
- C2.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steal something from (your child/you) and never give it back? Things like a backpack, money, watch, clothing, bike, stereo, or anything else?
- C3.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break or ruin any of (your child' s/your) things on purpose?
- C4. Sometimes people are attacked with sticks, rocks, guns, knives, or other things that would hurt.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hit or attack (your child/you) on purpose with an object or weapon? Somewhere like: at home, at school, at a store, in a car, on the street, or anywhere else?
- C5.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hit or attack (your child/you) without using an object or weapon?
- C6.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someone start to attack (your child/you), but for some reason, it didn' t happen? For example, someone helped (your child/you) or (your child/you) got away?
- C7.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someone threaten to hurt (your child/you) when (your child/you) thought that he or she might really do it?
- C8. When a person is kidnapped, it means that person was made to go somewhere, like into a car, by someone who the person thought might hurt him or her.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has anyone ever tried to kidnap (your child/you)?
- C9.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has your child/have you) been hit or attacked because of (your child' s/your) skin color, religion, or where (your child' s/your) family comes from? Because of a physical problem (your child has/ you have)? Or because someone said (your child was/you were) gay?

Child Maltreatment

- M1. Not including spanking on (his/her/your) bottom,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 grown-up in (your child' s/your) life hit, beat, kick, or physically hurt (your child/you) in any way?
- M2.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get scared or feel really bad because grown-ups in (your child' s/your) life called (him/her/you) names, said mean things to (him/her/you), or said they didn' t want (him/her/you)?
- M3. When someone is neglected, it means that the grown-ups in that person' s life didn' t take care of him or her the way they should have. They might not get that person enough food, take him or her to the doctor when sick, or

make sure that he or she has a safe place to stay.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was your child/ were you) neglected?

- M4. Sometimes a family fights over where a child should live.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 parent take, keep, or hide (your child/you) to stop (him/her/you) from being with another parent?

Peer and Sibling Victimization

- P1. Sometimes groups of kids or gangs attack people.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 group of kids or a gang hit, jump, or attack (your child/you)?
- P2. (If yes to P1, say: "Other than what you just told me about. . .")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 kid, even a brother or sister, hit (your child/you)? Somewhere like: at home, at school, out playing, in a store, or anywhere else?
- P3.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 kids try to hurt (your child' s/your) private parts on purpose by hitting or kicking (your child/you) there?
- P4.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 kids, even a brother or sister, pick on (your child/you) by chasing (your child/you) or grabbing (your child/you) or by making (him/her/you) do something (he/she/you) didn' t want to do?
- P5.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get really scared or feel really bad because kids were calling (him/her/you) names, saying mean things to (him/her/you), or saying they didn' t want (him/her/you) around?
- P6. At any time in your life, did a boyfriend or girlfriend or anyone you went on a date with slap or hit you?

Sexual Victimization

- S1.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 grown-up (your child knows/you know) touch (your child' s/your) private parts when he or she shouldn' t have or make (your child/you) touch his or her private parts? Or did a grown-up (your child knows/you know) force (your child/you) to have sex?
- S2.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 grown-up (your child/you) did not know touch (your child' s/your) private parts when he or she shouldn' t have, make (your child/you) touch his or her private parts, or force (your child/you) to have sex?
- S3. Now think about other kids, like from school, a boyfriend or girlfriend, or even a brother or sister.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other child or teen make (your child/you) do sexual things?
- S4.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try to force (your child/you) to have sex, that is sexual intercourse of any kind, even if it didn' t happen?

- S5.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make (your child/you) look at his or her private parts by using force or surprise or by "flashing" (your child/you)?
- S6.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hurt (your child' s/your) feelings by saying or writing something sexual about (your child/you) or (your child' s/your) body?
- S7. At any time in your life, did you do sexual things with anyone 18 or older, even things you wanted?

Witnessing and Indirect Victimizations

- W1.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see a parent get pushed, slapped, hit, punched, or beat up by another parent, or by his or her boyfriend or girlfriend?
- W2.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see a parent hit, beat, kick, or physically hurt (his/her/your) brothers or sisters, not including a spanking on the bottom?
- W3.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in real life, did (your child/you) see anyone get attacked or hit on purpose with a stick, rock, gun, knife, or other thing that would hurt? Somewhere like: at home, at school, at a store, in a car, on the street, or anywhere else?
- W4.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in real life, did (your child/you) see anyone get attacked or hit on purpose without using a stick, rock, gun, knife, or something that would hurt?
- W5.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one steal something from your house that belongs to (your child' s/your) family or someone (your child/you) live with? Things like a TV, stereo, car, or anything else?
- W6.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was anyone close to (your child/you) murdered, like a friend, neighbor, or someone in (your child' s/your) family?
- W7.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see someone murdered in real life? This means not on TV, video games, or in the movies.
- W8.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was your child/were you) in any place in real life where (he/she/you) could see or hear people being shot, bombs going off, or street riots?
- W9.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was your child/were you) in the middle of a war where (he/she/you) could hear real fighting with guns or bombs?

Exposure to Community Violence

- ECV1.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know about anyone close, like a family member or good friend, who was forced to have sex, or touched in that person' s private parts when he or she didn' t want it?

ECV2.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know about anyone close, like a family member or good friend, who was robbed or mugged?

ECV3.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your child/you) know anyone close, like a family member or good friend, who was threatened with a gun or knife?

Exposure to Family Violence and Abuse

EF1.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one of (your child' s/your) parents threaten to hurt another parent and it seemed he or she might really get hurt?

EF2.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one of (your child' s/your) parents, because of an argument, break or ruin anything belonging to another parent, punch the wall, or throw something?

EF3.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one of (your child' s/your) parents get pushed by another parent?

EF4.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one of (your child' s/your) parents get hit or slapped by another parent?

EF5.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one of (your child' s/your) parents get kicked, choked, or beat up by another parent?

EF6. Now we want to ask you about fights between any grown-ups and teens, not just between (your child' s/your) parents. At any time in (your child' s/your) life, did any grown-up or teen who lives with (your child/you) push, hit, or beat up someone else who lives with (your child/you), like a parent, brother, grandparent, or other relative?

School Violence and Threat

SC1. (Has your child/Have you) ever gone to a school where someone said there was going to be a bomb or attack on the school and (your child/you) thought he or she might really mean it?

SC2. (Has your child/Have you) ever gone to a school where someone damaged the school or started a fire in the school on purpose? Or did anyone break or ruin other school property like buses, windows, or sports equipment?

Internet Victimization

INT1. Has anyone ever used the Internet to bother or harass (your child/you) or to spread mean words or pictures about (your child/you)?

INT2. Did anyone on the Internet ever ask (your child/you) sexual questions about (himself/herself/yourself) or try to get (your child/you) to talk online about sex when (your child/you) did not want to talk about those things?

부록3. Juvenile Victimization Questionnaire

: basic screen questions, child self-report version

Now we are going to ask you about some things that might have happened in the last year.

Conventional Crime

- C1) Robbery. In the last year, did anyone use force to take something away from you that you were carrying or wearing?
- C2) Personal Theft. In the last year, did anyone steal something from you and never give it back? Things like a backpack, money, watch, clothing, bike, stereo, or anything else?
- C3) Vandalism. In the last year, did anyone break or ruin any of your things on purpose?
- C4) Assault with Weapon. Sometimes people are attacked WITH sticks, rocks, guns, knives, or other things that would hurt. In the last year, did anyone hit or attack you on purpose WITH an object or weapon? Somewhere like: at home, at school, at a store, in a car, on the street, or anywhere else?
- C5) Assault without Weapon. In the last year, did anyone hit or attack you WITHOUT using an object or weapon?
- C6) Attempted Assault. In the last year, did someone start to attack you, but for some reason, it didn't happen? For example, someone helped you or you got away?
- C7) Kidnapping. When a person is kidnapped, it means they were made to go somewhere, like into a car, by someone who they thought might hurt them. In the last year, did anyone try to kidnap you?
- C8) Bias Attack. In the last year, were you hit or attacked because of your skin color, religion, or where your family comes from? Because of a physical problem you have? Or because someone said you are gay?

Child Maltreatment

Next, we ask about grown-ups who take care of you. This means parents, babysitters, adults who live with you, or others who watch you.

- M1) Physical Abuse by Caregiver. Not including spanking on your bottom, in the last year, did a grown-up in your life hit, beat, kick, or physically hurt you in any way?
- M2) Psychological/Emotional Abuse. In the last year, did you get scared or feel really bad because grown-ups in your life called you names, said mean things to you, or said they didn't want you?
- M3) Neglect. When someone is neglected, it means that the grown-ups in their

life didn't take care of them the way they should. They might not get them enough food, take them to the doctor when they are sick, or make sure they have a safe place to stay. In the last year, did you get neglected?

- M4) Custodial Interference/Family Abduction. Sometimes a family fights over where a child should live. In the last year, did a parent take, keep, or hide you to stop you from being with another parent?

Peer and Sibling Victimization

- P1) Gang or Group Assault. Sometimes groups of kids or gangs attack people. In the last year, did a group of kids or a gang hit, jump, or attack you?
- P2) Peer or Sibling Assault. (If yes to P1, say: "Other than what you just told me about . . .") In the last year, did any kid, even a brother or sister, hit you? Somewhere like: at home, at school, out playing, in a store, or anywhere else?
- P3) Nonsexual Genital Assault. In the last year, did any kids try to hurt your private parts on purpose by hitting or kicking you there?
- P4) Bullying. In the last year, did any kids, even a brother or sister, pick on you by chasing you or grabbing your hair or clothes or by making you do something you didn't want to do?
- P5) Emotional Bullying. In the last year, did you get scared or feel really bad because kids were calling you names, saying mean things to you, or saying they didn't want you around?
- P6) Dating Violence. In the last year, did a boyfriend or girlfriend or anyone you went on a date with slap or hit you?

Sexual Victimizations

- S1) Sexual Assault by Known Adult. In the last year, did a grown-up YOU KNOW touch your private parts when you didn't want it or make you touch their private parts? Or did a grown-up YOU KNOW force you to have sex?
- S2) Non-specific Sexual Assault. In the last year, did a grown-up you did NOT KNOW touch your private parts when you didn't want it, make you touch their private parts or force you to have sex?
- S3) Sexual Assault by Peer. Now think about kids your age, like from school, a boy friend or girl friend, or even a brother or sister. In the last year, did another child or teen make you do sexual things?
- S4) Rape: Attempted or Completed. In the last year, did anyone TRY to force you to have sex; that is, sexual intercourse of any kind, even if it didn't happen?
- S5) Flashing/Sexual Exposure. In the last year, did anyone make you look at their private parts by using force or surprise, or by "flashing" you?
- S6) Verbal Sexual Harassment. In the last year, did anyone hurt your feelings by saying or writing something sexual about you or your body?

S7) Statutory Rape and Sexual Misconduct. In the last year, did you do sexual things with anyone 18 or older, even things you both wanted?

Witnessing and Indirect Victimization

Sometimes these things don' t happen to you but you see them happen to other people. This means to other people in real life. Not people on TV, video games, movies, or that you just heard about.

W1) Witness to Domestic Violence. In the last year, did you SEE one of your parents get hit by another parent, or their boyfriend or girlfriend? How about slapped, punched, or beat up?

W2) Witness to Parent Assault of Sibling. In the last year, did you SEE your parent hit, beat, kick, or physically hurt your brothers or sisters, not including a spanking on the bottom?

W3) Witness to Assault with Weapon. In the last year, in real life, did you SEE anyone get attacked on purpose WITH a stick, rock, gun, knife, or other thing that would hurt? Somewhere like: at home, at school, at a store, in a car, on the street, or anywhere else?

W4) Witness to Assault without Weapon. In the last year, in real life, did you SEE anyone get attacked or hit on purpose WITHOUT using a stick, rock, gun, knife, or something that would hurt?

W5) Burglary of Family Household. In the last year, did anyone steal some thing from your house that belongs to your family or someone you live with? Things like a TV, stereo, car, or anything else?

W6) Murder of Family Member or Friend. When a person is murdered, it means someone killed them on purpose. In the last year, was anyone close to you murdered, like a friend, neighbor or someone in your family?

W7) Witness to Murder. In the last year, did you SEE someone murdered in real life? This means not on TV, video games, or in the movies?

W8) Exposure to Random Shootings, Terrorism, or Riots. In the last year, were you in any place in real life where you could see or hear people being shot, bombs going off, or street riots?

W9) Exposure to War or Ethnic Conflict. In the last year, were you in the middle of a war where you could hear real fighting with guns or bombs?

Abstract

The Effects of the experience type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 development : Focusing on the impact of the polyvictimization

Cho, Young Cho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analyzed the profiles of individual victimizations and poly-victimization more carefully that the previous studies did not analyze. The research questions was established as follows : 1) If we controled the direct and indirect abuse, what kind of impact will happen to the child development? 2) Compare with multiply abused children group and single abused children's group, which one will have serious impact. 3) Is there any difference of the impact on development of poly-victimized children by gender? This study try to explain the effect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 development based on poly-victimization model, social learning theory, and trauma theory.

This study uses the National Survey of the Child Abuse 2011 for analysis. A total sample was 1918case who are between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and the third grade in high school. They also answered 'Lived with parents and have siblings.' For the analysis, using SPSS 18.0 package, to proceed multiple regression and logistic regression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domestic victimization on child

development.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direct and indirect victimization account simultaneously, direct victimized and indirect victimized children have significantly higher expected value of child development than the non-victims. Specific domain that found the influence are the externalizing problem, the internalizing problem, the satisfaction of school life, the victimization of bullying. The academic achievement and the attack behavior of bullying didn't show significant.

Second, comparing with the multiply abused group and the single abused group,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s, internalizing problems, and satisfaction of school life have more negative influence on developmental outcomes. In chil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oly-victimized and only indirect abused children. In satisfaction of school life, the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oly-victimized and single abused children. The impact on the school achievement was not significant between the poly-victimized and single abused children. In the attack behavior of bullying and the victimization of bullying, the poly-victimized children had reversely more positive influence than the single abused children.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according to the gender of the child, it was found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externalizing problem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nd was not founded in internalizing problems,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attack behavior of bullying, the victimization of bully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hild gender difference can be an important factor in the process of coping with the stress of domestic violence.

These findings have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in the field of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In the field of practice, Indirect abused children have not been the target of the intervention. This Study suggest that Indirect victimization should be included in the assessment

of the domestic violence and indirect abused children should be also the target of the intervention. In Addition, since the polyvictimized children can be more suffer from the accumulated negative affect, the overlapped victimizations in the family should be assessed. So, the long-term and more intensive treatment interventions should be considered for them. In addition, when designing the intervention programs, the clinician will need to consider the child gender difference.

This study have the several limitations. Despite of the purpose that examine the influence of child abuse on the psychosocial development and the school adjustment, this study couldn't include the variables of the self-concept and peer-support. And the measurement of spousal abuse used the caregiver' s response instead of the child' s. Finally, the measurement of the academic achievement used the child's subjective perception. In the future domestic research, the longitudinal study will need to examine that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of the children in the life course and the path of integration will need to identify the impact of domestic violence experience types on child development.

Keywords: domestic violence, child abuse, polyvictimization, multiple victimization, direct abuse, indirect abuse, child development

Student number: 2010-23001